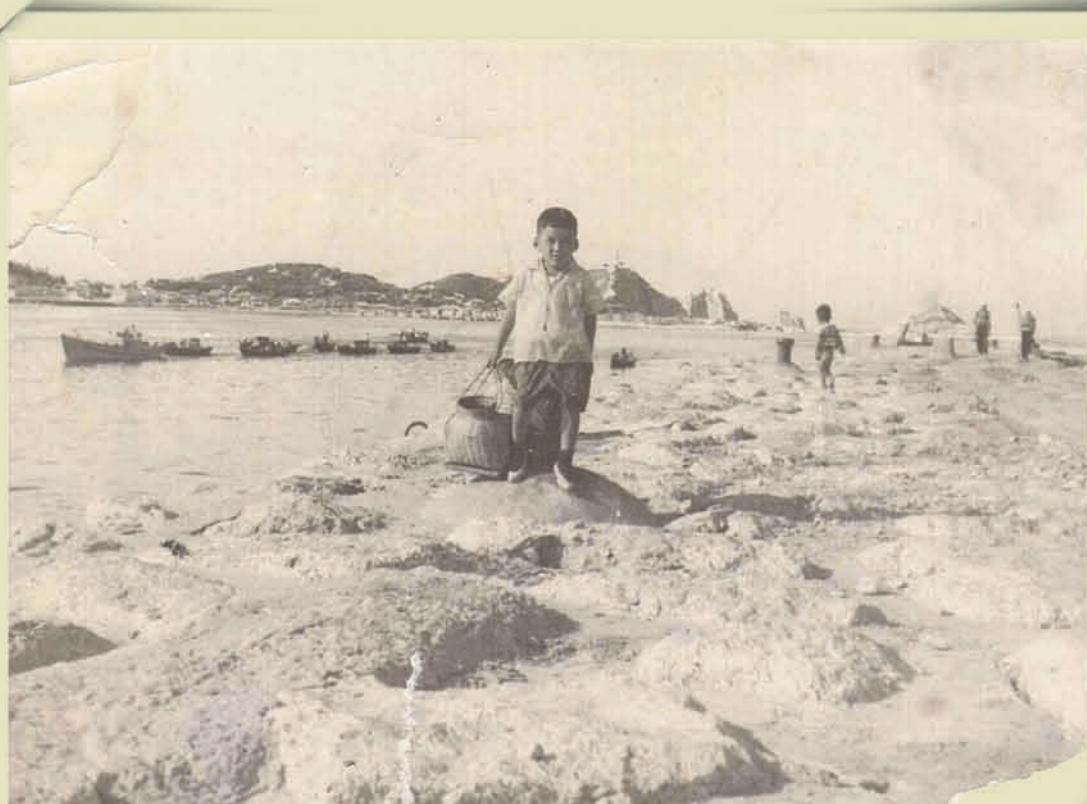


2012 |
ANNUALLY | 제 28 호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 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사자놀음 전승 및 보존
- 속초 도문농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Contents



- 005 · 권두시 쓸베 감펭 / 김종현
006 · 권두휘호
 象忖先生詩 / 김병준 · 만해 한용운 선사시 / 박춘일
008 · 밭간사 노광복

속초문화 365

- 012 · 제31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
013 · 제20기 향토문화학교
014 · 2012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015 · 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016 · 도리원농악대 전승 및 보존
017 ·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018 ·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019 ·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예술동아리
020 · 2012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021 · 2012 문화유적답사
022 · 2012 어르신문화학교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 양성’
023 · 제47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024 · 어린이방학문화프로그램 ‘놀면서 배우는 속초문화’
025 · 2012 토요문화학교
026 · 청소년방학프로그램 ‘작은예술가 캠프’
027 · 청소년문화전수교육 ‘나는 아름답다’
028 · 201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유정중문화제 만들기”
030 · 속초문화원 밭간 책자
032 ·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cover story

2012 장롱사진공모전 금상 수상작
(33p 관련기사)

■ 217-010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Tel.033)632-1231, 639-2439 Fax.033)632-1241
■ <http://www.sokcho-culture.com> · <http://www.sokcho-history.com> · E-mail : sc2439@sokcho.org
■ 펴낸곳 속초문화원 ■ 발행인 노광복 ■ 편집인 김인섭 ■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 발행일 2012.12.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2012 장롱사진공모전

033 · 금상_김형관

034 · 은상_김순자 · 박상수

036 · 동상_박이권 · 임효건 · 이정옥

특집

040 · 속초리성지(束草里城址)에 대한 소고(小考) / 정상철

문화논단

078 · 설초 이석범 선생의 애국애향활동 고찰 / 장정룡

기획 – 2012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096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102 · 어르신문화학교

104 · 어린이방학프로그램

108 · 청소년방학프로그램

118 · 토요문화학교



우리지역 옛이야기

124 · 사진으로 바라본 중앙시장 옛이야기 / 이수영

132 · 2012 속초문화예술 해적이

144 · 제24회 속초시 문화상

145 · 속초문화원 임직원 현황



BIG
HIT

나이키 속초점

나눔과 배려를 통한
지역문화사랑을 실천합니다

대표 이영순

강원 속초시 중앙동 481-33

☎ 033)633-1885



장사동 횟집의 명가

남북횟집

신선한 활어와

별미 매운탕으로 유명한 속초맛집
남북횟집이 속초문화를 응원합니다



대표 김순옥

강원 속초시 장사동 577-38

☎ 033)632-5618

쏠에 갈펭!

김 종 현

무지개 빛
화려한 지느러미
펄럭대며 헤엄칩니다
그 아름다움의
갈피갈피마다
감추어둔 독가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초 이파리 속
저격수로 자리잡고
지느러미를 흐느적거리며
머리 위로
낚시대 하나 슬그머니 펼쳐 놓고
기다립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려다
파랑돔 한 마리
생을 마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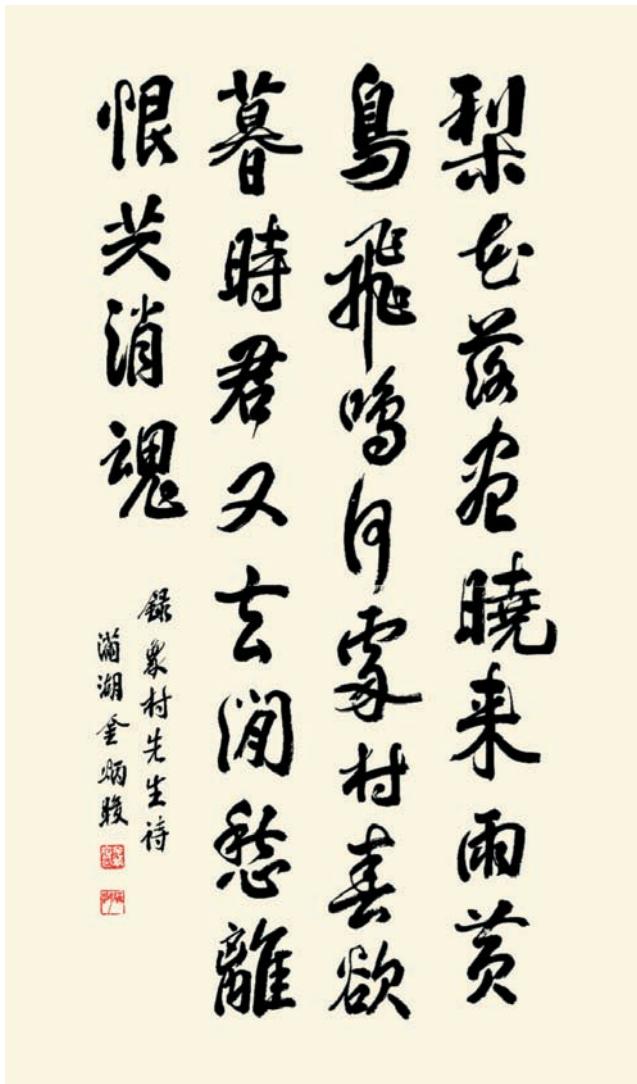
그 바닷속
어딘가에
나도 있습니다

때론
쏠베갈펭이로
때론
파랑돔 한 마리로...



김 종 현

1955년생
2001년 문학마을 등단
속초문인협회 사무국장
설악문우회(갈뫼동인) 사무국장
2011년 속초시 문화상 수상
현 영랑초등학교 교감



象付先生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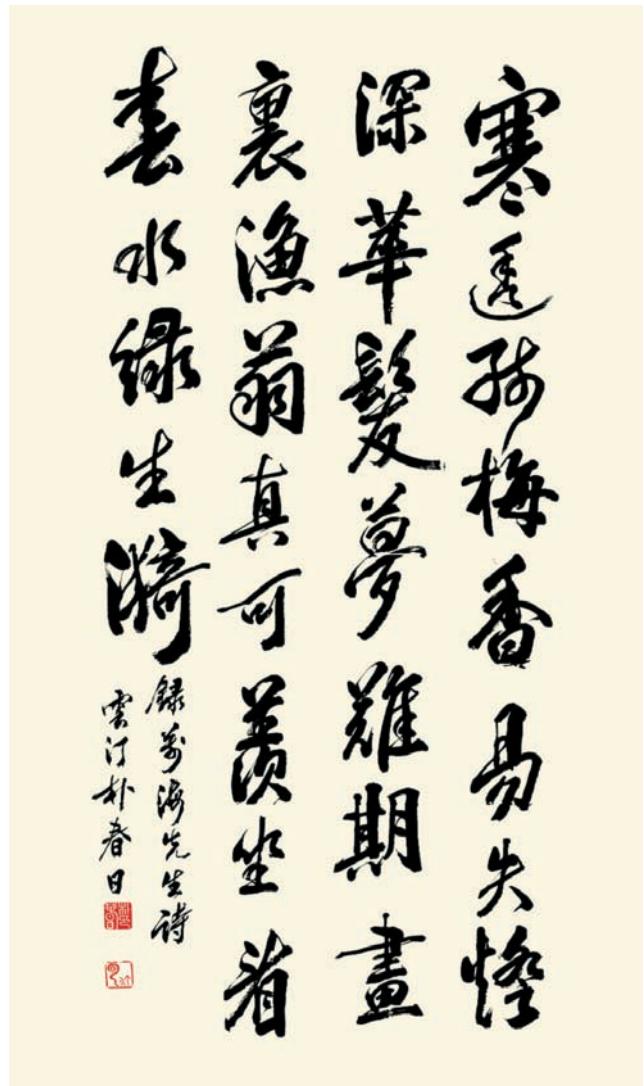
새벽녘 비내려
배꽃 다겼는데
어느마을
꾀꼬리 날며 우네
봄은 막 가려는데
그대 또한 가버리니
무단한 근심 이별의 한
함께 겹쳐 애녹이네



滿湖 金炳煥

동아미술대전 은상 1회
강원서예대전 입선 2회
만해서예대전 입선 2회

매화에 추워 스미니
향기 쉬이 스러지고
등불사위는 밤 늙은이
꿈은 기약하기 어려워
저 그림속 고기잡이
노인은 참 부럽군
앉아서 봄철 물에
찬 물결침 보느니



만해 한용운 선사시

雲汀 朴春日

강원서예대전 입선 1회
님의침묵서예대전 입선 1회
동해무릉서예대전 입선 1회



속초시 승격 50년,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 해 온 속초문화원



노 광 복
(속초문화원장)

문화의 시대라는 수식어가 범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라기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의 수입이 현대자동차 수출보다도 많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화보다는 산업에 더 방점이 찍힌 호들갑이었습니다.

문화관광이라는 수식어가 지자체마다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관광센터를 만들고 경관사업에 치중했습니다. 문화는 관광을 위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문화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움직임입니다. 문화의 시대, 문화관광이라는 공허한 수사보다 훨씬 나은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은 단단히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부단히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새롭게 덧붙이는 생물학적인 의미입니다.

속초문화원의 2012년은 이러한 정체성 살리기의 첫걸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져봅니다. 2010년부터 진행했던 장롱사진공모전을 끝냈고, 지난해부터 시민구술사를 통해 옛 기억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을 기르고 문화적 태도를 키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은 탄탄하게 진행하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난 2010년부터의 3개년 계획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은 속초시가 시로 승격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 동안 참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노정에 저희 문화원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100년은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문화중심도시 속초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 12.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21기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집시기 : 2월
- 신청방법 : 속초문화원 방문접수
- 등록비 : 연 3만원(재료비 별도)
※ 문화원 회원은 1만원 할인혜택 및 1강좌 무료 수강 가능(정원 미달시)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안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음반, 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원회비 : 연 4만원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 365

정월대보름
향토문화학교
노일일자리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속초도리원농악
속초 도문농요 보존 전승
북청사자놀음 전수
문화동아리 활동
작은콘서트
문화유적답사
어르신문화학교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어린이방학
토요문화학교
청소년방학프로그램
청소년문화전수교육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속초문화원 발간 책자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제31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

흉겨움이 물씬 풍기는 지역민들의 전통축제



전통과 흉겨움이 물씬 풍기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가 지난 2월 6일(월)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청조유원지 엑스포상 징답 광장에서 지역민들의 전통축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1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통민속 재연행사로 액집태우기와 지신밟기, 북청사자놀음이 재연되었다. 액집태우기는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행사로 강원도 내 최대규모를 자랑했다. 체험행사로는 가훈써주기, 연제기 만들기, 소원지 쓰기, 부럼깨물기 등이 열려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속초신협, 속초양양축협, 한화리조트 등 금융기관과 기업체가 각각 향토문화축제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기차기와 널뛰기, 윷놀이,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 마당을 진행하며, 각 행사별로 입상자를 선정해 푸짐한 상품을 주는 민속놀이가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예전부터 정월대보름 때 실시했던 북청사자놀음 걸립굿을 올해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실시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보여주었다.





제20기 향토문화학교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실현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평생교육 강좌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감상능력 제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개설되었다.

올해 강좌는 3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장구교실, 사물중급, 한지공예, 서예교실, 민요교실, 고전무용반, 노래교실' 등 7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1일 ~23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 입교식 : 2012. 3. 13. 11:00 / 문화사랑방

■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 2012. 11. 21~23



**2012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 소개 문화알림이 역할

건강이 허락하실 때까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4년째 진행 중이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거점에서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며 문화알림이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보다 2명 증가한 총28명의 어르신들이 총 33시간의 문화관광 소양교육을 받은 후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석봉도자기미술관, 청초정, 속초수산관광시장 등 6곳의 관광지에서 문화관광 도우미를 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 행사명 : 2012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 일 시 : 2012년 4월~10월
- 장 소 :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석봉도자기미술관, 청초정,
속초수산관광시장
- 내 용 : 지역문화관광해설이 가능한
어르신 해설사 양성 및 해설





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전통풍물교육의 연속성 유지 계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워보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정체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속초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를 설악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참가하여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배운 학생들이 풍물동아리를 형성하여 주 1회 풍물교육을 전수받아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본교육의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발표회가 제47회 설악문화제 기간 중 개최되었고,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노인의 날’ 식전공연으로 속초초등학교의 취타대가 초청받았다.





도리원농악대 전승 및 보존

속초 대표 전통공연콘텐츠로 성장 계기 마련



속초의 사라져가는 전통무형문화인 속초도리원농악의 전승 · 보존을 위해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 속초문화원 주부풍물단과 중학생풍물동아리 '뉘누리'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총 43회 전승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특히 주부풍물단이 도리원농악 중 설장구 개인놀이로 제47회 설악문화제 시민문화예술동아리 경연대회 및 제20회 향토문화학교 발표회에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속초의 대표 전통공연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속초도리원농악 교육일정

교 육	회 차	기 간	대 상	강 사
심화교육	36회	3월~12월 매주 목요일	주부풍물단 15명	전형준, 정호열
통합교육	7회	4월~10월 월 1회	주부풍물단 15명 뉘누리 20명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무형문화재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회 활성화



속초문화원은 속초유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회 활성화를 위해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도문농요 보존회 회원 55명과 속초시립풍물단, 갯마당 등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공연마당을 펼쳤다. 올해는 2012 속초 사회복지·청소년 대축제, 제31회 양봉인의 날 행사에 초청되었다. 또한, 설악문화제 기간 중 2회 초청공연을 받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2012 속초도문농요 공연 일정

회 차	일 시	장 소	행 사 명
1회	9월 15일	엑스포공원	- 2012 속초 사회복지·청소년 대축제
2회	10월 6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 제47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3회	10월 11일	엑스포 공원	- 제31회 양봉인의 날 행사
4회	10월 14일	설악산 소공원	- 제47회 설악문화제 산악페스티벌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속초 대표 민속문화콘텐츠로 각광



속초북청사자놀음은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속초 관내의 각종 공연에 초청받는 것은 물론 정선아리랑제처럼 관외 지역의 공연에도 속초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을 시작으로 총 12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연습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

회 차	일 시	장 소	행 사 명
1회	2월 6일	속초수산관광시장 엑스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수산관광시장 정월대보름 걸립굿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공연
2회	6월 1일	속초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시립박물관 방송 촬영을 위한 공연
3회	6월 17일	엑스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함남도민 한마당 큰잔치 초청공연
4회	6월 25일	속초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시립박물관 6.25피난살이 체험행사 초청공연
5회	7월 28일	속초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과 “고향의 밤 콘서트” 초청공연
6회	7월 29일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초청공연
7회	8월 11일	속초시립박물관	
8회	8월 18일	속초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과 “고향의 밤 콘서트” 초청공연
9회	8월 25일	속초시립박물관	
10회	8월 10일	속초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함남청년회 대상 속초시립박물관 공연
11회	10월 2일	정선공설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아리랑제 초청 공연
12회	10월 14일	설악산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예술동아리

지역문화예술의 뿌리 양성 및 지원활동 주력



속초문화원 지역문화예술의 뿌리인 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동아리 양성 및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악주부풍물단 '해울림'은 주3회 연습을 하며 오랜시간 호흡을 맞춰오며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공연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실적이 인정되어 올해는 낡은 악기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통소교육'은 공연에 참가할 정도로 기량이 성숙되었다. 이밖에 향토문화학교 고전무용반, 민요반 등에서 오랜 시간 기량을 닦아온 교육생들이 동아리를 결성하는 자발적 움직임을 보여 내년에는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동아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2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퍼포먼스 파티’, ‘신명, 춤과 소리가 있는 밤’ 등 다양



지역전통무형문화, 지역가수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인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는 여름철 선수기 관광객을 위한 속초시의 대표적인 체류형 문화관광 상품으로 기획하였다. 올해는 7월~8월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 설악동 B·C지구에서 총 6회 공연하였다.



‘퍼포먼스 파티’, ‘신명, 춤과 소리가 있는 밤’ 등 매회 각각 다른 주제로 진행한 공연은 관광객들의 큰 길재를 받았고, 특히 설악산 B·C지구 공연은 지역 상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공연주제	일 시	장 소	공연팀	관객
신명, 춤과 소리가 있는 밤	7월 27일 19:30~21:30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	갓마당,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신천무용단, 뷔리스틱	300명
퍼포먼스 파티	7월 28일 19:30~21:30		갓마당,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카스파밸리, 지역가수, 불헤드	
몸의 소통, 뜨거운 몸짓	7월 29일 19:30~21:30		갓마당,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지역가수 북청사자놀음 보존회, 밴드 fog	
이색공감, crossover night	7월 31일 19:30~21:30	설악동 B지구	갓마당,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지역가수, 마리아치 라틴	150명
7080, 낭만에 대하여	8월 1일 19:30~21:30		갓마당,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지역가수, 한우리예술단	
음악공감, 노래전시회	8월 2일 19:30~21:30	설악동 C지구	갓마당,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지역가수, 잉카엠파이어	100명



2012 문화유적답사

문화정체성 일깨우고 문화시민의 역량 강화

속초문화원 문화가족과 함께 관내·외 지역의 문화유적을 탐방하여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유적 답사가 올해는 세 차례 진행되었다.

1차 답사는 9월 7일 진안 마이산과 남원 광한루를 탐방하는 '남도문화기행', 2차 답사는 올해 최초로 개최된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을 답사한 후 저녁에는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의 국립국악원 초청공연을 응원하였다. 3차 답사는 최근 새롭게 단장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권' 탐방을 실시하였다.





2012 어르신문화학교 ‘풀목음문화나눔봉사단 양성’

옛 생활도구 및 지역설화구연 통한 문화자원봉사



2012 어르신문화학교는 ‘풀목음문화나눔봉사단 육성’이라는 미션으로 공예반, 설화구연반으로 분반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예반은 짚, 나무 등을 이용한 옛 생활도구를 만들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교육을, 설화구연반은 동화구연 기술을 익혀 지역설화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갈고닦은 지식을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문화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 사업명 : 어르신문화학교
‘풀목음문화나눔봉사단 양성’
- 일시 : 2012. 6~11
- 문화자원봉사활동



활동명	활동시간	장소	참가자	진행강사	향유인원
설악문화제 문화체험	10월 6~7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8명	3명	300명
청대초 책축제	10월 11일	청대초등학교 운동장	10명	2명	200명
찾아가는 문화자원봉사	10월~12월 (5회)	행복한홈스쿨 다솜아동센터 양양초등학교	25명	1명	50명



제47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영신제, 송신제 등 전통제례문화 알리미



설악제례는 설악문화제를 맞아 속초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10월 5일 설악산소공원(설악산신제), 설악해맞이공원(동해용왕제), 설악문화제 행사장(영신제)와 7일 설악문화제행사장(송신제)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런 제례문화가 속초의 전통문화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신제, 송신제를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진행함으로서 새로운 볼거리를 진행하였다.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09:30~10:30	설악산소공원
동해용왕제	10월 5일	13:00~14:00	설악해맞이공원
영신(삼신합동)제		17:00~18:00	설악문화제 행사장
송신(삼신합동)제	10월 7일	17:00~18:00	설악문화제 행사장



어린이방학문화프로그램 ‘놀면서 배우는 속초문화’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어린이방학문화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속초8경, 역사, 인물 등 속초문화를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으로 알아보는 ‘놀면서 배우는 속초문화’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8월 1일~14일(10일)동안 지역 초등 3~6학년 3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속초문화원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에게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문화예술의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 토요문화학교

주말여가시간 문화예술체험 기회 제공

속초문화원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주말
여가시간이 늘어난 지역초등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와 지역문
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요문화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상 · 하반기로 다른 주제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상반기는 '만화보다 재미있는 그림읽기'
란 제목의 미술사와 그림감상 수업을, 하반기는 '영랑
호풀꽃학교' 란 제목으로 영랑호를 탐방하며 다양한 문
화예술체험을 진행하였다.

■ 프로그램명 : 만화보다 재미있는 그림읽기

일 시	시 간	장 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5월 12일 ~ 6월30일 (8회)	매주 토요일 13:00~16:00	문화사랑방	17명	2명

■ 프로그램명 : 영랑호풀꽃학교

일 시	시 간	장 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10월13일 ~ 11월24일 (6회)	매주 토요일 09:00~12:00	문화사랑방 영랑호일대	16명	2명



청소년방학프로그램 ‘작은예술가 캠프’

체험활동 통해 배려와 공동체의식 고취



캠프명	일 시	장 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문화자원봉사자
작은예술가의 자연스케치	7월 26일~28일	인제냇강마을	25명	3명	4명
작은예술가의 도시스케치	7월 29일~31일	속초시박물관 외 속초시 일대	21명	3명	4명

지역청소년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작은예술가 캠프’라는 주제로 두 가지 캠프를 진행하였다.

1차 캠프 ‘작은예술가의 자연스케치’는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을 배우자는 주제로 7월 26일~28일 인제냇강마을에서 25명의 학생과 함께 냇강 뗏목체험, 밤하늘 별자리 탐구, 연극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2차 캠프 ‘작은예술가의 도시스케치’는 동네와 골목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높이자는 주제로 7월 29일~31일 속초시립박물관 등에서 21명의 학생들과 함께 골목 탐방 및 사진촬영, 간판 그리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문화전수교육 ‘나는 아름답다’

박상률 작가 초청 북콘서트, 문화예술공연 체험기회 제공

지난 11월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 대상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문화전수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올해 행사는 ‘나는 아름답다’의 저자 박상률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저서, 청소년기 삶 등에 대한 대담 등의 인문학 강좌와 인디뮤지션의 푸코록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특히 관내 3개 고등학교의 학교별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참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사명 : 박상률작가 초청 북콘서트
“나는 아름답다”
- 일시 : 2012년 11월 21, 26, 27일
- 장소 : 설악고 체육관,
근로자복지화관 공연장



201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지역영웅 유정충선장과 어업문화를 주제로 통합문화예술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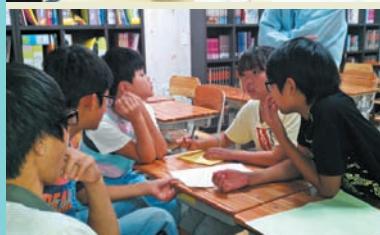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문화예술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유정충문화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잊혀진 영웅인 유정충선장과 어업문화를 주제로 통합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사업.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뮤지컬을, 위스타트는 사진, 노래, 미술 등의 예술활동을, 행복한홈스쿨은 그림자극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11월 10~11일 세 향유기관 학생들과 함께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기획워크숍을 진행하여 학생 스스로 발표회 준비를 하고, 12월 15일 통합발표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자원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역량강화를 위해 강사자율연구모임 등의 네트워크사업을 하였다.



프로그램명	향유기관명	인원	교육 내용
그림자극 프로젝트 '바다와 사람'	행복한홈스쿨	20	어업과 해양생태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스토리텔링하여 그림자극으로 제작
문화예술로 만나는 유정충 선장	위스타트	20	유정충선장의 생애를 pie, 스토리텔링, 벽화그리기로 표현
뮤지컬로 만드는 유정충과 바다	속초시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5	유정충선장의 희생정신을 뮤지컬로 제작





■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1박2일 워크숍

- 일시 : 2012. 11. 3~4.
- 장소 : 속초시립박물관
- 대상 : 강사 6명, 문화자원봉사자 4명, 향유자 32명
- 내용 : 유정충문화제 진행을 위한 홍보, 전시, 안내 계획 논의

■ 문화예술교육 발표회 “유정충문화제”

- 일시 : 2012. 12. 15.
- 장소 : 소극장 두드림
- 참가자 : 본 사업 향유자, 지역문화예술동아리
- 내용 : 교육 결과물 발표 및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 강사자율연구모임

- 일시 : 월 1회
- 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가자 : 본 사업 문화예술강사
- 내용 :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정 논의 및 지역문화자원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속초의 문화상징 50選’ 책자 발간



속초문화원은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고, 속초의 문화적 특징과 속초문화의 정수를 찾기 위해 ‘속초의 문화상징 50선’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문화상징은 속초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간적, 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영향을 끼친 대표적 문화상징을 말한다.

또한 분야별로 고른 선정을 위해 지난 2007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문화상징’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자연, 건축, 역사, 사회와 생활, 문화예술, 인물’로 구분하였다.

이 책에 실려있는 50개의 문화상징을 보면 길지 않은 도시생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룬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속초문화원은 이러한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 발표회 정상철 위원, 우수상 수상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상철 연구위원이 지난 2012년 10월 26일 오후 1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상철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에 개최된 21회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상철 연구위원이 수상한 논문 ‘속초리 성지(束草理 城地)에 대한 소고(小考)’는 일제시대 문헌에만 존재했던 속초리 성지(束草理 城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강원도지회와 속초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논문 발표회는 도내 11개 문화원이 참여하였다. 최우수상은 이기용 양양문화원 연구위원의 논문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蘿嶺)의 고찰(考察)’이 수상했다.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노광복 원장, 도지사 표창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문화교육분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난 이십여년간 속초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은 것. 특히, 향토사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해 장롱사진공모전, 시민구술사 등의 사업을 새롭게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정체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이 돋보였다.

김인섭 사무국장, 지역신문컨퍼런스 대상

속초문화원 김인섭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13일에 열린 지역신문 컨퍼런스 시민기자 기사대회에서 〈설악신문〉 9월 24일자(1074호)에 실린 ‘속초, 문화로 거닐다 (59)– 속초민예총 김부영 국악협회장 ‘소리에 훌려, 소리를 나누다’’ 기사로 이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김인섭 국장은 지역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설악신문에 격주로 ‘속초, 문화로 거닐다’라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고전무용반 최우수상 수상

향토문화학교 고전무용반 수강생들이 지난 11월 17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7회 대한민국 무용경연대회’에 일반부 한국무용 부문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전무용반 수강생들은 김민희 강사의 지도 아래 ‘속초사자놀음 연희단’을 올해 처음 결성하여 한국무용과 속초사자놀음의 춤사위를 결합한 창작춤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또한, 제32회 전국무용예능실기대회에서 일반부 은상을 수상했다.

장창근 회원, 사진공모전 금상 수상

속초문화원 사물중급반 반장으로 활동하는 장창근 회원이 속초시가 올해 처음 실시한 ‘청대산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청대산 경관명소에서 속초시의 전경을 감상하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필름에 담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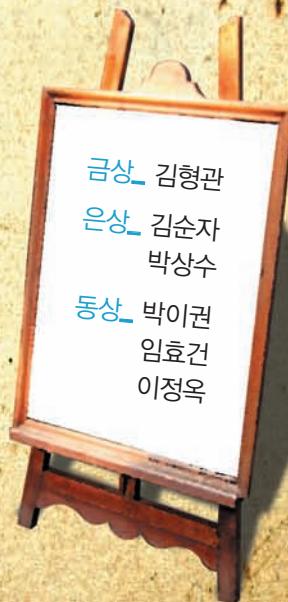


2012 장롱사진공모전

▷▷ 속초 사람 · 속초 이야기

속초문화원은 지난해에 이어 제3회 장롱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모하여 총 20명 8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대부분의 작품이 속초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추억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이다. 속초문화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의 출품작을 중심으로 속초시민 생활사를 구축할 예정이다.

추억속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며

김형관

1961년



청호동 방파제에서 놀고 있는 아이. 커다란 망태를 들고 오징어잡이에 나선 아버지가 만선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 당시에는 애비의 일터가 그대로 놀이터였나 보다. 아이가 딛고 있는 방파제는 일제 시대 당시 외옹치의 바위를 절개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저 멀리 보이는 영금정도 그런 운명이었다. 지금의 아름다움은 일부분일뿐 옛문화의 극찬을 통해 절경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속초항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배는 미역배라고 추측한다. 조그만 배 여럿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당시의 미역 채취 모습을 보여준다.

대포인민학교 5학년 1조 수업기념

김 순 자

1947년



속초 최초의 초등교육 기관인 대포초등학교의 1947년 수업기념 사진. 대포초등학교는 1919년 설립된 속초 최초의 초등학교로 설립 당시에는 대포공립보통학교라고 불렸다. 이 사진에는 대포인민학교로 개명하였는데, 해방 후 공산치하였던 실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졸업앨범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단체사진을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한다.

승리의 기쁨

박상수

1956년



영랑국민학교 축구대회 우승 기념으로 양양국민학교에서 기념촬영한 사진이다. 1955년 속초국민학교에서 분교한 영랑국민학교는 신생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양양군교육장배’ 축구대회(1956년 10월 7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라고 한다. 뒷줄 왼쪽 두 번째 선생님이 영랑국민학교 초대 교장이신 고연재 선생님이고, 앞줄 오른쪽 두 번째 앉은 선수가 전 속초보건소 박상수소장이다. 왼편에 우승기, 오른쪽 하단에 ‘축구일등’ 부상 상자가 보인다. 뒷 배경에 일부만 보이는 학교 발전을 위한 구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동생의 중학교 입학기념

박 이 권

1973년



출품인 동생의 명신중학교 입학식을 끝내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현재 사라진 당시 명신고등공민학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이다. 오른쪽 건물은 공산치하 때 영랑인민학교 자리로 6.25전쟁 중 전소되어 다시 건설한 것이고, 왼쪽 건물은 현재 폐품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아버지의 어린시절

임효건

1960년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집 앞 골목길에서 놀다 사진을 찍힌 동네 아이들의 모습. 누나로 보이는 가운데 여학생들은 자연스러운 반면 양편의 동생들은 경직되어 있다. 사진 속 장소는 문우당 서점 맞은 편 골목길이라고 한다. 이 동네 골목길을 걷다보면 사진 속의 집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많다. 담벼락 너머 이웃의 삶을 공유했던 그 시절의 골목길 풍경이 아스라이 인화되는 사진이다.

예비군훈련을 끝내고

이정옥

1974년



출품인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비룡폭포 구름다리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다. 예전에는 설악산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 모두 비룡폭포의 구름다리를 기억하고 있다. 출렁이는 구름다리를 걸으며 설악의 비경을 감상하는 짜릿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예비군 훈련을 받은 이들이 왜 하필 설악산까지 간 것일까. 비밀은 출품인과 함께 간 동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예비군 훈련소에 만난 동료들이 신흥사의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만난 스님을 따라 설악산까지 뒷풀이를 온 셈이다.

특집



속초리성지 東草里城址에 대한
소고 小考



속초리성지 束草里城址에 대한 소고 小考

정상철¹⁾

- I. 들어가는 말
- II. 속초리성지 개요
- III.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 IV.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군사정황
 - 1.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주진군(主鎮軍)
 - 2. 영동지역의 성곽(城郭)의 특성
- V. 속초리성지 축성(築城) 성격 분석
 - 1. 호국불교차원의 속초리 성지
 - 2. 여진, 거란, 몽고, 왜구 등을 방어하기 위한 속초리성지
 - 3. 치소성(治所城)으로서의 속초리성지
 - 4.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으로서의 속초리성지
 - 5. 속초포(束草浦)의 배후성지로서의 속초리성지
- VI. 맷음말
- VII. 참고자료(장안마을 - 「내고향 속초」(김정우, 1984)중에서)
- VIII.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기 고향에서 그 옛날부터 유서 깊은 사건들과 유적, 인물이 나기를 갈구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41세, 속초시청 근무

하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훼손되고 연구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일까?

설악산국립공원과 동해바다로 유명한 전국적인 관광지 속초!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태종 때 설치한 동해안의 수군 6포(六浦)²⁾ 가운데에 속초포(束草浦)에 배가 3척, 군사가 210명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양군 소천면[후에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이 됨] 속초리였던 한 동네가 일제강점기시절(1934~1936년경) 속초항을 어업항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속초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여 1942년 속초읍이 되었고, 양양군의 북쪽 일부와 고성군의 남쪽 일부를 합쳐서 1963년 시(市)로 승격된 곳이다.

이곳 속초시 동명동 365-15번지에 위치한 작은 언덕. 이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탁 트인 동해바다와 덕산봉수(德山烽燧)가 위치한 외옹치(外甕峙), 양양 낙산사(洛山寺) 해수관음상까지 훤히 보이고, 설악산과 울산바위, 달마봉까지 훤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대해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년 발간, 이하 조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번호 : 24

종별 : 성지(城址)

장소 : 도천면(道川面) 속초리(束草里)

소유 : 사유

‘성지(城址) 도천면(道川面) 속초리(束草里). 사유지.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³⁾

아쉬운 것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및 지방지에도 이 곳에 성(城)이 존재했었다는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언제 지어졌고,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성(城)으로서의 과거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헌에는 없는 이 곳 속초리의 유적이 『조사자료』와 이 지역 원주민들이 전하는 증언 및 이 지역에서 발견⁴⁾되는 수많은 기와파편들과 명문(銘文)기와, 초석, 우물터, 석렬(石列) 등이 이 곳이 성지(城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리성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석축공사로 인해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 지역과 관련된 각종 문헌상의 역사적 사실, 원주민들의 증언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각종 명문기와 파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속초리성지(이하 속초성)의 설치시기 추정, 설치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2) “진(鎮)이 2이니, 삼척(三陟)과 간성(杆城)이다.(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鎮)들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 防軍)이 없어, 일 이 있으면 시위대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 觀察使)가 겸한다. 수군만호수어 처(水軍萬戶守禦處)가 60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 ...太祖六年 丁丑始置鎮二鎮無留防軍有事則以侍衛牌充之 兵馬都節制使置司 江陵府 都觀察使無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在平 海東航一艘軍七十束草浦在襄陽北航三艘軍二百單十...

3) 城址 道川面束草里 私有 束草里部落ノ西方ニ近接セル 小丘上ニ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4) 속초리성지는 아직 발굴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통해 얻은 기와를 ‘발굴’, ‘출토’가 아닌 “발견”이라 함이 옳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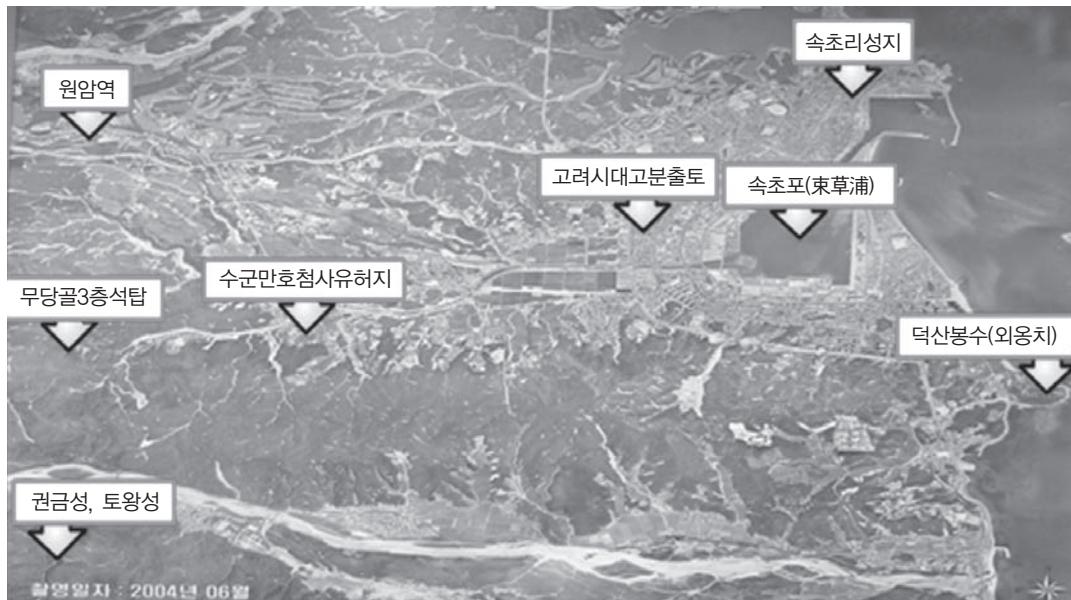
II. 속초리성지 개요

1. 위치

『조사자료』에서 기술한 지역은 현재의 속초시 동명동 365-15번지 일원(일명 단천마을)으로 수복탑 3거리 오성식당 뒤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속초감리교회~속초지원과 속초검찰청을 휙돌아 KBS 속초방송국과 舊 속초성결교회(지금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까지 연결되는 해발 20~40미터 정도의 구릉으로 둘러싸인 해안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속초성을 기준으로 동북쪽으로는 비선대(秘仙臺, 지금의 영금정⁵⁾)이 있고, 남동쪽 4km지점에 조선 초까지 사용되던 대포동 덕산봉수(德山烽燧)가 있었고, 남쪽 1.5km지점에는 고려수군만호지(高麗水軍萬戶址)지가 있었던 청초호(靑草湖, 일명 雙雙湖)가 있으며, 북서쪽 1.5km 지점에는 신라 화랑(花郎) 영랑(永郎)이 수려한 자연환경에 반해 한동안 머물다 간 것으로 유명한 영랑호(永郎湖)가 있었고, 서쪽 10km지점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 지금의 미시령)과 원암역(元巖驛) 터가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속초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경방단(警防團)이 설치되어 미군의 비행기 공격 감시, 속초지역의 화재·재난을 감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진-1. 속초지역 관방유적 등 분포도〉

5) 지금의 속초등대가 위치한 곳으로, 이곳을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원산(元山)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서는 속진산(束津山)으로 칭하고 있다.

6) 이 곳 동쪽 언덕에서 명문기와를 비롯한 수많은 기와편, 석렬, 판축된 흔적 등이 발견되었다.

2. 시설 · 형태 · 유물

지금도 양양(襄陽)에서 고성(高城)을 가기 위한 길목이자 일제강점기에도 기차역(東草驛)과 등대(燈臺)가 있었던 교통의 요지로, 바다가 인접한 동쪽으로 해발 20~30여m 정도의 자연스러운 언덕⁶⁾이 고대 성벽에 기어 오르는 적을 쏘기 위하여 성벽 밖으로 내밀어 쌓아 놓았던 돌출부인 치(雉)로 추정되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동(해발 약20m), 서(해발 약40m), 남(해발 약20m), 북(해발 약50m)으로 구릉이 형성되어 있으며, 치(雉)로 추정되는 부분과 동쪽성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성곽 양 끝을 돌로 받치고 흙으로 판축 한 흔적과 석렬(石列)이 발견되었으며, 지금도 성을 쌓기 위해 쓰였던 많은 할석들이 마을주위에 산재(散在)해 있는 상태이며, 우물터도 1곳이 있었다.⁷⁾ 이 지역에 최초 입주한 주민들의 증언과 현재 남아있는 지형을 고려해 볼 때 동쪽의 치(雉)로 추정되는 부분과 동쪽 언덕을 북쪽으로 하는 내성이 먼저 축성되었으며, 추후 외성이 결합된 복곽식(複郭式) 토성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의 둘레의 길이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조선 영조 때 속초리의 인구는 86호 272명⁸⁾(양양도호부 전체 호구는 2,243호 8,485명)⁹⁾ 정도였다. 해안 쪽의 마을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곳 장안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가장 최근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부터라고 한다.



〈사진-2. 속초리성지의 성곽도(추정)〉

7) 읍성이나 산성에는 식수로 쓸 수 있는 우물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 그래서 지리지에 읍성이나 산성을 소개할 때에는 성의 높이나 길이와 함께 반드시 샘이나 우물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 「한국의 읍성」, 18쪽, 『빛깔 있는 책들』, 대원사, 2005

8) 당시 양양도호부는 12면 74개리로 속초지역은 도천면(6개리 · 635명)과 소천면(4개리 · 63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속초리는 소천면의 하나의 리(里)였음. 속초리의 인구는 물자진리(勿繼津里) 470명, 상운역리(祥雲驛里) 356명, 인구역리(麟丘驛里) 353명 다음으로 4번째로 큰 마을인데 위의 3개 마을은 조선초부터 역이 있던 마을이다. 『양양군지』하, 179쪽 표 정리, 양양문화원, 2010 호수(戶數)가 8백 57호요, 인구가 1천 2백 77명이요, 동산현의 호수가 1백 25호요, 인구가 2백 18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73명이요, 선군이 1백 95명이다. 세종시록지리지 권153 양양도호부편

9) 양양군읍지(襄陽郡邑誌)의 전신인 현산읍지(峴山邑誌)

그 당시 이 지역은 대나무와 갈대가 무성하였으며, 최초 입주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기만 하면 기와 편과 토기편들이 무수히 나와 옆 산등성이['치(雉)'로 여겨지는 부분, 화살표 3개 있는 부분]에 갖다 버렸으며, 일제강점기 시절까지만 해도 주변에 사는 아낙네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곳 우물터에 와서 기와를 갈아 제기를 닦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적의 목을 베는 용도로 사용되는 군사용 낫의 일부분이 치(雉)부분에서 발견되었고, 동명동 450-25번지에서는 1953년 입주당시 집터를 파는 과정에서 폭 1m정도의 탄 자리(아궁이 터) 2줄이 길이 3m 정도 곧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대형 관사나 많은 수의 인원(또는 병사)들이 상주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명동 450-24번지에서는 올해 7월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2m정도 패었는데, 건물의 기둥을 받치는 파임흔적 5cm정도의 전돌 파편(길이 40cm정도)과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암회색 경질의 수기와와 백자편 등이 발견되었으며, 치(雉)로 추정되는 구릉지에서는 천경3년(天慶三年), 계사사월일(癸巳四月日), 양개口(良玆口), 관사(官舍), 변관(邊官), 연관(沿官)등의 명문기와와 연화문, 어골문¹⁰⁾, 사격자문, 연화문+어골문, 사격자문+어골문의 복합문양의 기와 등이 발견되었고, 지명(地名) 또는 성명(城名)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명문기와¹¹⁾가 다량 발견되었다.

3. 일화, 전설

이 지역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장안마을(일명 장골)이라 부른다. 장안(長安)이란 한나라의 수도를 일컫는 말이다. 적어도 삼국시대~신라통일기를 거치는 동안 일시적이나마 우리가 위치를 비정 할 수 없었던¹²⁾ 한 주(州) · 군(郡) · 현(縣)의 치소성(治所城)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성이 있거나, 이 지역에 출토된 관(官)자 명문기와로 보아, 중앙(中央)에서 파견된 관리(官吏)가 다스리거나 거주하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이 국경(國境)지역¹³⁾이었다는 문헌자료는 현재 밝혀진 바 없으나, 강원도 간성군(杆城郡), 지금의 남쪽 고성군(高城郡)인 군지(郡誌)인 수성지(守城誌)의 산(山)조에 의하면, 천후산(天吼山, 지금의 울산바위) 밑 미시령 인근(속초성 서쪽 10km지점)에 방수(防守)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이 삼국시대 또는 남북국 시대 등 국가간의 전쟁기간 중 일시적이나 오랫동안 양 전쟁국가간의 치열한 국경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성군 지명유래지의 죽왕면 문암리(속초성 북쪽 10km지점)의 전설¹⁴⁾을 보면 '삼국시대에 신라유민들이 이 곳에 들어와 어업과 농업을 겸업으로 하고 살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영토확장으로 고구려 군사들이 신라 땅인 이 마을을 침략하였다'고 하여 미시령인근의 방수(防守)와 더불어 이 지역이 고구려와 신라의 치열한 격전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지역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철모(투창의 앞부분) 4점¹⁵⁾이 발견되어 설악산

10) 미륵사지 통일신라 와요지에서 출토된 어골문을 기준으로 삼으면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경에 이미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말여초기 강원지방의 평기와 연구」 21쪽, 박동호,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 '장난(長蘭)', '난장(蘭長)', '난이(蘭耳)', '이난(耳蘭)'. 2012년 6월경 문화재청에 문의결과 좌서(左書)로 추정 '장(長)' 자를 '년(年)' 자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함. 이곳은 예전부터 장안(長安)마을이라 불림

12) 삼국사기에서는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을 따로 신기도 하였다.

13) 가장 근접한 국경지역은 신라진흥왕대인 568년 가라흘(지금의 북 고성군)에 군주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14) 『고성군 지명 유래지』, 248쪽, 고성군문화원, 1985. 최근 신석시대 농사유적이 발굴되었다.

15) 1968. 4. 3. 故박공달(1954년 속초소방대장 역임)씨에 의해 발견.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 중.

을 포함한 이지역이 옛날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내 고향 속초』의 작가 김정우¹⁶⁾도 장골, 장안마을이라 불리던 이 마을에 대한 지역 어르신들이 전하는 이야기, 자신의 어렸을 때 노닐던 기억, 성인이 되고나서 이 지역에 대한 경험, 토성 성벽과 4대문, 각종 기와에 얹힌 이야기를 토대로 이 곳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지(城址)였음을 피력하였다.

4. 속초리성지의 규모 비교(『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내)

위 치(조사당시)	시 기	규모(1간은 약 1.8m)		비 고
		간(間)	미터(m)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고려추정	200	360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고려이전~	200	360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고려추정	300	480	대포영성지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고려이전~	355	640	양양 석성산성
양양군 도천면 장항리	고려추정	2,000	3,600	권금성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	고려추정	70	126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	고려추정	300	540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고려중기~	130	230	고성산성지, 임시피난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고려추정	250	450	평지성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고려추정	250	450	평지성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나말여초	360	648	금수리산성 1217년에 거란이 고성을 침입
강릉군 사천면 석교리	고려추정	300	540	만호첨사청지
강릉군 연곡면 영진리	고려추정	500	900	영진수진영지
강릉군 성산면 보광리	고려추정	2,000	3,600	대공산성

〈표-1.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기록된 영동지역 성지(城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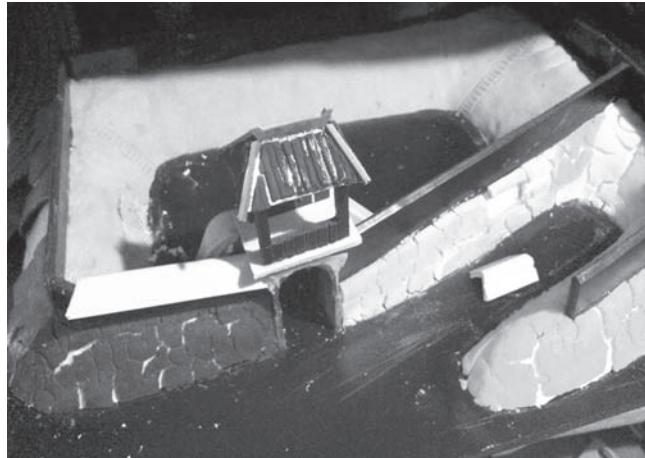
『조사자료』에 표시된 각종 역사유적의 경우, 최근 발굴된 것을 제외하고는 삼국·신라통일기·고려시대에 이미 그 용도를 다하였거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오래 전에 폐(廢)하여진 것들이 많다. 이 『조사자료』에서 조사된 속초인근지역의 고대시대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城)들을 비교해 볼 때, 속초성의 규모는 산성을 제외하고 3번째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규모는 규모일 뿐 성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만, 규모를 통해 성의 주둔 군사의 수(數), 여러 관청들의 규모 및 상주 인원, 피난성(避難城)으로 규정 시 피난 가능인원 등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표의 성지(城址)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아쉽게도 속초성 뿐이다.

16) 1984년, 前경향신문속초지국장, 前현대극단 단원, 자세한 내용은 본 소고 VIII. 참고자료에 게재



〈사진 – 3. 1953년 당시 속초리성지〉



〈사진 – 4. 속초리성지 모형도¹⁷⁾〉



〈사진 – 5. 속초리성지의 각종 할석들을 사용하여 만든 담장들〉

17) 故정영호(鄭永浩, 1938년~2012년, 동명동 450-40 거주) 장안마을의 최초 입주민인 故정태현(鄭泰賢, 1913~1998, 동명동 450-25 거주, 前속초3구장 역임)의 아들로 옛 기억을 토대로 2011년 제작

III.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고대에 있어서 기와의 생산은 대개 궁전이나 사원건축 등의 국가적인 조영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현재 옛 기와가 출토되고 있는 곳은 궁전이나 관아건물터 그리고 옛 성터나 절터가 중심이 되고 있어서 각 시대에 따른 기와 사용모습을 약간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¹⁸⁾

기와의 종류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중에서 연호(年號), 사용처(使用處), 제작자(製作者), 공급자(供給者)에 대한 내용이 기와 등무늬 또는 막새, 내림새에 글로 적혀있는 명문와(銘文瓦)는 우선 그 기와가 사용된 수급처(受給處)와 사용연대(使用年代)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문현기록에는 그 존재가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없거나,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유적의 존재를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금석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명문(銘文)이 없거나 문양만 있는 기와의 경우는 기존의 평기와 연구에 있어 대체로 와통의 형태를 주 기준으로 삼고, 그밖에 타날판의 길이 변화(단판→중판→장판), 포목흔, 사절흔, 벗질흔, 문양 등을 통해 연대를 측정한다¹⁹⁾고 한다.

속초성에는 유달리 ‘관(官)’자 명문기와²⁰⁾가 많이 발굴되고 있다. 차순철의 「관(官)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라는 연구논문에 의하면²¹⁾, 관(官)자명이 찍혀있는 문자기와는

1. 관청건물에 사용될 기와임을 나타내기위하여 관(官)자를 표시하였다.
2. 관영창고에 사용된 것을 표시하였다.
3. 관(官)을 나타냄과 동시에 화재 등을 피하기 위한 피사(避邪)의 의미로 상징성을 지닌 정(井)자를 함께 사용했다.
4. 대관(大官)명 누자기와는 창고를 나타내는 경(檜木+京)자가 찍힌 문자와 함께 사용된 점으로 볼 때, 당시 창고를 관리하는 관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5. 대관사(大官寺)또는 관사(官寺)와 같이 사찰의 이름을 표기한 것도 있다.
6. 해당 지역의 지방이름과 “관”자가 결합된 문자기와를 살펴 볼 때, 당시에는 관(官), 성(城), 군(君)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초기까지 이 문자기와가 나타나는 점은 당시 지방호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다.
7. 관(官), 관초(官草), 신(臣)등과 같은 명문와가 출토되는 대형 건물지는 당시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서오선은 “관(官)자명 기와가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²²⁾, 윤일근, 차용걸, 윤석인은 “비봉산성에서 출토된 ‘관(官)자’ 명 명문은 옛 성터에서 간혹 나오며 대체로 군(郡)이나 현(縣)의 치소(治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 명문기와의 사용·제작연대는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이르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²³⁾고 하였다.

18) 『옛 기와』, 89쪽, 빛깔 있는 책들, 대원사, 2003

19) 『나말여초기 강원지방의 평기와 연구』정리, 박동호,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0) 속초성에서 발견한 많은 명문기와의 한자해석에 있어 확인히 나타나는 명문을 제외하고는 필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많으므로 추후 전문가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21) 『관(官)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 92쪽, 차순철, 『경주문화연구 제5호』

22) 『한국 평와문양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연구』, 62~68쪽, 서오선, 종남대학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문선은 “관(官)자 기와가 발견되는 건축물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고 하며, 관청을 나타내는 관(官)자는 신라통일기에는 관(管)자를, 고려시대에는 관(官)자를 사용하였다”²⁴⁾고 한다.

한편, ‘관(官)’ 자 사용에 있어 변관(邊官), 연변관(沿邊官), 태수(太守) 등 지방관리의 성격이 보이는 명칭도 보이고 있어 신라통일기 중앙정부가 지방관적인 성격의 인물을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다만, ‘변관(邊官)’, ‘연변관(沿邊官)’ 등의 이름이 ‘태수(太守)’ 와 같은 고유 관직명(官職名)인지, 단순히 ‘변경지방의 관리’라는 보통명사의 의미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속초성에서 발견된 ‘관(官)’ 자 명문기와는 거의 □ + 官 + 舍 + □ 의 구조로 되어있다

단순히 사(舍)를 집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관사(官舍)’ 명의 명문기와가 얹혀진 집은 관리의 숙소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사(舍)’ 자를 집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신라시대에 상대사(上大舍), 차대사(次大舍), 대사(大舍), 종사지(從舍知) 등 관직명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²⁶⁾ 다만 위의 관직이 중앙관직이지만 지방관직으로 사대사(仕大舍)도 나타난다. 후에 일이지만 신라말 「궁예열전」에서 궁예가 명주로 들어가서 병력이 3,500명이 되었을 때 이를 14대로 나누고, 귀평을 사상(舍上, 부장)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²⁷⁾

강원도 지역에서 관(官)자명 명문기와가 출토된 사례를 보면 춘천 봉의산성²⁸⁾에서는 ‘조관초비(造官草比)’의 명문기와가, 근화동 유적에서는 ‘□면조관(□面造官)’ 명 기와가, 원주의 강원감영²⁹⁾에서는 ‘관범(官凡)’ 기와가 발굴되었는데, 이 경우는 ‘관(官)과 민(民)이 서로 힘을 모아’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속초성에서는 「천경3년 계사월일(天慶三年癸巳四月日)」라는 이 성의 축성시기 또는 중수시기로 추측 할 수 있는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 명문기와는 공교롭게도 지난 1989년, 2002년 두 번에 걸쳐 발굴 조사를 실시한 양양 진전사지(陳田寺址)³⁰⁾에서도 똑같은 「천경3년 계사4월일(天慶三年癸巳四月日)」³¹⁾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다만, 진전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무문(無紋)기와로 수기와이며, 속초성에서 발견된 기와는 어골문(魚骨文)과 무문(無紋)으로 암기와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천경3년(天慶三年)은 1113년(고려 예종 8년)에 해당되는데, 이는 참고연도(参考年度)일 뿐 절대적인 속초성의 축성(築城)년도나 중수(重修)년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천경3년의 명문기와가 발견된 지점이 유

23) 『순흥 비봉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98

24) 「청원 쌍청리 다중환호의 축조세력 검토」, 도문선, 『한국고대사연구 제50권』, 2008

25) 『삼국사기』권제44(居道傳): 居道爲邊官: 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삼국사기』권제44(異斯夫傳): 爲沿邊官: 연해 국경 지역의 지방관이 되었는데....

26) 삼국사기에 의하면 임진년(壬辰年: 752) 신라 경덕왕 10년, 가을 8월 동궁아관(東宮衙官)에 상대사(上大舍) 1인, 차대사(次大舍) 1인을 두었고, 어룡성(御龍省)에 대사(大舍) 2인, 치성(稚省) 6인을 두었으며, 세택(洗宅)에 대사(大舍) 4인, 종사지(從舍知) 2인을 두었고... 승방전(僧房典)에 대사(大舍) 2인, 종사지(從舍知) 2인을 두었고, 포전(포典)에 대사(大舍) 2인을... 두었으며, 월지악전(月池嶽典)에 대사(大舍) 2인을... 두었고, 용왕전(龍王典)에 대사(大舍) 2인을 두었다.

27) 이 귀평은 범흥사내 현존하는 「징효대사 보인탕비문」에 보이는 단월(檀越)명단에 제전의 일길찬 귀평(貴平)이다.

28) 『춘천 봉의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29) 『강원감영 발굴조사보고서』, 188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1

30) 진전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 된 사찰로, 도의선사가 오랫동안 주석한 곳이며 일연선사도 이곳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1467년까지 사찰이 존속하였으나 어느 시기엔가 폐사되어 일제강점기까지 둔전사로 불리워오다 발굴조사 등을 통해 진전사로 확인되어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宗祖)인 도의선사와 연계한 사상성이 부각되는 절터로 인정받게 되었다. – 「양양 군 문화원」 홈페이지

31) 이밖에 명문와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호가 있는 것들이다. 「천경3년(天慶三年)」, 「대덕(大德)」연간, 「성화3년(成化三年)」으로 천경기간은 1113년~1145년, 대덕연간은 1297년~1306년, 성화3년은 1467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3가지 명문와만 볼 때에 천경 연간에 사찰이 중창되었고 이후 150년이 지난 대덕연간에 이르러 또 한번 중창이 있었으며 또 160여년이 지난 성화3년에 다시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전사지발굴결과보고』, 단국대학교 박물관, 1989

적충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전문가에 의한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천경3년(天慶三年)’의 명문기와 발견지점이 석렬을 쌓고 흙을 판축한 곳에서 나왔거나 성벽 안쪽 각 종 건물지에서 나왔다면 그 축성시기가 1113년(고려 예종 8년)과 비슷할 수 있고, 판축을 하고 나서 경사면을 만든 곳에서 나왔다면 1113년 또는 그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천경3년(天慶三年)’의 명문기와가 성벽 안쪽 건물지와 판축후의 경사면으로 추측되는 지점에서 중복 발견된 것으로 보아 명문의 연호와 동(同)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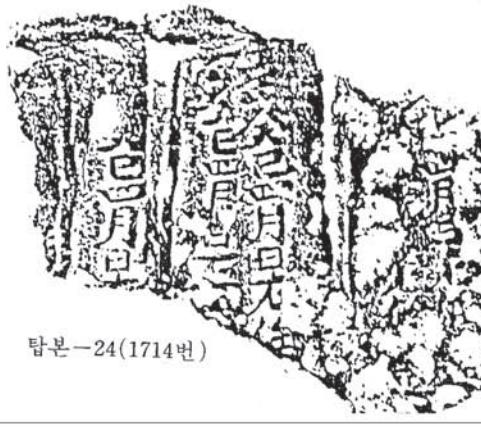
속초성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명문(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명문내용	문 양	색조	포목흔	암/수	비고
1	천경3년(天慶三年)	어골문	붉은색, 회색	유	암	진전사
2	천경3년계사(天慶三年癸巳)	무문	붉은색	유	암	진전사
3	변관(邊官)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4	관사(官舍)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5	관사오야(官舍吾也)	무문	회색	유		
6	변관사(邊官舍)	무문	붉은색, 회색	유	암	
7	우구조(尤口造)	무문	회색	유	수	
8	우구조관사(右口造官舍)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9	양개구(良珍口)	무문	회색	유	암	진전사
10	계사사월일(癸巳四月日)	어골문	붉은색(진흙)	유	암	진전사
11	월구우(月口尤)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진전사
12	차백(且白)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진전사
13	구가변관(口或邊官)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14	일지전(王?) 구부 (一之田(王?) 구부)	선문	회색	유	암	
15	난장(蘭長)으로 추정	복합	회색	유	암	
16	관(官)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진전사
17	사오목(四奧目)	무문	회색			
18	월일관사우구(月日官舍右口)	무문	회색	유	암	

〈표-3. 속초리성지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발견된 명문기와들 중 명문이 중복되는 2번, 8번, 10번, 18번 등을 조합(調合)해 보면 ‘천경3년계사사월일 우구조관사(天慶三年癸巳四月日右口造官舍)로서’ 천경3년(1113년) 계사4월일에 관사를 만들었다(또는 관사에서 만들었다)로 해석 할 수 있다.

□ 양양 진전사지와 유사(명문 · 문양) 기와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양양 진전사지 출토기와
	 답본 - 23(1713번)
	 답본 - 24(1714번)
천경3년(天慶三年) 연호 명문기와. 천경3년(天慶三年)은 1113년 계사년(癸巳年)으로 고려 예종 8년에 해당된다.	
	 사진 - 82. 1729번 (14.0×9.7×2.0cm.)
일지전(왕?)불(一之田(王?)不) 세번째 글자는 왕으로도 보이고 밭전(田)으로도 보인다. 집선문	부상대(不上大)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양양 진전사지 출토기와
	
좌서로(左書)로 '양개(良玆)' 명문기와. 세번째 글자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소우는 모(牟)자'로 추정	좌서로(左書)로 '양개(良玆)'. 무문암기와에 양각
	
관사(官舍)라는 한자어의 최초사용은 7세기경 연남생의 묘지명으로 의봉(儀鳳) 4년(679) 정월 29일 (公이) 병을 얻어 안동부(安東府)의 관사(官舍)에서 돌아가시니.... 勅存撫遼東改置州縣求瘼卽隱襍負如歸劃野疎疆奠川知正以儀鳳四年正月廿九日遘疾薨於安東府之官舍春秋有六	
	
'대(大)' 자명의 인장와 암인의 경우 주로 백제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백제가 망한 이후 8C경 전국적으론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대(大)' 자 암인. 무문암기와의 좌서로 암각



〈사진 – 5. 진전사지와 유사(명문·문양) 기와〉

□ 속초리성지 단독 문양 기와



월일우(月日右), 둘사월일(四月日)	左書—長蘭, 蘭耳, 蘭年 주정. 속초성을 원주민들은 장안(長安)마을이라 불렀음.
복합문	이중원과 어골문의 복합
기와를 갈아 만든 방주차 모양, 전돌	사오목(四奧目)?

〈사진 – 6. 속초리성지 단독 문양 기와〉

IV. 고려시대의 영동지역의 군사정황

1.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주진군(主鎮軍)

“고려는 성종 14년(995년)에 처음으로 전국을 10도(道)로 편성하였으며, 현종 때에 다시 5도양계(五道兩界)로 재편성하였다. 5도는 민정중심체제로, 양계는 군사중심체제라 할 수 있는데, 5도에는 안찰사(按察使), 양계에는 병마사(兵馬使)를 설치하였다.”

“동계(東界)는 1도호부(都護府), 9방어군(防禦郡), 10진(鎮), 25현(縣)을 설치하는데, 속초 지역이 속한 강원도 영동지방의 대부분과 함경남도 정평(定平)이남지역은 병마사(兵馬使)가 지방장관 구실을 하였고,³²⁾ 이 후 양계에서는 충선왕 때부터 존무사(存撫使), 공민왕 말년에는 도순문사(都巡問使), 공양왕 2년(1390)에는 도절제사(都節制使)가 그 구실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강원도의 영동지역에 해당하는 동계는 고려 명종 8년(1178년)에 태백산맥 동쪽은 연해명주도(沿海溟洲道)로 서쪽은 춘주도(春州道)로 개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시 원종4년(1263년)에 명주도가 강릉도(江陵道)로, 춘주도가 교주도(交州道)로 되었는데, 이는 고려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 이후 동계지역 무관들의 군사적 반발을 우려했거나, 외적들의 침입이 느슨해진 이후 군사적 역할이 미미하여 일반도(道)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에 2군 6위가 있었고, 지방의 각 도와 양계에 주현군(州縣軍)과 주진군(州鎮軍)이 있었는데, 지방의 주진군은 국경의 방어를 담당하였으며 지금의 영동지방에 주둔한 주진군의 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대 지명	낭장 (郎將) (人)	별장 別將 (人)	교위 ³³⁾ 校尉 (人)	대정 隊正 (人)	행군 行軍 (人)	초군 抄軍 (人)	좌군 左軍 (隊)	우군 右軍 (隊)	영새 寧塞 (隊)	공장 工匠 (棟)	비 고
금양		2	4	10	250	4	3	3	1		통천
고성		1	4	9	225	1	1	3	2		북고성
간성		1	5	10	250	4	4	2	1		고성
의령		3	3	9	225	4	2	4	1		양양
명주		5	10	23	575	8	8	8	4	1	강릉
삼척		1	8	16	400	4	4	9	1	1	
울진		1	3	8	200	2	2	3	1		
계		14	37	85	2,125	27	24	32	11	2	

〈표-4. 동계 영동지방의 주진군 배치 현황³⁴⁾

32) 『강원도사』역사편, 577쪽, 1995

동계(東界)에서 주진군의 핵심이 되는 상비부대는 초군, 좌군, 우군이 있었고, 그밖에 수성(守成)의 임무를 담당한 영색군이 있었다. 이들 제(諸)부대는 25명의 행군으로 구성되는 ‘대(隊)’가 최하의 기본단위 부대였고, 그 장(長)이 ‘대정’이었다. 대체로 대정 2명에 교위 1명의 비례인 것으로 보아 50명 단위의 부대조직이 예상되며, 그 장이 ‘교위’ 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 별장의 수가 교위의 반인 것을 보면, 100명 단위의 부대조직과 그 장인 ‘별장’을 생각할 수 있다. 양양에는 별장 3인, 교위 3인, 대정 9인, 행군 225인, 초군 4인과 좌군 2대 우군 4대, 영색군 1대가 배치되었다³⁵⁾.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익령군의 별장(別將)의 수(數)와 행군(行軍)의 수를 비교해 볼 때 명주, 삼척, 울진, 간성보다 별장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군현이 별장(1) : 교위(2)의 비례로, 교위(1) : 대정(2)의 비례인 반면 익령은 별장(1) : 교위(1)의 비례로, 교위(1) : 대정(3)의 비례로 별장의 수가 많다.

고려시대 별장(別將)의 임무와 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평상시 각 성(城), 포(浦), 봉수(烽燧) 등의 관리·수비 책임자로 있다가, 전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되거나, 지방호장으로 임명된 낭장(郎將), 중랑장(中郎將)의 지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별장(別將)은 정7품의 관직으로 별장의 상관으로 낭장(郎將)이라는 정6품 관직이 있다.

동계의 경우 낭장(郎將)은 안변도호부, 9방어군 중 7방어군(예주, 명주제외)과 10진중 원홍, 영인, 요덕에만 배치되어 있으며³⁶⁾, 1차 사료는 아니지만 2차 사료로써 강릉김씨 대동보에 의하면 16세손인 김정(金貞)이라는 분의 공적에 의하면 “고려 고종10년(1223년) 사마진사시에 합격, 1253년에 낭장(郎將)으로 봉고병이 양양을 함락하였을 때 이를 수복하고 격퇴한 무흔....³⁷⁾”라는 기록과 “통주(通州)호장(戶長) 김거(金巨)는 거란 침략시 전투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낭장(郎將)으로 승진하였다³⁸⁾”라는 기록으로 보아 “낭장으로 승진하기 이전에 김거는 통주의 호장으로 별장(別將)직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³⁹⁾”라고 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향리의 장교직 겸임규정은 문종대 만들어졌지만 이미 이전부터 향리들이 지방군을 지휘하는 장교직(將校職)을 맡고 있었을 것.”⁴⁰⁾으로 보아 호장(戶長)인 김정(金貞)의 업적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에 왜구의 침입 등의 전란시 지방의 주현군을 지휘할 상위계급의 무장이 개경으로부

33) 고려시대 북계(北界)·동계(東界) 등 양계의 주현군(州縣軍)에 소속된 무관직(武官職). 중앙군 2군 6위의 정9품 위(尉)와 마찬 가지로 고려시대 군대의 최하위 부대인 대(隊) 들로 편성되는 오(伍)를 통솔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대를 통솔하는 대정(隊正: 종9품)이 있었다....동계에는 안변부(安邊府)의 12명을 비롯하여 화주(和州) 등의 6개 주, 서곡현(瑞谷縣) 등의 13개 현, 원흥진(元興鎮) 등의 7진에 189명이 배정되어, 양계에는 총 878명의 교위가 있었다. – 네이버 백과사전

34) 「고려 양계의 주진군」, 251쪽, 이기백,『고려병제사연구』, 1968

35) 『양양군지』상, 147쪽, 양양군, 2010

36) 「앞의 논문」, 252~253쪽, 이기백,『고려 병제사 연구』, 1968

37) 강릉김씨 대동보 제1권 14쪽, 다만, 실제로 고려사절요 1253년(고종40년) 봉고병이 양양에 침입하여 함락시켰고, 그 결과 1254년에 감무로 강등되었다는데, 족보의 성격상 씨족의 업적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보이지만, 낭장(郎將)으로서 역할은 참고할 만 하다.

38) 『고려사절요』권4, 덕종 원년(1031년) 2일

39) 『고려전기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 28쪽, 권영국,『사학연구 제 64호』, 2001

40) 『앞의 논문』, 권영국『사학연구 제 64호』, 2001

41) 〈고려사절요〉-현종 19년(1029) : 3월에 동여진의 적선 10척이 명주(溟州)에 침입하니 병마판관(兵馬判官) 김후(金厚)가 쳐서 물리쳤다. 三月東女眞賊船十艘 寇溟州 兵馬判官金厚 擊却之

〈고려사절요〉-신종 2년(1199) 2월에 도적이 명주(溟州)에서 일어나 삼척·울진 두 현을 함락시키고, 도적이 또 동경(東京; 경북 경주)에서 일어나 명주(溟州)의 적과 합하여 주·군을 침략하였다. 낭장 오응부(吳應夫)와 차함(借銜) 합문지후 송공작(宋公綽)을 명주도(溟州道)에 보내고, 장작소감(將作少監) 조통(趙通)과 낭장 한기(韓祁)를 동경에 보내어 이들을 무마하게 하였다. 盗起溟州 陷三陟蔚珍二縣 盜又起東京 與溟州賊合 侵掠州郡 遣郎將吳應夫 借閣門祗候宋公綽于溟州道 將作少監趙通 郎將韓祇于東京 招撫之

터 파견되었거나⁴¹ 각 도의 치소성(治所城)에서 파견되어 진 것으로 보여 진다.⁴²

상기 도표⁴³의 별장(別將)의 수와 향리들이 장교직을 겸임한 것으로 봤을 때, 명주이외에 익령에 별장이 3인을 배치했다는 것은 별장이 지휘할 성이 3개 이상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익령(翼寧)내의 3개의 성은 양양군 경내(境內)의 축성시기를 볼 때, 나말여초의 양양 임천리의 석성산성(石城山城),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현남면 후포매리 산성(後浦梅里 山城)⁴⁴과 지금 논하고자하는 1113년에 축조 또는 중수된 속초성(東草城)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2. 영동지역의 성곽(城郭)의 특성

“성(城)은 쌓는 위치에 따라 도성(都城), 산성(山城), 읍성(邑城), 진보(鎮堡)로 나눈다. 이 가운데 산성과 진보는 전투(戰鬪)를 목적으로 쌓은 성(城)이고, 도성과 읍성은 행정(行政)과 생활(生活)을 위해 쌓은 성(城)이며,⁴⁵ 이외에 창성(創成), 역성(驛城), 행성(行城), 차단성(遮斷城) 등이 있다”⁴⁶고 한다.

“신라통일기에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치소로 써의 성격이 부각되었으며, 이는 고려 전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삼국시대 이후로 사용한 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북계(北界)지역처럼 새롭게 편입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신축하기도 하였다”⁴⁷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개국초기부터 북진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거란과의 대립으로 변경지역에 대한 축성이 이루어져왔으며, 동여진의 침입을 받기 시작하면서 동계지역에 대한 축성도 이루어지는데, 유사시에는 백성들의 거점성(據點城)이나 해안인근의 성(城)에 입보시킴과 동시에 방어하였고, 이후에는 이러한 해방체계(海防體系)가 고려말까지 이어져 왜寇(倭寇)의 극심한 침입시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⁴⁸

고려시기 양계(兩界)지역 축성사례는 대략 177개⁴⁹이며, 태조~경종 대까지의 축성사례가 약 60건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또한 몽고침략이전의 축성은 읍사(邑舍)를 의미하는 치소(治所)가 있는 성(城)의 축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치소성의 축성은 자연스레 북방지역의 주진편제(州鎮編制)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성종(成宗)이전에 이미 축성을 통한 양계(兩界)의 지역편제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⁵⁰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성곽은 영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의 특징과 관방체계, 교통로 등을

42) <고려사절요>—문종 4년(1050) : 9월에 동북면 병마사가 아뢰기를, “해적이 열산현에 침입하자 병마녹사 문양 열(文揚烈)을 보내 전함 23척을 거느리고 초자도(椒子島; 함남 洪城郡)까지 추격해 가 대패시켜서.....

東北面兵馬使奏 賊 寇掠烈山縣 遣兵馬錄事文揚烈 以戰艦 二十三艘 追至椒子島 奮擊大敗之

43) 다만, 본 자료의 배치현황이 고려 어느 시기부터 실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방의 호족들의 지휘를 받던 광군(光軍)이 중앙군의 조직에 흡수된 성종 14년 이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44) “이 산성은 익령현의 속현인 동산현의 치소성 또는 배후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양양 후포매리 신라산 성의 고찰」, 흥영호, 2009

45) 『한국의 읍성』 15쪽, 빛깔 있는 책들, 2005

46)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축성연구』, 유재춘,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47) 『앞의 논문』 258쪽, 박동호,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8) 『영동지방 고려 성곽 연구』, 김정현,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49) 『고려시대 치소성 연구』, 최종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50) 『고려시기 양계 통치체제 연구』, 45쪽, 이정기,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1) ‘해안성은 성광의 둘레가 600m미만인 소규모의 퇴뫼식 석성이 대부분이며, 이 성곽들은 동해안에 인접하고 사방관측에 유리한 타원형으로 축조되었으며, 거점성은 평지성, 평산성으로 고려사회가 인정되면서 행정적 기능을 추가시킨 성곽이다. 거점

검토해 볼 때 크게 해안성(海岸城), 거점성(據點城), 입보용산성(立保用山城)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¹⁾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3~4단계의 관방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관방체계는 성곽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유물들로 보아 고려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관방체계는 11세기 북동쪽 동여진부터 14세기 남동쪽 웨구의 동해안 침입에 대한 방어체계로 생각되며, 또한 몽고병란기에도 입보용산성이 거점으로 관방체계를 유지하게 된다.⁵²⁾

또한,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입지에 따라 산성-평지성-평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산성(平山城)은 동여진·웨구의 동해안으로의 약탈·침입이 계속되어 협소한 영동지방의 평지와 해안으로부터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방어기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훈련하는 진(鎮)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해안성들이 위치한 곳과 읍성들 사이 평지 곳곳에 진성(鎮城)을 축조하였고, 평지성(平地城)은 주요 지방도시에 축조된 읍성으로 농지관리 등 지방업무를 지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⁵³⁾

한편, 동해안지역의 방어를 위해 병선(兵船)을 배치하거나 해안지역에 축성을 배치하면서 여진과 웨구의 침입을 대비하였는데,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 존재하는 89개⁵⁴⁾의 성터중 동해안지역에는 총 45개의 성곽이 존재하는데, 이 중 고려시대 여진과 웨구의 대비를 위해 산성을 새로 쌓거나 보수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19개 성으로 나타났다.⁵⁵⁾

다만, 강원도 89개의 성이나, 동해안의 45개 성곽이나, 19개의 성에도 속초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래 표의 성들 중 양양의 광정진성, 강릉 제왕산성, 칠봉산성, 석교리토성 등은 『조사자료』에만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성에 대한 발굴조사 등이 실시된 점을 보면, 속초성의 현 상황과 비교된다고 볼 수 있겠다.

시·군	명칭	시대	기능상	입지상	비고
속초	속초리성지	고려	해안성	평산성	천경3년(1113년)
	권금성	고려중기	입보용산성	산성	
양양	석성산성	나말여초	입보용산성	산성	
	대포영성	조선시대	거점성	평산성	고려중기 보수
	광정진성	고려추정	거점성	평산성	산성
	오봉산 고성	미상	해안성	산성	일명. 낙산산성
	후포매리 산성	신라통일기 추정	해안성	산성	
	양양읍성	고려	거점성	평산성	
고성 (구.간성)	고성산성	미상	해안성	산성	
	고성산 석성	미상	해안성	산성	일명. 금수리산성
	간성읍성	고려	거점성	평산성	
동해	두타산성	미상		산성	
	고현성	미상		산성	산성. 일명 장안성
	용정고성	미상		산성	

성은 처음에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나, 점차 외부세력의 침입으로 행정기능뿐 만 아니라 군사적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석성으로 변모한다.' – 「영동지방 고려 성곽 연구」김진형,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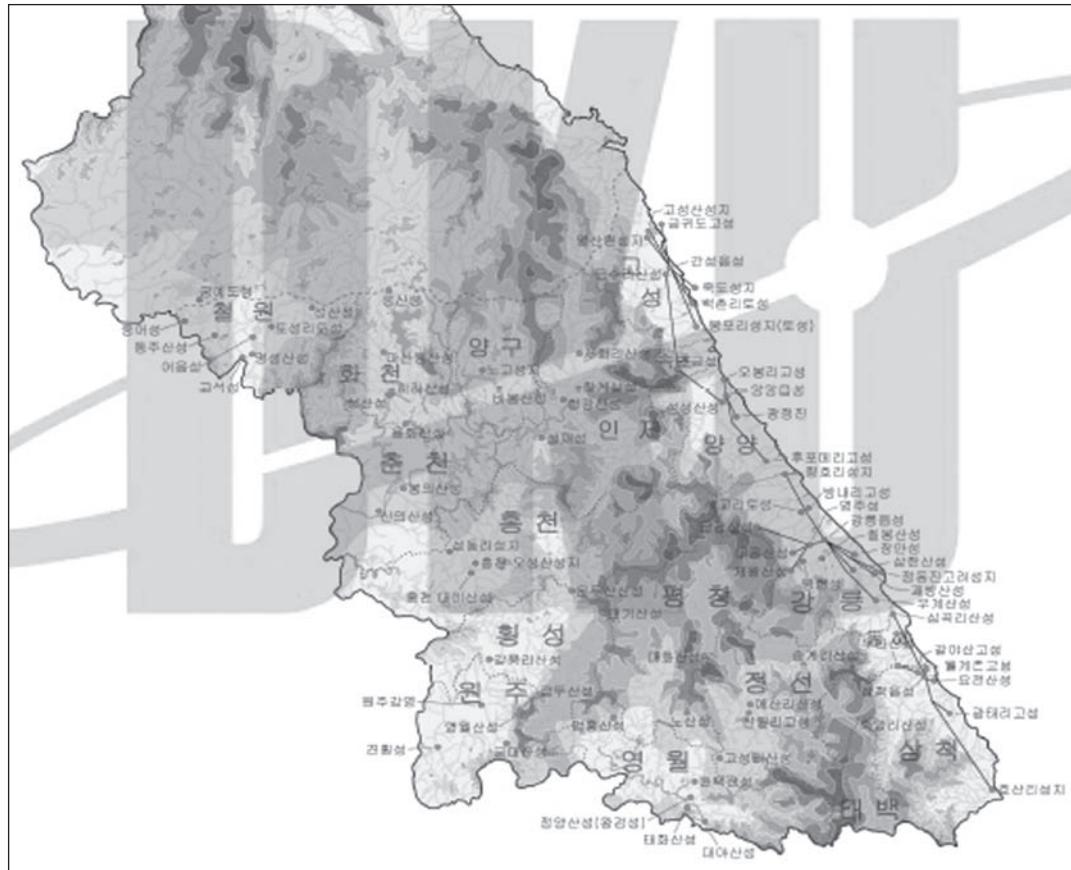
52) 「앞의 논문」, 김진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3) 「앞의 논문」47~48쪽, 김진형, 2009

54) 「조선전기 강원지역의 성곽유적 탐구」, 유재준,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55) 『강원도사 4』, 328쪽, 강원도사면찬위원회, 2012

시·군	명칭	시대	기능상	입지상	비고
삼척	갈야산성	삼국시대	입보용산성	산성	
	죽령현성	傳.삼국시대		산성	호산리성지
강릉 (구. 명주 포함)	우계산성	신라추정	거점성	산성	
	삼한성	미상	거점성	산성	
	고려성	미상	해안성	산성	둘레 약 600m
	칠봉산성	미상	입보용산성	산성	둘레 약 1km
	명주성	삼국시대	입보용산성	산성	
	제왕산성	미상	입보용산성	산성	
	금강산성	미상	입보용산성	산성	일명. 아차산성
	석교리토성	미상	거점성	평지성	

〈표- 5. 강원도 동해안지역 고려시대 여진·왜구·몽골 대비 성터〉⁵⁶⁾〈사진 - 7. 영동지방의 관방체계〉⁵⁷⁾

56) 「강원도사 4」,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2) 328~329쪽과 「영동지방 고려 성곽연구」, 김진형, 2009)의 표를 재구성함.
 57) 「앞의 논문」, 김진형, 2009

V. 속초리성지 축성(築城) 성격 분석

『고려사절요』 목종 10년(1007년) 10월에 흥화진(興化鎮; 평북 의주군) · 익령⁵⁸⁾(翼嶺; 강원 양양군) · 울진현(蔚珍縣;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는⁵⁹⁾라는 기록을 볼 때 현재의 양양읍성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익령관할 지역 내에 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사 병지⁶⁰⁾에는 ‘익령현에 성을 쌓았는데 348간(間)이고, 문이 넷 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속초성이 주위 약 300간(間)’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거의 비슷한 규모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창섭은 익령현의 한 성을 목종8년(1005년)에 동여진이 등주(登州)에 처음 침입한 이후 동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성[진명성(1005), 금양현(1005), 용진현(1006), 흥화진(1007), 울진(1007), 익령(1007), 통주, 등주(1008)]중 하나로 보고 있다.⁶¹⁾

지난 2008년 양양읍 임천리의 석성산성(石城山城)⁶²⁾이 발굴되기 전까지만 해도, 목종 10년(1007년)에 익령현에 축성된 성은 지금의 양주성(襄州城)⁶³⁾으로 간주되어 왔다.

양주성(襄州城)이라는 명칭이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치소성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익령현이 양주가 된 기록은 고려사에 1221년 거란병의 침공을 물리친 공으로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221년 이후에나 양주(襄州)로 불리었을 것이다.

그러나 석성산성에 대한 발굴 후, 신라통일기 익령현의 치소성이 석성산성으로 비정되었으며⁶⁴⁾, 지금의 양양읍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운영된 양양읍성의 성벽구간에 대한 최근의 발굴조사결과, 양양읍성은 고려시대 중기~후기에 토성으로 먼저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려 우왕 11년(1385년) 허주(許周)⁶⁵⁾가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있으면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새로이 읍성을 다시 축조하였다⁶⁶⁾는 기록을 통해, 현재의 양양읍성이 고려시대 후기에 새롭게 축성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된다. 즉 익령현의 이전 치소성인 석성산성은 이미 신라통일기(남북국시대) 후기에 축성 · 운영되고, 양양읍성은 고려 중~후기에 축성된 성으로 목종10년(1007년)에 축성된 익령현의 한 성과는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기적으로 정리해 볼 때 전국에 4도호(都護) · 8목(牧) · 56지주군사(知州郡事)와 28진장(鎮將) · 20현령(縣令)을 두었던 현종 9년(1018년) 2월⁶⁷⁾에 익령현에도 현령을 두고 동산현(洞山縣)을 속현(屬縣)으로 하

58) 이후, 고려말 1385년(우왕 11), 許周가 知襄州事로 있으면서 읍성을 다시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59) '城興化鎮翼嶺蔚珍縣'

60) 『고려사』 권82, 兵志 城堡

61)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제30호』, 이창섭, 2008

62) 「양양 석성산성-양양 상수도시설공사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63) 『양양군지』에서는 이 성을 양양읍성(襄陽邑城)으로 보고 있다.

64) “석성산성(石城山城)이 성벽의 축조수법과 출토유물 등을 미루어보면, 나말여초에 해당하는 기와류, 삼국~신라통일기에 유행한 단각고배 및 인화문 토기류, 그리고 농 · 공구 및 무기류인 철제품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되었으며, 통일신라시기에 축조되어 나말여초에 활발히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고려시대 후기에 폐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기 명주(溟洲)의 속군(屬郡)인 수성군(守城郡)의 영현(嶺縣) 중 하나인 익령현(翼嶺縣)의 치소성일 가능성성이 높으며, 고려시대 양주성(襄州城)으로 판단된다. 고려 후기에 치소지가 지금의 양양읍성으로 옮겨 가지전까지 읍치성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사 고대』편, 588쪽,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65) 1359년(공민왕 8년) ~ 1440년(세종 22년)

66) 『세종실록지리지』 권92 세종22년 12월 周下車即築邑城 備禦有制

67) 『寵諸道安撫使 置四都護』 八牧 五十六知州郡事 二十八鎮將 二十縣令

였으며, 기존의 양주성(석성산성)을 치소로 두었고, 우왕 때 혀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재임하면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주민들을 보호하기 쉬운 거주지역 인근에 읍성(지금의 양양읍성)을 새로 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우왕(1375~1388)시기는 왜구가 침입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으며, 이후 조선시대로 들어와 세종이 연해지역을 읍성위주로 운영하고 산성을 폐지하도록 명하던 시기⁶⁸⁾에 석성산성이 완전히 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단원에서 속초성의 축성 성격분석을 하기 전에 목종10년(1007년)에 익령현에 축성된 성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음에서 논할 속초성의 축성시기와 축성목적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1. 호국불교 차원의 속초리 성지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 위치한 진전사지는 통일신라시대(8세기 경) 창건 된 사찰로, 도의선사가 오랫동안 주석한 곳이며 일연선사가 14세 때 이곳으로 대웅장로(大雄長老)에게서 구족계를 받은 곳으로, 1467년까지 사찰이 존속하였으나 어느 시기엔가 폐사되어 일제강점기까지 둔전사로 불리워 오다 발굴조사 등을 통해 진전사로 확인되어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宗祖)인 도의선사와 연계한 사상성이 부각되는 절터로 인정받게 된 곳이다. 이 진전사지 발굴과정에서 「天慶三年癸巳四月日」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속초성에서도 같은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 한 건물의 제작시기 또는 보수시기를 알 수 있는 연호를 가진 명문기와 및 같은 기와문양이 속초성과 양양 진전사지에서도 출토된 것으로 보아 진전사의 중창시기와 속초성의 축성 또는 보수시기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속초리 성지를 비롯한 동해안의 수많은 성(城)의 축성시기 등을 알 수 있는 문헌적 사료는 희박하다. 다만 속초성에서는 「天慶三年」이라는 연호를 통해 고려 예종8년(서기 1113년)에 본 성지를 축성 또는 보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속초성이 1113년에 축성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양양 진전사지 또한 8세기경 창건되어 「천경(天慶)三年-1113년」, 「대덕(大德)-1297~1306년」, 「성화(成化)三年-1467년」 등 3회에 걸친 중창기록을 보이기 때문이다. 출토 기와류의 등면에 새겨진 문양이 동일한 것은 지역 내 한 생산품을 사용한 결과로 여겨지며 출토 유적의 성격이 사찰인 것을 고려해보면 이 지역 3곳(낙산사, 진전사, 신흥사)의 사찰과 권금성, 본 성지가 하나의 세력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⁶⁹⁾

『고려사절요』에 “예종 7년(1112년) 5월에 3품 이상을 모아 변방(邊防)을 방어할 계책을 물었다”⁷⁰⁾고 하는 기록을 통해 (이후 기록에는 변방을 방어할 계획에 대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변방(邊防)을 방어할 대책을 신하들에게 물음으로써, 불심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배적인 의견을 통해 전·후대 왕들이 실시한 대장경 간행⁷¹⁾과 예종 대에는 양양의 진전사를 중창함과 동시에 속초성을 해안방어성(海岸防禦

68) 〈세종실록〉 권43 세종11년 2월 병술

69) 『속초 권금성 지표조사 보고서』, 100쪽,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권금성의 축조시기가 기존에 전해오던 신라시대보다는 고려중기 몽고군 침입과 관련하여 피난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낙산사 승려 익장의 「낙산사 기」에 기록된 고려 고종 40년(1253) 축조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축조시기를 1253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70) ‘集三品以上 問御邊之策’

城)으로 축성 · 보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예종 4년(1108년) 6월에 ‘보제사(普濟寺)에 거동하여, 북변의 침구를 물리쳐 달라고 빌었다’라는 내용과, 7월에 ‘사신을 동계에 보내어 도량을 진정사(鎮靜寺) 및 비사문사(毗沙門寺)에 베풀고 적을 물리칠 것을 빌었다.’는 기록을 보아 예종 7년(1112년)에도 같은 실정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양 진전사가 3회에 걸쳐 중창된 시기 중 마지막 중창시기인 성화3년(成化三年, 1467년)⁷²⁾이라는 절 대연대를 가진 명문기와의 존재가 불심이 깊은 세조대왕이 1466년과 1467년에 양양 낙산사에 행차하여 현향하고 사찰중건⁷³⁾을 지시한 기록이 세조실록상의 기록과 일치한다.

연 도	내 용	원 문
예종원년 10월 (1106년)	묘통사(妙通寺)에 거동하였다. 이로부터 자주 사원(寺院) 거동하였다.	幸妙通寺 自是屢幸寺院
예종3년 6월 (1108년)	보제사(普濟寺)에 거동하여, 북변의 침구를 물리쳐 달라고 빌었다.	幸普濟寺 祈却北寇
예종3년 7월 (1108년)	사신을 동계에 보내어 도량을 진정사(鎮靜寺) 및 비사문사(毗沙門寺)에 베풀고 적을 물리칠 것을 빌었다	遣使東界 設道場於鎮靜寺及毗沙門寺 以禳邊寇
예종2년 10월 (1107년) 예종4년 2월 (1109년)	백좌회(百座會)를 회경전에 베풀었다. 또 중외에서 중 3만 명에게 밥먹이게 하였다.	設百座會於會慶殿 又令中外 齋僧三萬
예종4년 5월 (1109년)	여진이 변방을 침입하므로 법왕사(法王寺)에 거동하여 분향하고, 근신을 나누어 보내어서 여러 신묘에 기도하게 하였다.	以女眞 寇邊 幸法王寺 行香 分遣近臣 禱於諸神廟
예종6년 11월 (1111년)	유사가 천수사의 창건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다. 약사원에 거동하여 또 절터를 보았다.	有司 請停創天壽寺 幸藥師院 又相寺基
예종7년 2월 (1112년)	간관이 소를 올려 천수사의 창건을 중지할 것을 청하니 이에 따랐다.	諫官上疏 請停創天壽寺 從之
예종8년 2월 (1113년)	왕륜사(王輪寺)에 거동하였다가 형부 남쪽 거리에 이르니 옥에 간한 죄수들이 왕의 행차를 바라보며 한목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근신에게 명하여 옥에 가서 술을 주고 죄가 가벼운 죄수는 석방하였다.	幸王輪寺 還至刑部南街 獄囚 望駕 同聲呼萬歲 命近臣 就獄 賜酒 放輕繫
예종8년 10월 (1113년)	백좌회(百座會)를 회경전에서 베풀고, 중 1만 명은 구정에서, 2만 명은 주 · 부에서 밥먹였다.	設百座會于會慶殿 齋僧一萬于毬庭二萬于州府

〈표 – 6. 고려 예종의 불교적 행보, 『고려사절요』〉

71) 고려 때 2차에 걸쳐 간행한 불경. 고려 시대에는 외적의 침략이 심해지자, 부처의 힘으로 나라의 안전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이는 크게 1차 · 2차 간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차 간행된 대장경은 다시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초조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현종(1010~1031) 때 시작하여 문종(1057~1083) 때까지 완성한 것으로, 대구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몽고 침입 때 소실되었다. 계속해서 의천이 속장경을 간행했으나, 이것 역시 대부분 몽고 침입 때 소실되었다. 2차 간행은 팔만 대장경을 말하는데, 몽고 침입 때 강화도에 천도한 뒤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장경 도감을 설치하여 1251년(고종 38)에 완성을 보았고, 지금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

72) 『진전사지발굴결과보고』, 1989 단국대학교 박물관

73) 세조실록에는 세종이 낙산사 중창을 지시했었는데, 진전사가 중창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진전사가 낙산사와 동일세력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속초시 노학동 수군만호첨사유허지에서 가까운 속초시 노학동 무당골에서 발견된 ‘무당골사지 3층석탑’이 초층 탑신에 사방불(四方佛)이 조식된 고려중기의 석탑양식⁷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속초성과의 개연성이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영동지방의 석탑 중 초층탑신에 사방 정토(淨土)에 살면서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방위불(方位佛)인 사방불이 조각된 예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과 강릉시립박물관 석탑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즉, 속초성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간에 불교의 힘을 통하여 관(官)에서 외적을 물리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여진, 거란, 몽고, 왜구 등의 1차 방어를 위한 속초리성지⁷⁵⁾

여진은 크게 서여진과 동여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여진은 고려와 거란의 양대 세력 사이에 끼어 있다가 고려의 강동6주의 확보로 일단락되었지만, 동여진의 해구(海寇)는 제2차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란의 파상적 공격이 계속되면서 동북변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더욱 빈번히 침략하였는데, 현종 2년(1011년)부터 숙종 2년(1097년)까지 약 80여 년 동안 20여 차례나 여진족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거란(993~1018년, 1217년), 여진(1107~1115년), 몽골(1231~1254년)의 침입을 받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 성곽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라시대와 신라통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곽들이 동여진의 침략이후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동해안에 침입하는 외적들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축성이 목종8년 이후부터 거의 매년 있었다는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임시대처가 아니라 고려중앙에서 외적에 대한 방어 및 동태를 살피기 위한 감소초소 등의 역할을 위해 계획적으로 성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영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성곽은 크게 해안성(海岸城), 거점성(據點城), 입보용산성(立保用山城)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3~4단계의 관방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관방체계는 성곽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유물들로 보아 고려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관방체계는 11세기 북동쪽 동여진부터 14세기 남동쪽 왜구의 동해안 침입에 대한 방어체계로 생각되며, 또한 몽고병란기에도 입보용 산성이 거점으로 관방체계를 유지한다⁷⁶⁾고 한다.

또한,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입지에 따라 산성-평지성-평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산성(平山城)은 동여진·왜구의 동해안으로의 약탈·침입이 계속되어 협소한 영동지방의 평지와 해안으로부터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방어기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훈련하는 진(鎮)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해안성들이 위치한 곳과 읍성을 사이 평지 곳곳에 진성(鎮城)을 축조하였고, 평지성(平地城)은 주요 지방도시에 축조된 읍성으로 농지관리 등 지방업무를 지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⁷⁷⁾

74) 『속초의 역사와 문화유적』, 114쪽,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75) 동여진, 거란, 몽고, 왜적의 침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본 단원이 외적(外敵)방어용 성지였음을 피력하고자 함이므로 기술하지 않는다.

76) 「앞의 논문」김진형,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77) 「앞의 논문」47~48페이지, 김진형, 2009

속초성은 해안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피난성⁷⁸⁾인 입보용산성이라고 하기엔 외적들을 피하기에는 전장지(戰場地)와 너무 가까우며, 외적이 해안으로 침입 시 1차적으로 그들을 막기 위한 전투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속초성 인근의 권금성의 경우도 축조시기가 기존에 전해오던 신라시대보다는 고려중기 봉고군 침입과 관련하여 피난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⁷⁹⁾



〈사진-8. 북쪽해안에서 바라본 속초리성지(출처 : 속초감리교회80년사)〉

한편, 양양 진전사지와 속초성에서 발견된 천경(天慶) 3년 윤사월(四月) 당시에 여진의 오라골실현(烏羅骨實顯) 등이 와서 9성⁸⁰⁾을 돌려 준 것을 사례하고 밀과 금을 바쳤다⁸¹⁾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 여진의 고려 침입은 더 이상 없었으며, 축성기록 또한 예종10년(1115년)에 예주(預州)에 성을 쌓은 기록 단 한건뿐이라는 건 속초성의 축성 또는 보수 시기를 1113년이라고 할 때 과연, 여진 등의 1차 방어를 위한 성(城)이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듦다.

78) 『한국의 중세축성사 연구』, 유재준, 경인문화사, 2003

몽고의 침입을 계기로 구축된 산성은 종전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성과는 달리 대개 피난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①매우 험준하고 비고가 높은 입지를 선택하였으며 ②단애지대가 많은 험준한 지대에서 전성벽선 가운데 한정된 구역에서 축성된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산성구축공역이 매우 적게 들었으며 ③축성방식에 있어서 계획성이 떨어지며, 석축이 허술하며 ④대개 구분이 없어 낮은 평여단을 택하고 있으며 ⑤규모에 있어서 삼국시대의 것들에 비해 훨씬 대형이다 등의 특징이 있다고 했다.

79) 『속초 권금성 지표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80) 1007~1009년까지 윤관이 출정하여 회복한 구지(舊地), 1009년 5월 9성에서 철수, 9성을 축조한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두만 강북칠백리설(豆滿江北七百里說) · 두만강북설(豆滿江北說) · 길주이남설(吉州以南說) · 함흥평야설(咸興平野說) 등이 제기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

81) 閏月 女眞 烏羅骨實顯等 來謝還九城 獻馬及金

연 도	내 용	문 현 내 용
목종 10년 10월 (1007)	흥화진(興化鎮: 평북 의주군) · 익령 ⁸²⁾ (翼嶺: 양양군) · 울진현(蔚珍縣: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	城興化鎮翼嶺蔚珍縣 築城
현종 6년 3월 (1015)	여진이 배 20척을 거느리고 구두포(狗頭浦)에 침입하니 진명도도부서가 이를 쳐서 패퇴시켰다.	女眞以船二十艘累狗頭浦 鎮溟道都部署擊敗之
현종 9년 2월 (1018)	여러 도의 안무사(按撫使)를 폐지하고 4도호(都護使) · 8목(牧) · 56지주군사(知州郡事)와 28진장(鎮將) · 20현령(縣令)을 두었다.	罷諸道安撫使置四都護 八牧五十六知州郡事 二十八鎮將二十縣令
현종 19년 5월 (1029)	3월에 동여진의 적선 10척이 명주(溟州)에 침입하니 병마판관 (兵馬判官) 김후(金厚)가 쳐서 물리쳤다.	三月 東女眞賊船十艘 寇溟州 兵馬判官金厚 撃却之
덕종 2년 3월 (1033)	해적이 간성현(杆城縣) 백석포(白石浦)에 침입하여 50명을 사로잡아 갔다.	海賊 寇杆城縣白石浦 擒獲五十人
문종 즉위년 (1046)	병부랑중 김담(金擔)을 보내어 동해에서 남해에 이르기까지 성과과 농장을 만들어 왜구의 요충을 막았다.	
예종 4년 1월 (1108)	사신을 동계에 보내어 도량을 진정사(鎮靜寺) 및 비사문사(毗沙門寺)에 베풀고 적을 물리칠 것을 빌었다.	遣使東界 設道場於鎮靜寺 及毗沙門寺 以禳邊寇
예종 4년 5월 (1108)	동여진의 4백여명이 동산현(洞山縣)에 침입하였다.	東女眞四百餘人 寇洞山縣
예종 4년 7월 (1108)	삭방도(朔方道)의 등주(登州 함남 안변(安邊)) · 명주(溟州 강원 강릉(江陵) 관내 19현이 모두 번적(蕃賊)의 침략을 당했으므로 특별히 조(租)와 부역을 감면하였다.	秋七月 以朔方道登溟州管內十九縣 紛被蕃賊侵擾 特蠲租賦
예종 7년 5월 (1112)	3품 이상을 모아 변방을 방어할 계책을 물었다.	集三品以上 問御邊之策
예종 8년 4월 (1113)	윤4월에 여진의 오라골실현(烏羅骨實顯) 등이 와서, 9성을 돌려 준 것을 사례하고 말과 금을 바쳤다	閏月 女眞 烏羅骨實顯等 來謝還九城 獻馬及金
고종 4년 봄 정월 (1217)	대장군 오수기(吳壽祺)를 보내어 보졸 수천을 거느리고 동계(東界)를 맞아 지키게 하고, 겸하여 동계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다.	遣大將軍吳壽祺 以步卒數千 防守東界 兼領東界諸軍
고종 4년 5월 (1217)	거란군이 동주(東州: 강원 鐵原)를 함락하였다.	丹兵 陷東州
고종 36년 9월 (1249)	동진 군사가 동주(東州: 강원 철원)의 경계에 들어왔으므로 별초병을 보내어 막는데, 지유(指諭) 박천부(朴天府)가 별초군을 거느리고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등지에서 싸워서 모두 격파하였다.	東眞兵 入東州境 遣別抄兵 禦之 指諭朴天府 率別抄 與戰于高城杆城 皆破之
고종 40년 10월 (1253)	몽고 군사가 양주(襄州)를 함락시켰다.	蒙兵陷襄州
고종 41년 2월 (1254)	양주와 동주를 강등하여 현령이 다스리는 고을로 만들고...	降襄州東州 為縣令

<표- 7. 11~13세기의 영동지역의 군사적 정세>

3. 치소성(治所城)으로서의 속초리성지

앞서 말했듯이 속초성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한나라의 수도를 일컫는 말인 장안마을(長安, 일명 장골)이라 부르는데, 적어도 일시적이었거나, 현재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없는 한 주·군·현의 치소성(治所城)이었거나, 큰 규모의 성(城)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신라통일기 영동지방의 주·군·현의 읍치성(邑治城)들은 주민집단 거주지에 속하는 충적지(充積地)나 평지(平地)보다는 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근접한 산야(山野)에 위치⁸³⁾했던 반면, 고려시대 거점성은 평지성(平地城), 평산성(平山城)으로 고려사회가 안정되면서 행정적 기능을 증가시킨 성곽으로 거점성은 처음에는 토성(土城)으로 축조되었으나, 점차 외부세력의 침입으로 행정적 기능뿐 만 아니라 군사적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석성(石城)으로 변모하게 된다⁸⁴⁾고 했다.

이는 강릉읍성의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강릉지역의 도시변천도 예국시대(漢國時代)의 예국고성(漢國古城), 삼국시대의 왕현성(王峴城)·장안성(長安城), 신라통일기의 명주성(溟洲城)으로 변천되었다’고 하여 주·군·현의 치소성들이 시대상황에 따라 이전하였다고 한다.⁸⁵⁾

고려전기	주진군 둔성(屯城)		13~14세기 中		공민왕대		공민왕~우왕
강릉	명주성	→	평지치소 이전	→	명주성(?)	→	평지치소 이전, 축성
간성	고성산성	→	평지치소 이전	→	고성산성(?)	→	평지치소 이전, 축성
양양	석성산성	→	평지치소 이전	→	석성산성(?)	→	양양읍성
삼척	갈야산성	→	평지치소 이전	→	갈야산성(?)	→	평지치소 이전, 축성

〈표- 8. 고려말 강릉·간성·양양·삼척의 치소 이전과 축성〉

안변도호부의 경우도 봉고의 침입으로 강릉도의 치소를 양주(襄州)로 옮겨 기거하다가 다시 간성(杆城)으로 옮겨 40년 가까이 있었고, 충렬왕 24년(1289년)에야 원래의 성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다.⁸⁶⁾

최종석은 조선시기에는 치소역할을 하고 있는 성(城)을 부를 때 □□군성(郡城), □□현성, □□읍성(邑城) 또는 군·읍·현을 생략하고 □□성(城)으로 불렸다고 했는데, 이전 고려시대에는 치소 역할을 하는 성을 지칭할 때 □□현(縣)·군(郡)·진(鎮)·부(府)성(城), □주(州)성(城) 등이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고려 공양왕 2년에 청주성(淸州城)에 물난리를 겪었을 때 청주성 내 관사(官舍)가 물에 잠겼다⁸⁷⁾는 기록을 통해 관사(官舍)가 있는 곳은 치소성이 틀림없다고 하면서⁸⁸⁾, 다만 치소(治所)와 치소성(治所城)의 차이를 두어 주 군·현 치소와 달리 속현에도 치소성(長吏의 官府인 邑司)을 두어 주군현과 속현의 치소차이를 달리 구분하였다.⁸⁹⁾

82) 『高麗史』城堡條에 의하면 1007년(목종 10)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말 1385년(우왕 11년), 許周가 知襄州事로 있으면서 읍성을 다시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83)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51쪽,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84) 『영동지방 고려 성곽연구』, 김진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9

85) 『고대 강릉의 읍호와 행정구역의 변천』 33쪽, 『강원대학교 박물관지 제13호』, 2006

86) 『고려사』 권58, 지리3 동계-안변도호부

87) 『고려사』 53, 志7, 五行1, 水

88)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성』, 179~181쪽 내용정리, 최종석, 『역사교육 제95집』, 2005

89) 『암의 논문』, 201~204쪽 내용정리, 최종석, 『역사교육 제95집』, 2005

한편 『조사자료』에 소개된 각종 성지 중 영동지역의 장안성(原名 또는 一名)으로 표기된 곳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강릉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예국(濶國) 시대의 성지로 추정되거나, 명주성의 경우, 신라통일기 때부터 설치 · 운영되어 오던 명주호족(溟州豪族) 김주원(金周元)⁹⁰⁾의 성(城)으로 모두 군장국가나 한 주의 치소성 또는 호족의 거관(居官) 등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위 치	규 모		이 명
		간(間)	미터(m)	
장안성 (長安城)	강릉군 성산면 금산리	300	480	명주성
	강릉군 하구정면 학산리	350	640	예국성지
	강릉군 자가곡면 모전리	300	480	예국성지
	강릉군 망상면 심곡리	400	640	古縣城址

〈표-2 「조선보물고적자료」에 기록된 각종 성지 중 영동지역의 장안성〉

앞서 말했듯이 예종 4년(1108년) 5월 동여진의 4백여 명이 동산현(洞山縣, 양양군의 속현)에 침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여진에게 동북9성⁹¹⁾을 돌려준(1109년) 후, 예종 8년(1113년, 천경3년) 윤사월(四月)에 여진의 오라골실현(烏羅骨實顯) 등이 와서, 9성을 돌려 준 것을 사례하고 말과 금을 바쳤다⁹²⁾는 기록이후부터 거란 침입(1217년) 전까지 이 지역에 이렇다 할 침입이 없다는 점과 속초성에서 발견된 天慶三年(1113년), ‘관사(官舍)’ 등의 명문기와⁹³⁾를 미루어 짐작할 때 일시적이거나 치소성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4. 지방호족의 거관(居館)⁹⁴⁾으로서의 속초성지

동국여지승람 간성군 단유(壇儒)편을 보면, 『설악은 신라사전(新羅祀典)에 우성군(迂城郡=간성군의 옛 이름)에 속한 명산으로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고 한다. 소사(小祀)는 신라가 각 지역을 정복한 후 그 지역의 부족들이 이미 제사를 지내왔던 산천신들을 신라의 신으로 흡수한 제사라고 한다.

신라의 큰 제사, 즉 대사로 내력(습비부), 골화(영천), 혈례(울산)이고 중사로 오악⁹⁵⁾(토함산외), 4진(홍해

90) 태종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 또는 김문왕의 6대손으로 선덕왕(김양상)이 재위 6년 만에 죽자 대신들의 추대로 왕위계승자로 내정되었으나 금성으로 오기 전 알천 강가의 냇물이 불어서 건너오지 못하자 이는 곧 하늘의 뜻이라 여겨져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원성왕의 즉위후 후황을 두려워한 김주원은 하슬라로 피신했고 2년후에 그곳에서 하서주 도독에 임명되면서 명주군왕(冥州郡王)에 봉해졌다. 하서주는 그의 후손들이 도독을 세습하며 가문의 영지가 되어서 명주국(冥州國)으로 불리었다. – 위키백과

91) 1007~1009년까지 윤관이 출정하여 회복한 구지(舊地), 1009년 5월 9성에서 철수, 9성을 축조한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두만 강북칠백리설(豆滿江北七百里說) · 두만강북설(豆滿江北說) · 길주이남설(吉州以南說) · 함흥평야설(咸興平野說) 등이 제기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

92) 閏月 女眞 烏羅骨實顯等 來謝還九城 獻馬及金

93) 주석 9 참조

94) 흥성 월산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흥성 월산리유적」)과 영동 계산리 유적(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영동 계산리 유적」)에서도 「○官」, 「官○」 명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고, 두 곳 모두 지방호족의 거관일 가능성이 높다하였다.

95) 小祀 霽岳高城郡 雪岳城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외), 4독(서울외)이 있고, 소사는 상악(금강산), 설악(설악산), 우불(울산), 죽지(영주), 악발(울진)등 24곳이다. 이 24곳 소사의 지역에는 각기 고대부족들이 있어서 이들을 신라가 통합하면서 그들 조상신(祖上神)과 산천신(山川神)을 정치적 재편성을 위해 즉 그 지역의 반신라적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들 지역의 산천을 사전(祀典)에 편입시켜 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양양과 간성지역 일대에도 강원도의 실직국(悉直國, 지금의 삼척시)처럼 신라에게 위협을 줄만한 고대부족 또는 국가형태로의 발전 이전단계인 군장국가, 성읍국가 정도의 세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세기 이후 이지역의 지방호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 ①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금동관고리 7점⁹⁶⁾을 유추해 볼 때 이 지역이 4~6세기 고구려 영토이었을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었음을 가늠 해 본다.
- ② “지금의 영동지역의 고성군, 간성군,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등이 모두 고호(古號)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읍호(邑號)는 그 지역에 일정하게 세력권이 형성되어 공동 체적 삶이 영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권은 적어도 삼국의 태동기 이전 시기로부터 파악되고 있다.”⁹⁷⁾
- ③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연호를 가진 명문기와「天慶三年癸巳四月日」가 속초성과 양양 진전사(陣田寺)에서도 출토되었다는 점과 속초성, 진전사, 설악산 권금성의 출토 기와류의 등면에 새겨진 문양이 동일한 것은 지역 내 한 생산품을 사용한 결과로 여겨지며, 출토 유적의 성격이 사찰인 것을 고려해 보면 3곳의 사찰과 하나의 세력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⁹⁸⁾
- ④ 『고려사절요』충렬왕 9년(1283) 4월 기사⁹⁹⁾에 실린 ‘동계 간성(杆城) 사람 송번(宋蕃)의 존재로 비록 간성군 사람이지만, 양양군과 간성군 사이에 위치한 속초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권세있는 지방호족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⑤ 1985년 속초시 교동 산199번지 교동택지개발구역의 한 고분군¹⁰⁰⁾에서 출토된 청자상감 우점문완(青瓷象嵌雨點文盤)과 청동 숫가락은 고려시대(14세기말로 추정) 후기의 유물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로 고려시대 이 지역에 상당한 지위가 있던 세력이 존재 했음을 암시해 준다.
- ⑥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속초인근 간성군(杆城郡)의 토성(土姓)이 ‘송(宋)¹⁰¹⁾과 ‘이(李)’, 양양군(襄陽郡)의 토성(土姓)이 김(金), 이(李)¹⁰²⁾이 있다.

月兄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 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 熊只縣 岳髮一云髮岳 于珍也郡 于火生西良郡

96) 『강원도사』 고대편, 518쪽,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년

97) 『신라의 북방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이규대, 『역사교육 제111집』, 2009

98) 『강원도사』 고대편, 588페이지,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99) 東界杆城人宋蕃 告於元曰 高麗東西界 歸於朝廷 其田 尚爲國人所有 計其畝 可得四萬碩 諸充東征軍糧 中書省 遣人徵之 王問宰樞曰 朝廷 益發軍糧四萬碩 奈何 前者 對曰 庾頭 諸賦二十萬碩 家抽戶斂 至於畿獨 僅得四分之一 若增四萬 何以辦之 宜更遣人奏請 同계 간성(杆城) 사람 송번(宋蕃)이 원 나라에 고하기를, “고려의 동계(東界)와 서계(西界)지방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그 전지는 아직도 고려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 면적을 계산하면 4만 석은 얻을 수 있으니, 동정군의 군량에 충당하소서.” 하니, 종서성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를 요구하였다. 왕이 재신과 주신들에게 물기를, “조정에서 이蕃之言(이번지언) 번의 말을 듣고 군량 4만 석을 더 내라고 하니 어찌할꼬.”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유주가 20만 석 부과할 것을 청했는데, 집집마다 추렴하고 의지할 데 없는 궁한 사람까지 모두 짊어 모아 겨우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만일 4만 석을 더하기로 한다면 어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어 주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100) 당시에는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에 적용받는 문화재보호법이 활성화되지 않아 발견신고만 되고, 정식적인 발굴조사는 실시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101) 주)100번 참조.

몽골의 침입이후 또는 조선시대 세종의 산성정비 이후에 속초성이 성(城)으로서의 생명을 다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 속초리 성지의 남쪽언덕에는 묘(墓)가 하나 생겼는데, 묘의 주인은 강릉 최씨 충무공(忠武公, 일명 必達派) 비인공파(庇仁公派)의 최후태(崔厚泰- 강릉최씨 25대손)라는 분으로 족보를 해아려 볼 때 대략 1688년경에 태어나셔서 1750년경에 돌아가신 분이다. 강릉 최씨^{103]}는 강릉김씨, 강릉 함씨 등과 더불어 영동지역의 세족(勢族)인데, 강릉 최씨의 시조 최필달(崔必達)은 고려 초기 왕건(王建)을 도와 삼한통합(三韓統合)에 공을 세워 삼중대광 삼한벽상 개국찬화공신(三重大匡三韓壁上開國贊化功臣)이 되었으며, 영첨의 좌정승(領僉議左政丞)의 벼슬과 경흥부원군(慶興府院君· 경흥은 강릉의 별칭)에 책봉되어 강릉(江陵)이 본관(本貫)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강릉· 양양· 고성 지방에 세거하면서 좌수· 별감· 호장의 역할을 하였다.

고려의 건국초기인 성종2년(983년) 이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중앙에서 파견된 상주(常住) 지방관은 없었다. 지방은 각지에 저마다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城主) 혹은 장군(將軍)이라 칭하는 호족들의 손에 맡겨져 있던 실정이었다.

추정해 보건데 이 곳이 성(城)의 용도였다면 국가의 소유로 관리· 운영되었을 것인데, 고려 초부터 중앙에 편입된 호족의 군사(軍士), 성(城)들이 성(城)의 용도가 폐해진 이후 또는 고려 중기이후 권문세족의 세력 하에 사족의 소유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확실한 것은 묘가 생긴 시점인 1750년경을 이후로 성의 용도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속초포(東草浦)의 배후성지로서의 속초리성지

후삼국 통일전쟁 기간 중에 고려는 후백제의 수군을 견제하여 강한 수군을 유지하여 왔으나, 후삼국 통일 후 서남해의 제해권을 다투던 후백제 수군의 위협이 사라지자 고려는 수군을 축소· 재편성하여 그 활약상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가 11세기 초반에 되면서 동여진 해적과 충돌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면서 고려 수군의 움직임이 보인다.¹⁰⁴⁾

고려는 목종 8년(1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적의 침략에 대응하였다. 고려는 우선 동해안의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하여 방어를 꾀하였고, 해적을 해상에서 물리치기 위해 수군배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¹⁰⁵⁾ 동여진해적의 공세에 시달렸던 동해안지역의 전략적요지에 성을 쌓음으로써 이를 해적에 대한 방어거점으로 삼고, 이와 함께 동해안에서 해적을 물리칠 수군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도부서(都剖署)를 설치하였다. 동

102) 성종 31권, 4년(1473년) 6월 26일(음유) 3번째 기사에서는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이시애(李施愛)를 토벌(討伐)할 때 종정(從征)한 향리(鄉吏)로서 1등은 ... , 간성(杆城)의 최연수(崔延壽)· 윤경신(尹耕莘), 2등은 강릉(江陵)의 함유문(咸有文), 양양(襄陽)의 이을산(李乙山)..”라고 기록되어 있다.

103) 강릉 최씨(江陵崔氏)는 본관을 같이 하면서도 시조(始祖)를 달리하는 세 계통(系統)이 있다. 첫째는 고려 왕건(王建)의 창업을 도와 삼중대광 삼한벽상 개국찬화공신(三重大匡三韓壁上開國贊化功臣)에 책록되어 영첨의 좌정승(領僉議左政丞)을 역임한 후 경흥부원군(慶興府院君)에 봉해졌던 충무공(忠武公) 최필달(崔必達)의 경주계(慶州系), 둘째는 고려 태조(太祖)의 부마(駙馬)로 대경(大卿)에 올랐던 최흔봉(崔欣奉)의 전주계(全州系), 또 다른 한 계통은 고려 충숙왕(忠肅王)의 부마(駙馬)로 삼중대광(三重大匡) 판군기사사(判軍器寺事)에 올랐던 충재(忠齋) 최문헌(崔文漢)을 시조(始祖)로 하는 강화계(江華系)다. – 강릉최씨 홈페이지

104) 「앞의 논문」, 80쪽, 이창섭, 『한국사학보 제 30호』, 2008

105) 「앞의 논문」, 80쪽, 이창섭, 『한국사학보 제 30호』, 2008

제의 경우 진명(鎮溟, 지금의 원산)에 진명도부서(鎮溟都剖署)가 설치되었는데, 진명현을 성을 쌓은 목종8년(1005) 이후 늦어도 진명구(鎮溟口)에 대규모 함대가 배치되는 현종 즉위년(1009) 이전에는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¹⁰⁶⁾

『고려사』 병지에는 고성현, 간성현, 의령현, 명주, 삼척현, 울진현에 배치된 주진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진군은 대체로 성(城)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전투단위부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¹⁰⁷⁾

만약 속초성이 동여진·왜구 등 외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된 성이라면 산등성이나 성 맨 윗부분이 석성으로 축조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다만 그 옛날 석성이었을지도 모르나, 지금의 존재형태로나 『조사자료』의 기록상으로도 토성(土城), 토성혼축(土城混築)으로 성을 쌓았으며, 피난성처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점, 구릉이 높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군사공급과 훈련을 담당하던 성곽이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그 예로는 강릉 영진리 토성, 양양 대포영성 등이 있다.¹⁰⁸⁾

조선시대에도 산성(山城)과 읍성(邑城)을 제외하고도 수군영(水軍營)의 주변에 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1512년 석성을 쌓은 울진포영, 1520년에 석성을 쌓은 삼척포진(三陟浦鎮), 양양 대포영(大浦營) 등이 그 예(例)이다.¹⁰⁹⁾

한편 조선후기 편찬된 대동지지에는 각종 문헌 중에서 유일하게 속초 청초호(靑草湖)에 고려 때 설치한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¹¹⁰⁾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태조때 설치한 동해안의 수군(水軍) 6포(六浦) 가운데 속초포(束草浦)¹¹¹⁾가 기록되어 있다.

속초포(束草浦)의 수군만호(水軍萬戶)와 관련된 역사유적으로는 노학동 척산(청초호 서쪽 3km) 땀봉언덕에 수군만호의 관사(官舍)로 추정되는 수군만호첨사¹¹²⁾ 유허지(水軍萬戶僉使有虛址)가 있는데, 청초호에 수군기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할 뿐 청초호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아쉬게도 청초호는 지난 '99년 국제관광EXPO' 개최를 위해 청초호 주변이 대대적으로 개발되어 이젠 속초포의 흔적조차 찾을 수는 없으나 좀더 문헌적·지리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속초성이 속초포(束草浦)의 배후성(背後城)일 가능성도 있다.

태조 6년(1398년)에 설치된 동해안의 수군 6포는 다른 관방유적들처럼 최소한 고려 말의 군사제도나 군사시설 등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표-10은 동해안 수군 6포와 6포 이후 문헌에 나타나는 영동지역 각 포(浦)의 위치 또는 인접위치에 고려시대 외적이 선박으로 동해안을 침입한 사실과 인근 성(城)을 염은 것이다.

106) 『고려도부서고』 473~474쪽, 김남규, 1966

107) 「앞의 논문」, 『고려 병제사 연구』, 252~253쪽, 이기백, 1968

108) 「앞의 논문」, 58쪽, 김진현,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109) 『강원도사』 역사편, 748쪽, 강원도 1996

110) 청초호(靑草湖) : 高麗置萬戶營泊兵舡其革罷未改 고려때 만호영을 설치하였으며, 선박을 정박하였다. 현재 폐하였다. 대동지지 양양도호부편

111) “진(鎮)이 20니, 삼척(三陟)과 간성(杆城)이다.(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鎮)들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防軍)이 없어, 일 이 있으면 시위때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觀察使)가 겸한다. 수군만호수 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 60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 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 ...太祖六年 丁丑始置鎮二鎮無留防軍有事則以侍衛牌充之 兵馬都節制使置司 江陵府都觀察使無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在平 海東航一艘軍七十束草浦在襄陽北航三艘軍二百單十...세종실록지리지 권 153 진보조

112) 만호(萬戶)는 종4품이고, 첨사(僉使)는 종3품으로 직급상 동시에 불리어 질 수 없으나, 구전되어오면서 와전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명	연대	주요 내용	문헌
속초포 (束草浦)	1398년 (태종 6년)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
	1416년 (태종 16년)	* 양양이 목조(穆祖)의 외가(外家)라 하여 양양도호부로 승격	
산성포 (山城浦)	1429년 (세종 11년 2월)	연해지역을 읍성위주로 운영하고 산성을 폐지하도록...	세종 권43
	1422년 (세조 4년)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 (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세조 권15
	1462년 (세조 8년 8월)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산성만호(山城萬戶) · 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 · 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	세조 43권

〈표 - 9. 세종 · 세조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113]} 관련 기사〉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정종 8년(1042) 6월에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동로 열산현(烈山縣) 영파수(寧波戍)의 대정(隊正) 간홍(簡弘)이 적과 싸우다가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 화살이 다 떨어지고 힘이 빠져 죽었으니, 직상(職賞)을 추가해 주소서.” 하니, 따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열산현은 간성현의 속현으로 열산현에 선박을 고치는 수(戍)가 위치한 곳으로 간성현의 성(城)¹¹⁴⁾, 봉수(烽燧)¹¹⁵⁾, 역(驛) 등으로 이어지는 관방체계 특성상 열산현 또는 간성현에 수군기지가 주둔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표-10에서 보듯이 간성군(杆城郡)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강원도에 설치한 2개(삼척, 간성)의 진(鎮)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성 있는 군현으로, 고려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경우가 총 3회인데, 문헌기록상으로 간성군에는 이렇다 할 수군기지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며, 양양군 또한 대포영(大浦營)¹¹⁶⁾의 존재가 있긴 하지만 후대의 일로 결국 수군기지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속초포의 고려시대 존재 가능성과 속초성과의 연계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더욱 의아한 것은 다른 지역의 침입사실은 대부분 지명(地名)만을 기록하였는데, 간성군 침입의 경우 간성현의 백석포(白石浦)와 열산현(烈山縣, 간성군의 속현)의 영파수(寧波戍)에 침입하였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지명만을 기록한 경우 그 지역 전체적으로 침입했을 경우와 식량

113) 필자는 속초포(束草浦)와 세종 · 세조실록 상에 나타나는 산성포(山城浦)를 당시 정세 및 위치분석 등을 통해 동일한 지명임을 피력하였고, 태조6년인 1398년 설치되어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종 1462년경에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세종 · 세조실록상 속초 포와 산성포의 위치비정 연구』, 정상철, 『제21회 강원도 학술논문발표집』, 2011

114) 고려 덕종(德宗) 2년에 간성현(杆城縣)에 성을 쌓았다.-『대동지지』 간성군조, 고성산 산성, 금구도성, 백촌리 토성, 간성읍 성, 금수리 산성 등 8개의 성 - 간성문화원

115) 죽도봉수(竹島烽燧), 술산봉수(戌山烽燧), 정양산봉수(正陽山烽燧), 삼포봉수(三浦烽燧)

116)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군조, 양양군지 등 각종 기록에는 수군만호영을 강릉 연곡포에서 다시 안인포로 옮겼다가 성종 21년 (1490년)에 대포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117) 「암의 논문」, 김진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6쪽 표를 참조하여 필자의견 게재(굵은 글씨). 다만 동해안 6포 중 간성군에 위치한 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포(浦)로 기재.

포명(浦名)	위치	규모 (선박/군사)	외적침입 『고려사절요』	내용	관련성곽117	인근 수(戍)	비고
강포구 (江浦口)	在高城南	3척 196명	현종 18년(1028) 현종 19년(1029) 문종 4년(1050)	동여진의 적선 15척이 고성(高城)에 침입하고 동여진이 고성(高城)에 침입하고 동번해적이 일산현 영파수를 침입	고성산성 고성산성 열산현성	영파수(寧波戍) 인접위치	
속초포 (束草浦)	在襄陽北	3척 310명	현종 6년(1015) 덕종 2년(1033) 충렬왕 12년(1286)	여진이 구두포(狗頭浦)침입 간성현 백석포에 침입 왜인 19명이 간성에 와서 머물고 있는 것을	속초리성지		인접위치 인접위치
연곡포 (連谷浦)	在江陵北	3척 191명	현종 19년(1029)	동여진의 적선 10척이 명주에 침입	영진리토성	사화수(沙火戍)	
삼첩포 (三陟浦)	在三陟	4척 245명	정종 2년(1036) 예종 4년(1108)	해적이 삼첩현 침입 동여진의 적선이 삼첩현 동진수(桐津戍)에 침입하여	요전산성 요전산성	임원수(臨遠戍) 동진수(桐津戍)	
월송포 (越松浦)	在平海	1척 70명	현종 19년(1028년) 문종 18년(1050년)	동여진이 침공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감	월성포진		
수산포 (守山浦)	在蔚珍	3척 191명	우왕 8년(1382년)	왜적이 삼척, 울진, 우계현에 침입			
고성포 (高城浦)	在高城		현종 18년(1028) 고종 45년(1258)	동여진의 적선 15척이 고성(高城)에 침입하고 동진국이 고성현 송도(松島) 포위	고성산성		
대포 (大浦)	在襄陽東			세조이후 연곡포→안인포→대포(1490) 이전	후포마리고성		
			현종 20년(1029) 예종 4년(1108)	동여진이 동산현에 침입 동여진이 동산현에 침입	오봉리고성		
			우왕 9년(1383)	왜적이 동산현에 침입			
안인포 (安仁浦)	在江陵南		공민왕 원년(1352) 우왕 7년(1381) 우왕 10년(1384)	세조이후 연곡포→안인포→대포(1490) 이전 왜적이 강릉도에 침입 왜적이 강릉도에 침입 왜적이 강릉도에 침입	고려성 개방산성 강릉읍성	영평수(寧平戍) 해령수(海令戍) 화성수(化成戍) 철옹수(鐵甕戍)	

〈표 - 10 조선초 동해안 6포와 외적의 침입기록 및 관련 관방시설〉

약탈 등의 특정목적을 위해 한 곳만을 침입했을 경우이다.

또한 현존하는 대진(大津), 거진(巨津), 제진(諸津) 등의 지명과 지금도 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을 것이며, 현재의 위치비정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백석포(白石浦)의 경우 아직 전문 사학자들이나 향토연구가들에 의해 그 위치비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실정이다.

간성군 수군기지의 존재가 기록된 역사가 없다고 해서, 간성군에 수군기지가 없었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역사기록 속에 없는 속초성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려사절요에는 ‘현종 6년(1015년) 3월 기해(己亥)에 여진(女眞)이 배 20척으로 구두포(狗頭浦)에 침략하므로 진명도도부서(鎮溟道都部署)가 이를 격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두포(狗頭浦)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비정되지 않았지만, 동해안의 수군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진명도도부서(지금의 원산)에서 출동한 것으로 보아 구두포가 동해안지역의 위치한 포(浦)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구두포(狗頭浦) 한자로 ‘개머리’에 해당되는데, 구두포의 모습이 개 또는 동물의 머리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사진 – 10. 영금정의 모습(1960년대 초)〉 좌 : 서쪽방향에서, 우 : 북동쪽방향에서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와 대동지지(大東地誌) 등의 19세기 이후 제작된 지도에는 속초성 북동쪽의 산을 원산(元山, 현재 속초등대가 위치한 곳)이라 칭하고 있으며, 상공에서 촬영한 속초성 북쪽의 원산(元山, 지금의 영금정¹¹⁸⁾)을 사진을 보면 지형이 개머리를 닮은 듯하다. 이 지역 원로들은 속초의 지형에 대해 ‘누워있는 소(臥牛)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영금정부분이 ‘소머리(牛首)’ 해당한다고 하는데, 한 지역의 생긴 모양을 갖고 지명을 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명(地名)은 우리의 생활터전이 되는 장소의 지형(地形)과 지물(地物) 등을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한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명명(命名)된 특수한 언어기호인데,¹¹⁹⁾ 우리나라 지명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주변에서 그 지역의 지형, 자연환경의 영향, 인문지명 등에서 유래한 지명¹²⁰⁾이라고 볼 수 있다.

118) 灵琴亭, 대동지지 등의 자료에는 영금정을 ‘비선대(飛仙臺)’라 불렀으나, 일제시대의 속초면세일반(束草面勢一般)편찬 이후 ‘영금정’으로 부르더니 현재에 이르렀다.

119)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김연옥, 259쪽,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편』, 1986

120) 「강원도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42쪽, 정장호,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VI. 맷음말

지금까지 속초성의 축조시기, 축성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발견된 명문기와, 시대상황, 주민들의 전하는 이야기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속초성의 축조시기는 다음과 같이 4시기로 유추할 수 있다.

순번	예상시기	주정근거
1	1007년 – (목종 10년)	흥화진(興化鎮: 평북 의주군) · 익령(翼嶺: 강원 양양군) · 울진현(蔚珍縣: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
2	1046년 – (문종 원년)	병부랑중(兵部郎中) 김담(金擔)을 보내어 동해에서 남해에 이르기까지 성곽과 농장을 만들어 왜구의 요충을 막았다.
3	1113년 – (예종 8년)	속초성에서 발굴된 천경3년(天慶三年) 명문기와 기준
4	1113년 이후	권금성 축조시기(몽골침입 대비 피난성)

속초성의 축성목적과 성격은

첫째,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연호를 가진 명문기와 「天慶三年癸巳四月日」가 진전사에서도 출토되었던 것으로 보아 진전사의 중창시기와 속초성의 축성 또는 중창시기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불교적 차원에서 외적을 방어 또는 물리치려는 목적에서 성을 축성 또는 증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관(官)」자 명문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초성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건설된 곳으로 추측된다.

셋째, 각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등을 거쳐 가면서 동해안의 군사적 용도로의 성의 대부분이 왜구와 여진족, 몽골족을 등을 막기 위한 성(城)임을 감안할 때, 본 속초성 또한 왜구와 여진족, 몽골족 등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속초리 성지가 해안선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한 군사적 용도로의 성이었거나, 마을 사람들에 의해 구전되어 내려오는 ‘장안마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동안 속초성이 중심마을을 의미하는 장안(長安)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최소한 삼국~신라통일 기동안의 역사상 위치가 비정되지 않은 한 주·현(州·縣)의 치소성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나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대동지지에는 각종 문헌 중에서 유일하게 청초호에 ‘고려 때 설치한 수군만호기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동해안의 수군 6포(六浦) 가운데 속초포(東草浦)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좀더 문헌적·지리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속초성이 속초포(東草浦)의 배후성일 가능성도 있다하겠다.

이상으로 속초성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속초(東草)’란 이름은 우리나라 문헌기록 중에서 속초포(東草浦)라는 이름으로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에 유일하게 나타날 뿐이다.

역사와 내가 사는 고향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발굴조사 단계조차 없는 속초성에 대해 고고학적으

로나 역사학적으로도 과대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하루속히 전문가들에 의한 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속초성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VII. 참고자료

○ 장안마을 – 「내고향 속초」(김정우, 1984)중에서

이곳 속초에는 옛 땅터 이름이 끝말에 ‘골’ 字가 붙는 지명이 많다. 필자가 아는대로 익힌대로 열거해보면 우룡골, 샘치골, 지나무골, 용수골, 골로골, 불당골, 개안골 이렇게 ‘골’ 字가 붙는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형태가 모두 무상하게 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장골을 장안고을로 불리우던 것은 본인이 고을로 명칭하고자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읍지 또는 명성가의 집터자리나 사적지를 거의 고을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면 우리 고장 장골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역사적으로 명기된 곳은 아니지만 유독 장골만은 여느 ‘골’ 字가 붙은 곳과는 좀 색다른 점이 발견되었고, 확실하게 기록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살았던 고을인 것은 틀림없으며 어떤 명가의 옛날 터전이나 군궁(軍宮)이 아니었다 생각하게 함이다.

필자 나름대로 생각해본다면 이곳은 동서남북 네 속에 문이 뚫려있던 성터였고, 남쪽은 오늘의 '다천마을'이라 불리우는 장골 출입구 형태의 고을입새였음을 상징케 한다. 동명동 뒷산 속초감리교회 세워진 곳이 옛 속초소방대 감시초소가 서 있었고 일제강점기 말년에는 속초경방단 초소(마하리소, 적기, 비행기 또는 시내돌발사태를 감시하던 곳) 소나무가 울창하였던 송림 속에 높이 세워졌었는데(현 감리교회 자리는 높은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든 곳에 건물에 세웠지만 옛날에는 동명동 천주교회 자리와 감리교회 자리가 모두 크나큰 송림 숲이 우거진 높은 지대였다.) 경방단 초소가 세워지기 전에는 해변에서 어로작업을 하던(후릿배) 고기떼 보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감리교회 자리는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였다. 높은 소나무 숲 산 꼭대기에 올라서 면 턱 트인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데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거적폐기를 나무 그늘에 깔고 낮잠 자던 곳! 또한 이곳 아름드리 소나무 가지에다 그네 줄을 메고 그네를 뛰기도 하였지만 이 감리교회로부터 북서쪽으로 동그런 워형 성터가 지금의 속초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세워진 쪽으로 쭉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지금의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건너편으로 바라다 보이는 교회 쪽으로 둥근형태의 성터 모양이 끝을 맺었는데 필자가 어려서 본 것은 현 동명동 감리교회 세워진 곳부터 쭉 늘어선 법원 세워진 산 높은 현 주택 그 자리에서는 수복되기 까지만 해도 기왓장 깨진 것, 그릇 깨진 것 등이 무수히 발견되었고, 이 고장 주민 아낙네들은 명절 제사 때와 집집마다 기 제삿날에는 이곳 장골 성터에서 기와 부서진 보각을 주워다가 가루로 만들어 제사 그릇의 녹을 닦았었다.

그렇던 장골이 망가지고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기차 철길이 장골 중심부를 뚫고 속초역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건설되면서였다. 그 철길자리에는 오늘날 주택이 쭉 늘어섰다. 특히 장골이 고을같이 느껴지는 것은 옛날 쟁족 사람들이 농사 길로 또는 땔감나무를 구하러 다니던 길이 바로 법원과 검찰청 뒤로 통로가 있었고 이 길

은 동쪽 영랑동 시장중심부로 연결되었으며 한쪽 길은 한국전력공사 뒷산을 거쳐 개안논 머리쪽을 지나 보광사로 넘나드는 오솔길로 다다르며 다른 한쪽은 개안논(현재 문화원과 동진리조텔) 앞쪽에서 장터쪽으로 이어졌으며 한 쪽 길은 샘치골 입구를 지나 범바위 쪽으로 통하던 길로서 장골 중심으로 동서남북 갈림길이 형성되었다.

필자는 법원과 검찰청¹²¹⁾을 건립코자 집터를 닦을 때 산등성(옛성터)을 마구 파넘긴 흙더미에서 옛날사람들이 절구질하던 둑근 돌절구를 발견! 그것을 한때 필자가 살던 동명동 366번지 전 일본인 아와야 집 마당 정원에 두었는데 그러한 생활도구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장골이란 어떤 평범한 산골짜기나 주택 골짜도 아니고 고을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덧붙여 이곳 원주민 정태현씨(鄭泰賢, 원주민, 당시 84세, 1998년 작고, 동명동장 역임, 동명동 4통3반 거주)의 말에 따르면 장안고을이었던 것을 더욱 굳게 해준다.

鄭옹의 말씀에 따르면 속초리 2대 구장을 지낸 김해수(金海洙)옹의 생존 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장골이란 말이 틀렸다면서 장안고을에는 사대문(사대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내게 말을 전해주셨으며, 鄭옹이 현재(그당시) 살고 있는 당신의 집터를 닦을 때 그 집터가 옛 성터 자리였었다며, 대나무 숲을 헐어매치고 땅을 파보니 성터자리가 나타났는데, 진흙으로 땅 밑바닥을 다지고, 중간부분은 돌과 흙으로 성을 쌓아 올렸다고 하셨다.

이러한 사실과 또한 기왓장, 깨진 그릇 등등 증거품으로 미루어 추측해 볼 때 장골이란 것이 아니고 장안고을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옛날에 분명히 성문(城門) 안에 주택이 존재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VIII. 참고문헌

《고려사절요》

《세종실록지리지》

《증보문헌비고》

《신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현산읍지(峴山邑誌)》

『조선고적보물조사자료』, 조선총독부, 1942

『옛 기와』, 빛깔 있는 책들, 2005

『한국의 읍성』, 빛깔 있는 책들, 2005

『강원도사』,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강원도지』, 율곡학회, 2005

『양양군지』, 양양문화원, 2010

『고성군지명유래지』, 고성군문화원, 1985

121) 1963년 건립

- 『옛 문현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 『내 고향 속초』, 김정우, 1984
- 『속초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 『속초 권금성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 『진전사지 발굴보고』, 단국대학교 박물관, 1989
- 『양양 진전사지 발굴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7
- 『춘천 봉의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 『강원감영 발굴조사보고서』,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1
- 『한국의 중세축성사 연구』, 유재춘, 경인문화사, 2003
- 『양양 석성산성-양양 상수도시설공사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 『순흥 비봉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98
- 『홍성 월산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 『영동 계산리 유적』,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 『고대 강릉의 읍호와 행정구역의 변천』, 『강원대학교 박물관지 제13호』, 2006
-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축성연구』, 유재춘,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 『신라의 북방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이규대, 2011
- 『나말여초기 강원지방의 평기와 연구』, 박동호,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영동지방 고려 성곽 연구』, 김진형,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양양 후포매리 신라산성의 고찰』, 홍영호, 2009
- 『〈삼국사기〉지리지의 삼척군 영현에 대한 위치비정 모색』, 『관동대학교 박물관지 제4호』, 2005
- 『관(官)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 차순철, 『경주문화연구 제5호』, 2002
- 『한국 평화문양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연구』, 서오선, 충남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원 쌍청리 다중환호의 축조세력 검토』, 도문선, 『한국고대사연구』 제50권, 2008
- 『고려 전기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 권영국 『사학연구 제64호』
- 『고려시대 치소성 연구』, 최종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 『고려시기 양계 통치치제 연구』, 이정기,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고려 전기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 권영국 〈사학연구〉 제64호, 2002,
-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 병제사 연구』, 이기백, 1968
- 『신라의 북방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이규대, 『사학연구 제111호』, 2011
-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김연옥,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편』, 1986
- 『강원도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정상호,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 『세종실록상의 속초포와 산성포의 위치비정연구』, 정상철, 『제21회 강원도향토논문발표집』, 2011

문화 논단

설초 이석범 선생의
애국 · 애향활동 고찰

강
릉
원
주
대
교
수

장정룡

설초 이석범 선생의 애국·애향활동 고찰

1. 머리말

이 글은 속초, 양양지역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도문동 출신 설초 이석범 선생과 이국범 선생의 간찰 3점이 확보된 것을 계기로 작성한 것이다.

이들의 간찰이 작성된 해는 이국범 선생의 간찰을 통해서 확인되는 시기인 임인년(1902년)으로 그 전후로 보아 30대 중반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지금부터 110년 전 당시상황과 이후 두 분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들에게 대한 사료는 희귀한 편이다. 그 이유로는 설초 선생과 관련한 행적들이 일제강점기하에 이뤄진 일들이라는 점에서 사료발굴에 제한적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더 나아가 지역인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선양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속초인물론에서 “설약산이 생기고 그 정기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설초 이석범 선생을 주목한 바 있는데,¹⁾ 이번에 발견된 간찰을 계기로 재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본고는 일제강점기하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활동 업적을 다시 강조함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선각자적으로 지역문화 활동을 전개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²⁾

1) 장정룡,『속초의 항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0쪽 “이 지역은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평생을 학문과 후진교육에 전념한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과 항일독립만세를 주도한 애국지사 설초 이석범(1884~1932) 선생의 정신사적 맥락이 흘러와 자주자준의 민풍을 그대로 유지전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설초 선생은 지난 2006년에 강원문화인물로 선양한 바 있듯이,³⁾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사계의 정확한 평가와 함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발굴하여 지역에서 본받는 인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⁴⁾



설초 선생 사진, 정자관을 쓴 단아한 선비의 모습이며, 고령기로 추정됨

2) 본 간찰을 우리말로 바꿈에 있어서 속초문화원의 협조를 받았다. 노광복 원장님, 김인섭 국장에게 감사드린다.

3) 설초 이석범 선생은 강원도민일보에서 2006년 3월의 강원문화인물로 선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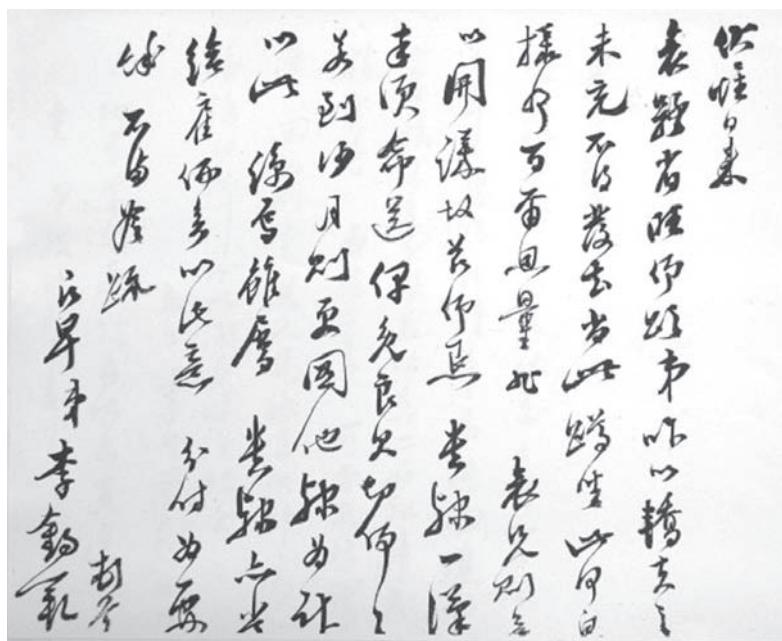
4)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속초문화원 발행의 속초문화지와 설악신문 엄경선 기자의 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글을 집필한 동기는 속초·양양지역 문화계에서 설초 선생연구와 선양사업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본고에는 설초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이나 지역발전 공적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사계의 지속적 연구성과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이석범, 이국범 선생의 간찰자료

1) 이석범(李錫範, 1859~1932) 선생 간찰 내용

[원문] 伏惟日來 哀體省旺仰頤 弟昨以轎夫之未充不得發去 當此蹲坐此何白樣耶 万番思量非 哀兄則無以開議 故茲仰懇 貴駢一謹 奉須命送 伊免良貝切仰切仰 若到何月則更圖他駢爲計 以此 諒焉 雖屬 貴駢亦欲 紿給雇價矣 以此意 分付爲要 餘不備候疏 卽早弟李錫範 頓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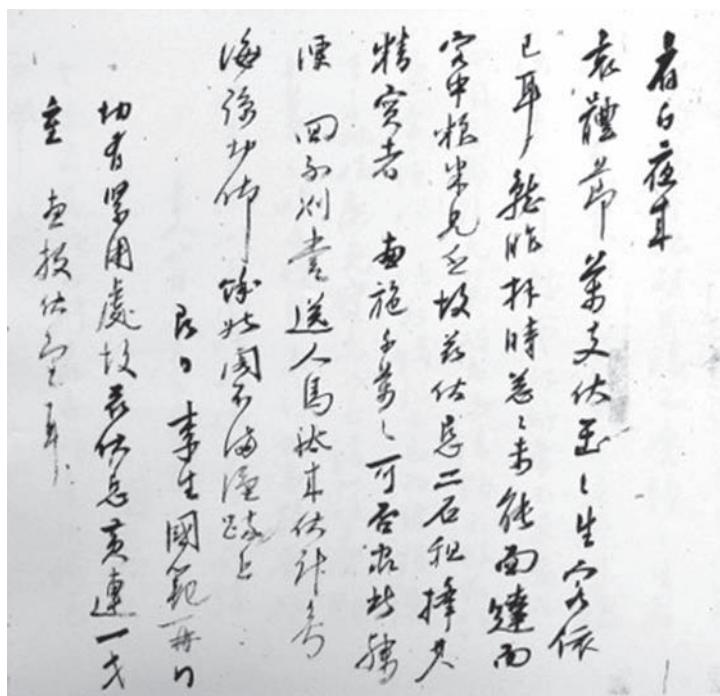
[번역] 삼가 근래 상중에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생은 어제 가마꾼이 없어서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게 되니 이 모양을 어찌 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 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애형이 아니면 회의를 열 수 없으니 이에 귀하께서 한번 말을 보내라는 명을 꼭 받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니, 이로써 낭패를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도착이 어느 달이 되더라도 즉시 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헤아려 주십시오. 모름지기 귀하의 말이기에 또한 빌리는 대가를 지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을 나눠주시길 요청합니다. 나머지 예를 갖추지 못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이른 아침 아우 이석범 머리 숙여 절합니다]



2) 이국범(李國範, 1869~1931) 선생 간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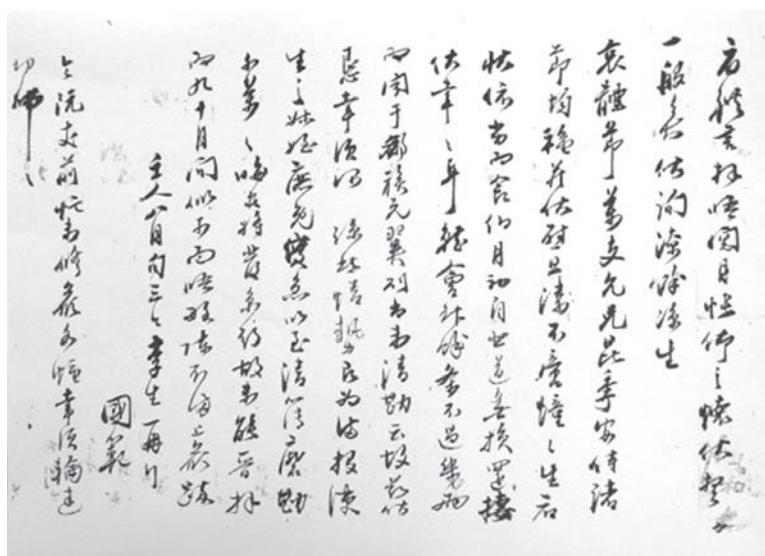
[원문1] 省白夜來 哀體節萬支伏慰伏慰生客依已耳 就昨拜時恙之未能面達而 客中糧米 見乏 故茲伏懇二石租捧只 精實者 惠施千萬千萬 可否問均屬流 回別則遣送人馬馱來 伏計矣 海諒切仰 餘姑闊不備謹疏上 卽日李生國範再拜切有緊用處 故茲伏懇黃連一戈 重 惠投伏望耳

[번역1] 인사는 생략합니다. 밤에 오셨는데 상중에 계시며 시절에 만가지 모두 잘 지내고 계시어 삼가 위로 되고 위로됩니다. 저는 나그네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나아가 인사를 드리고자 했으나 병으로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떠도는 중이라 양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에 삼가 두 섬의 조봉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베풀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무리가 회별할 수 있으니 곧 인마를 보내주셔서 실어올 수 있도록 삼가 계획합니다. 바다와 같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잠시 놓아두고 예를 갖추지 못하고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그날로 이생 국범이 절을 두 번 올립니다. 절실히 긴요하게 쓰일 곳이 있어서 이에 황연 일 과를 간절히 바라니 거듭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원문2] 應快言拜晤關月悵仰之懷 伏拱伏拱 一般矣 伏詢淹餘涼生 哀體節萬支 尤兄
 昆季安侍 諸節均不龜 幷伏慰且諒 不啻憧憧生應 狀依劣而食 仰月初自世道無損還接
 伏幸之耳 就會計餘條不過幾施 而聞于鄒族元翼則當未清勘云 故茲伏 懇幸須得諒均 情
 勢卽爲兩投使 生之妹姪庶免廣急以至清薄磨勘於萬萬 噎間持發京行 故未能晉拜而九十
 月間似可面晤 略陳不備上候疏 壬人八月旬三日李生國範再拜
 今阮丈前忙未修候文 憧幸須輪連 切仰切仰

[번역2] 응당 괘히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리려니 관산이 밝아 그리운 마음에 슬퍼지나 삼가 두 손을 모으기
 는 한가지입니다. 삼가 안부를 여쭙니다. 시간이 흘러 찬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중에 시절마다
 몸을 지탱하시며 윤형의 맏이와 막내가 편안하게 모시어 절기마다 잘 지내고 고르게 지내시니 아울
 러 삼가 위로되고 또 믿음이 갑니다. 그리울 뿐만 아니라 저는 상황에 따라 모자란 대로 먹고 있으
 며, 우리 러 월초에 세상살이에 별 일 없이 돌아와서 볼 수 있기를 삼가 바랄뿐입니다. 회계에 나아
 가서 남은 조항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몇 개에 불과하나 친족 원익에게서 일을 깨끗하게 마감하
 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삼가 간절하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형편이 곧 양쪽으로 던져져서 생의 매질로 하여금 광급하게 장부를 정리 마감하게 이르게 되는 것
 을 면하게 하여 주시기를 만만하게 바랍니다. 그믐 사이에 서울로 출발하기에 인사를 드리지 못합
 니다. 구월과 시월사이에 아마도 얼굴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간략하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하고
 글을 올립니다. 임인 팔월 순삼일 이생 국범이 두 번 절합니다. 지금 완장(남의 사돈)이 앞서 서두르
 기에 안부를 못 드립니다. 꼭 찾아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3) 이석범, 이국범 선생 간찰발견의 의미

속초지역 독립운동가 이석범, 이국범 형제의 간찰 세 장이 발견되어 친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간 두 분에 대한 자료는 별로 전하는 것이 없었다. 이 간찰은 형제가 상중(喪中)에 있는 윤형(允兄)에게 위로서한을 보낸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석범 선생의 친필글씨로 작성된 간찰 1장과 이국범의 간찰 2장 등 총 세 장의 간찰자료는 이국범의 간찰을 통해서 살필 때 임인년(1902년) 8월 13일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부터 무려 110년 전의 일이다. 간찰의 특성상 깊이 있는 내용을 적었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인사말이 들어 있다.

그러나 내용상 이석범 선생이 말을 빌려달라는 표현, 이국범 선생이 벼 두 섬(20말)과 한약재인 황연(黃連) 일과를 보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 따라서 이 서신을 받은 분은 두 분과 친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족 이원익과 관련된 회계, 장부 등의 용어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이 간찰을 받은 분은 설초 선생의 후원자가 아닐까도 추정된다. 이석범 선생이 아우라고 스스로를 말한 것으로 미루어 연배가 위였던 인물로 볼 수 있다.

이석범 선생은 신흥사 재건에 기여하였고, 초대 도천면장으로 대포항의 확장 등에 있어서도 노력한 인물로서 지역발전에 다양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이석범, 이국범 형제는 양양지역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로서 이번 간찰의 발견은 지역인물의 선양차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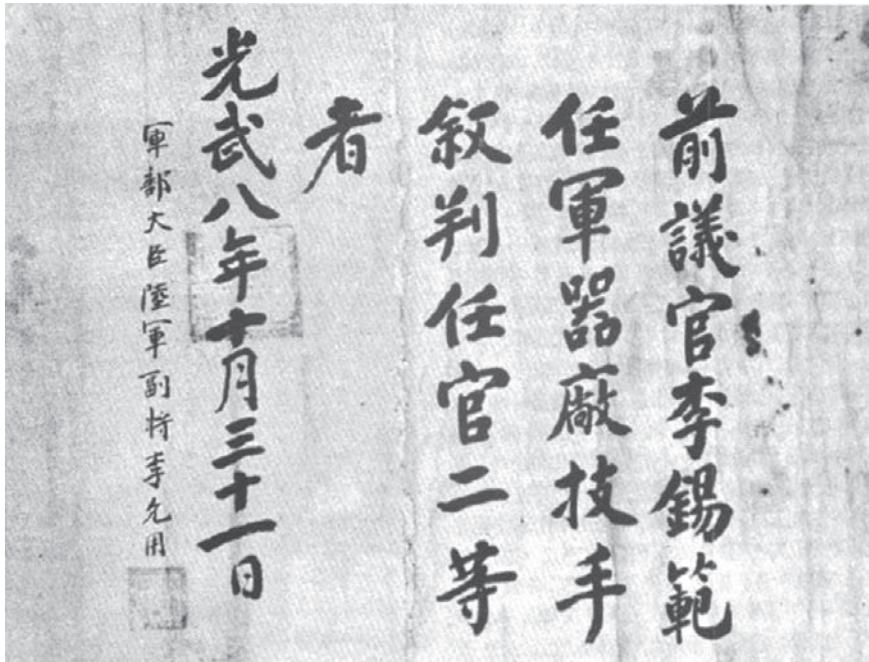
3. 설초 이석범 선생과 이국범 선생의 활동

1) 이석범 선생의 항일독립운동

설초(雪樵) 이석범 선생은 강릉 경포리 진사택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따라 도천면 중도문리(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에 이거하여 학문을 닦아 1884년 고종갑신년에 초시에 급제하고 한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장년시절에는 중추원의관을 거쳐 광무8년(1904)에 군부주사 겸 군기창기수에 임명되었고 신흥사를 파산에서 복구하였다. 아래는 군기창 기수 임명장으로 군부대신 육군부장 이완용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1910년 일제의 합병통치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생활하다 초대 도문면장에 임명으로 역임하면서 개화의 문물에 눈을 돌려 대포항을 크게 개항하여 물물교역의 경제항으로 발전시키는데 혁신했다고 한다. 설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망국의 쓰라림 속에서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례하고 손병희 등 33인이 창도한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하면서 독립선언서 문현을 버선 속에 숨겨 가져와 독립운동을 총지휘하였다.

1919년 양양군의 3·1운동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



하는 대중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되면서 6,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의 만세시위운동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참가 인원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는 것이다. 만세운동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유학계의 계획은 도문동 출신의 이석범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석범은 유학계의 지도자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의숙을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석범은 고종 황제의 인신에 참례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동생 이국범(李國範), 아들 이능렬(李能烈, 장남 載勳을 말함)과 함께 도천면 김영경, 강현면 장세환 등 쌍천학교 졸업생들을 시켜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하였다. 4월 5일과 6일의 시위로 밀미암아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생하게 된 사람도 많았고 잡혀가서 태형을 받은 이가 특히 많았다.

왜정 인물기록에 의하면 “1919년 만세사건에 관계 하 배일사상을 품고 1919년 4월 양양에서 일어났던 만세 사건에 주모자로 관계하여 원산지청(元山支廳)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공소(控訴) 결과 무죄가 됨. 방면된 후에는 경찰서의 취조가 가혹하였다”는 사정과 자기는 경성 방면에서 대대적인 독립운동의 주모자가 되어 활동하는 대표인데 이러한 작은 군부(郡部)에서는 어린아이의 놀이에 속하는 망동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호언하고 있음. 이후 농업에 종사함.”이라 기록하였다.

이석범 선생은 4월초 체포되어 혹심한 고초를 받고 형은 면하였지만 일제에 굴하지 않고 1926년 6월 순종 국장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 등과 민족주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여 강원도 지부장으

로 활약하던 중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2년 9월 정년 74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양양의 만세운동이 한 국독립사에 찬연히 빛나는 것도 이석범 선생의 공로이다. 선생의 동생 이국범(건국훈장 애족장 수여)과 장남 이능열(일명 載勳, 건국훈장 애국장수여, 1888~1951),⁵⁾ 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듯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했던 이석범 선생을 이 지역의 항일운동애국지사로 추앙 선양해야 할 것이다.

2) 이국범 선생의 항일독립운동

속초시 도문동 출신인 선생은 일찍이 한학에 전념하여 궁내부 주사를 역임했으며, 유림으로 정평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신념이 강하고 민족사상이 투철함과 동시에 영웅적인 심리가 있었다고 한다.

한말당시 국운이 기울어 민권이 상실되고 한일합방이 되자 이에 분을 품고 민족운동에 뜻을 두었으며, 1919년 고종황제의 인산(因山) 당시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터지고 전국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만세사건이 전개되자 고향으로 내려와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양양에서 민족사상이 강한 청년으로 이상온(李相溫), 이원도, 최인식 등 8명을 규합 이곳 장날을 기하여 태극기를 만들어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경과의 접전을 벌였다.

만세의 선봉에 섰던 8명의 청년들은 2명씩 조를 짜서 양양읍내를 맡아 일경의 총칼을 석전(石戰)으로 대항하였다. 그 후 8명의 주동인물들은 일경들에 체포되어 많은 고문과 옥고를 치뤘다. 일제강점기 고등법원부 형사부 판결문에 의하면, “1919년 4월 5일 강현면 장산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선동 호창하여 치안을 방해한자이다.”라고 하였다. 경성복심법원 형사사건부 기록에 보면, “1심 징역 1년 8월, 2심 징역 1년, 상고심 기각”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당시 독립만세사건은 전국에서도 유명했으며 선생은 애국지사로 2005년 3월 1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5) 이재훈(李載勳, 1888~1951),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출신, 함평 이씨 가문인 종주원 의관을 지낸 이석범의 장자로 출생하여 유년시절은 임천리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소년기는 부모를 따라 중도문리에 옮겨 살면서 쌍천서숙에서 한학을 배우고 현산학교를 거쳐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이수한 수재로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시운이 뒤따르지 못했다. 자사의 아버지 이석범은 유림의 대가로서 도천면 중도문리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 고종 국장에 참례하고 때마침 장안에서 봉기한 독립만세 시위를 직접 목격하고 독립선언문을 자신의 버선목에 물래 감추어 가지고 하양하여 거사의 주동이 되었다. 양양읍 임천리 이교완 집을 3.1만세운동의 본거지로 삼고 도천면은 이재훈이 주동이 되어 중도문리 이종국 집에서 김영경, 이국범, 이재형, 박사집 등 다시 각리의 유지와 은밀히 모의하면서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준비하고 4월 4일 밤 각리 책임자에게 다음날 물치시장에서 있을 독립만세운동에 동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 5일 물치시장에는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이재훈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군중과 합세하여 대포주재소 앞에 이르러 만세를 부르자 왜인들은 당황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하였다. 4월 6일 오후 1시경 각 면에서 동원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왜경과 대치하여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폭악무도한 왜적의 총검 앞에 무참히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과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워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옥고를 마치고 중도문리에 돌아왔으나 일제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청빈한 생활을 일관하다가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여 뜻한바 있어 서울로 이거하였고 6.25 동란으로 피난도중 1951년 4월 여주에서 향년 64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1982년 8월 15일 정부에서 그의 공적을 친양하여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190년 12월 자사의 공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했다.

4. 설초 이석범 선생의 지역사회활동

속초문화원에서 1987년 간행한 『속초문화』 제3호에는 내고장 선각자 편에서 ‘독립만세를 선도한 애국지사 이석범’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공은 함평인(咸平人)으로 명종때 양양부사 이춘령(李春齡)의 후예로서 1859년 유림의 가문인 양양 임천리(林泉里)에서 태어났다. 세칭 설악산이 생기고 그 정기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라 하였으며 호탕한 성격에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애국심이 투철하였다.

일찍이 부모를 따라 도천면 중도문리(현 도문동)에 이거하여 학문을 닦아 1884년 고종 갑신에 초시 급제하고 동학란 때는 방동학군을 조직하여 갑오의병장으로 활약한 전통적인 유학의 인물이다. 주로 한학을 공부하여 한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패기만만한 장년시절인 1899년에 중추원 의관을 거쳐 1905년 군부주사 겸 군기창기수에 임명되어 국정의 심의 참여하여 토비(土匪)를 평정하고 신흥사를 파산에서 복고하였다.

그러나 공은 1910년 일제의 잔악무도한 합병통치에 통분을 금치 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인자중하여 오던 중 뜻하는 바 있어 초대 도천면장에 잠정적으로 역임하고 개화의 문물에 눈을 돌리어 대포항을 크게 개항하여 물물교역의 경제항으로 발전시키는데 혼신하였으니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리고 1908년 및 1913년에는 당시 양양군수 남궁 억(南宮 檪) 또는 도천면민과 더불어 양양현산 학교와 도문쌍천서숙을 설립하고 후진의 양성에 힘써 항일정신을 고취하는데 진력하였다. 1919년 3월 1일 망국의 쓰라림 속에서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예하여 손병희 등 33인이 창도한 기미독립만세 운동을 목격하고 하양(下襄)할 때 독립선언서 등의 문헌을 버선 속에 숨겨 가져왔다.

이에 그의 동생 전 궁내부주사 국범과 모의하고 장자 능렬(能烈, 載勳) 차자 동렬(東烈, 載炯) 그리고 족손이 되는 교완(教完), 교정(教貞) 등을 주동자로 하고 문생 중도문 출신으로 김영경(金英經), 이종국(李鍾國) 등 50여명을 각면 동원책임자로 정하고 4월 4일 봉기하여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양양읍내 대포, 물치, 왕도, 기사문 등지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절호한 4.4독립만세운동을 영도하였다.

이 만세운동으로 왜경에게 함흥기(咸鴻基) 등 12의사(義士)를 잃고 국범 등 80여명과 함께 투옥되어 혹심한 고초를 치렀으나 일제에 굴하지 않고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국장에 참예하고 1927년에는 이상재(李商在) 선생 등과 민족주의자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고 활약하던 중 1932년 9월 1일 향년 74세로 서거하였다.

공은 중도문리 출신으로 양양인의 애국심과 항일의식을 높이 떨치게 하였으며 양양의 3·1만세

운동은 한국독립사에 기록되어 찬연히 빛남도 위대한 선도자이신 이석범 공의 지대한 공로이며 또한 민족의 횃불로 추앙하여 영원히 우리의 뇌리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내용은 ‘설초 이석범 공 항일독립운동 기실(紀實)비문’의 일부로서 이 비문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몇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설초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지금까지 양양 임천리라고 기록된 자료가 많았는데, 이 비문에 의하면 1859년 음 11월 25일 강릉군 경포리에서 태어났으며, 슬하에는 4남3녀를 두었다고 하였다. 아래 비문은 이석범 공의 넷째 아들 이재병이 기술한 것이며 아래 설초 선생 묘비석 사진 왼쪽에 앉아 있는 인물로 보인다.

고종조가 서기 1897년 정유에 국호를 대한이라 개칭하였고 이와 전후하여 많은 애국지사가 나왔는데 설초 공도 그중의 일인이다. 이조 임진왜란 때 양양전에서 순국한 집의공 계선(繼先)의 9세손인 계담(啓潭)의 장남으로 1859년 기미 음 11월 25일 강릉 경포리 진사택에서 탄생하니 휘는 석범(錫範)이오 자는 사일(士一)이며 일찍이 설악산하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에서 한학자로 명성을 떨치시다가 고종조의 군부주사 및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어 국정심의, 토비평정 및 신흥사 파산복구, 대포항 개설 등에 공헌하였다.

특히 잔악무도한 왜씨일본이 1910년 경술 8월에 순종제를 유폐하고 한국을 합병통치하니 공은 이 종유의 망국한을 풀고자 낙향하여 설초(雪樵)라 호하고 1908년 및 1912년에는 군수 남궁 억 또는 도천면민과 더불어 양양현산학교와 도문쌍천학교를 설립하고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였으며 1919년 기미 3월 1일 고종 국장에 참예하여 손병희 등의 창도한 독립만세운동을 보고 하양하여 이씨 전 궁내부 주사 연동 국법과 장자 능렬 재훈, 차자 동렬 재형, 족손 교완, 교정을 주동자로 하고 문생 김영경, 문명해, 장세환, 김두영, 최인식, 조영순, 김학구, 함홍기, 오세옥 등 50여인을 각 면동원책임자로 하여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연 6일간 읍내 대포, 물치, 왕도, 기사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는 4.4독립운동을 영도하다가 왜경에게 함홍기 등 12의사를 잃고 연동 등 80여인과 함께 투옥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음으로서 양양인의 애국심과 항일의식이 더욱 고양되었으며 공이 외경감시망을 뚫고 1926년 6월 10일 순종국장에 참예하고 1927년에 이상재 등과 민족주의자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고 강원도지회장에 취임하였다가 1932년 임신 9월 1일 양양면 임천리 자택에서 향년 74세로 서거하니 11일 동지문생 수백 인이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 명복과 조국광복을 기원하였다.

당시 45인의 제문만장을 실은 ‘설초선생 장례식만사록’에 보이는 연일 정석화(鄭錫和)옹 제문 중에 “嗚呼 惟 雪樵 李議官公 裏之豪傑士也 孝友仁勇其性也 詩禮文章其學也 接人也 見善則若己有之見不善則侃侃切切引 古諭今推之以腹心 而要使惟正之歸是信也 處事也 或如春風 或如急雨 明辨慎敏直路是行 不以恩怨而貳之雖盤根錯節 必用以利器能處 人所不能處春 赤有之是忠也 土匪起而誓衆以討之義

也 禁因泣而 與弟及 二子 諸姪俱就累繼節也 天既賦與之 富如是其修于身見于行 又如是 庶幾其需世之用 而居家也 顏飄屢空爲官也 馮郎已老其宏才令德 一末施報而年七十四卒 公歸之日襄之人 不分識與不識畢往哭 依依 然如有先焉 非平日之及 於人者 宿有素焉則 安有是也”라 하여 공의 고매한 인격과 덕화를 길이 추모케 하거니와 장남 재훈, 차남 재형, 삼남 재남, 사남 재병, 장서(長嫡) 전주 이종엽, 차서 강릉 최일수, 삼서 안동 김정한은 유훈에 따라 왜정관록을 배척하고 민족정기의 유지에 힘쓰다가 천도호환으로 8·15해방을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감격의 영광을 보았으나 이와 전후하여 모두 타계하고 불肖 재병만이 재열로 행세하니 통운망극일 뿐이다.

때문에 공의 탄생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항일독립운동의 진상을 적고 새겨서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차녀 83세 세열의 염원과 족보 김구암 화상 증언, 양양군 3.1운동약사 기타자료에 의하여 사남 불화거사 재열 찬하고 외손서 원주 원종극 서하여 이곳에 비갈을 세우다. (1987년 속초 문화 3호에 실린 이석범 공의 사남 이재병 글)



앞에 논의했듯이 설초 이석범 선생의 행적을 크게 나누면 항일운동, 교육사업, 지역발전사업 등 세 가지 방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엄경선은 양양지역 근현대인물사에서 이석범에 대해 양양의 유림을 규합해 반동학군조직, 유학계통의 쌍천서숙 설립 및 후학양성, 기미년 양양만세운동 주동, 신간회 양양지회 회장으로 활동 등으로 정리하였다.⁶⁾

설초 선생은 조선 인종 원년(1623년) 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의 후손으로 도천면 중도문리(지금의 설악동)에 이주하여 어린시기에 한학을 익혀 1884년 25세의 나이로 초시에 급제하였다.

이 분이 양양유림의 대표적 인물로 부각된 것은 갑오년(1894년) 10월의 2차 동학농민 전쟁 때로 볼 수 있다. 당시 35세의 나이로 강원도에서 발기한 동학군에 맞서 동생 이국범과 함께 양양의 유림들과 민보군을 조직하여 홍천 내면일대에서 동학군을 폐퇴시키는 공을 이뤄 갑오군공록과 동학당정토인록 등에 그 이름을 올렸다.

강원지역 동학군은 초기에 수 천 명에 이르러 강릉관아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관군과 민보군의 포위공격에 진압되었다. 이러한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일약 지역유림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후 광무2년(1898) 중추원 3급 의관에 임명되고 광무8년(1904)에는 군기창 기수로 임명되는 등 관원생활을 하다가 한일합방이 되자 낙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06년 남궁 억 선생이 지역유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향교재산 등으로 신학문 중심의 현산학교를 세우자, 1913년 유교계통의 학교인 쌍천의숙을 도천면 지역에 세워 전통유학사상의 고취에 노력하였다. 이 의숙에서는 많은 지역인재가 배출되었는데 기미년(1919년) 양양만세운동에 가담한 김영경, 장세환 등이 여기 출신이었으며, 속초읍장을 지낸 박상희 읍장도 쌍천의숙 졸업생이라고 한다.

1919년 당시 설초 선생은 도천면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전에 양양금융조합장 등도 역임함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통치세력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설초 선생은 고종의 인산에 참례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선언서를 지니고 왔으며, 양양만세운동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이에는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 쌍천의숙 졸업생들에게 맡기고 함평 이씨 문중이 있는 임천리에서 만세운동을 비밀리 진행하였다.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2월에 이곳에 전해지자, 2월 20일 저녁에 현산공원에 이종만을 비롯한 유림 20여명이 모여 한성쪽을 향하여 '망곡'을 한 후 임천리 이교완의 집에 모여 '국상의 예는 복상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이라며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례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협의한 결과, 이석범을 비롯한 10여명을 상경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월 25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유림들이 육로를 이용하여 한성에 올라갔다. 이때 나이 61세였던 이석범이 한성에 가서 서울의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한 뒤 양양의 만세운동을 위하여 독립

6) 『양양군지』상권,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320~322쪽

선언서 등의 자료를 몸에 숨겨오던 중 일본군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검문소에서 소변을 보는 척하면서 버선 속에 숨겨 무사히 일행과 함께 3월 20일 귀향하였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이석범은 고향에 돌아온 그날 동생 이국범과 논의하여 자기의 아들 이능렬을 앞장세우고 도천면에는 중도문리의 김영경을, 강현면에는 적은리의 장세환 등을 책임자로 정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⁷⁾

그러나 양양장날 만세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919년 4월 3일 태극기를 제작하다가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유력한 면장도 가담했다”는 보고가 될 정도였다. 일제의 기록에서 “배일사상을 품고, 1919년 4월 양양에서 일어났던 만세사건에 주모자로 관계하여 원산지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결과 무죄가 됨”이라 하였다. 설초 선생은 실형은 면했지만 몇 개월의 구금생활과 일경의 가혹한 취조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 한다.⁸⁾

잘 알려졌듯이 이석범 선생은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양양 도천면과 강현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석범, 이교완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인 유교세력과 물치리 감리교회 조영순, 조화벽 개화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석범 선생은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을 앞세우고 당시 쌍천의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⁹⁾ 그는 유학자로서 일제의 강제병합에 분개하고, 광무황제의 폭崩(暴崩)소식을 듣고 군내 양반 유생들에게 양양읍 밖에서 요배식(遙拜式)을 거행하도록 하는 등 항일의식을 지녔다.

이국범은 설초 선생으로부터 만세운동 계획을 전해 듣고 김영경, 장세환 등과 도천면, 강현면 주민들을 동원하여 연 6일 동안 읍내 대포, 물치, 왕도, 기사문 등지에서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

7) 이철휘, 「3.1운동과 근현대사」『양양군지』 상권,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219쪽

8) 당시의 일화로 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공(李公=이석범)이 국상에 참석한 것을 안 양양경찰서장은 암암리에 이공을 초대하고 환대하면서 서장 문(問) ‘양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미연에 방지해 주겠는가?’ 이공 답(答) ‘나로서는 방지할 힘이 없다’ 서장 ‘그러면 귀하의 문중에서 일어난다면?’ 이공 ‘그것은 내가 방지할 수 있다’ 서장 ‘그러면 잘 부탁한다’ 그 후 만세운동을 주동한 인물 중에는 이공의 자질(子姪)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분개한 서장은 이공을 초치하여 서장 월 ‘그 때 귀 문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선도방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 이공 월 ‘나는 그런 약속한 일없다’ 서장은 다시 통역하던 형사를 불러 대직하니 이공이 노하여 형사를 책하여 말하기를 ‘너 일본말도 잘 못하는 놈이 내가 언제 방지하겠다고 말하였느냐?’고 크게 꾸짖으니 통역형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퇴장하였다. 통역형사는 그 후 ‘이석범은 과연 영웅이다. 통역한 사람을 서장 앞에서 대길하니 나는 유구무언이었다. 참으로 영웅이더라’라는 일화가 남아있다.

9) 『독립운동사자료집』 5집, 1984, 975~976쪽에 수록된 3.1운동 재판기록에서 이능렬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이능렬, 주소: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직업:농업, 나이:32세, 주문:피고 능렬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피고 능렬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할 의사가 계속되어 1919년 4월 4일 밤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의 방에서 차입된 태극기 2폭을 작성하고 동 이민 수명에 대하여 명 5일 동군 강현면 물치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었으니 여기 참가하라고 선동하고 다음 5일 정오경 물치시장에서 선동에 응하여 모여드는 군중 수백명을 지휘하여 전시 태극기를 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다시 위 군중을 거느리고 약 20정 거리인 도천면 대포경찰관 주재소 부근에 이르러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또 군중에 대하여 양양경찰서에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한 것은 불법이다. 명 6일은 양양면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고, 또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도록 요구할 터인데, ‘일동도 와서 참가하라’는 취지를 말하고 선동하여 다음 6일 16:00경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면 시장에서 전시 태극기를 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으며, 피고, 원식, 형우는 같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계속하여 능렬의 전시행동에 가입하고 물치시장 및 양양면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이능렬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1919년) 4월 4일밤 이민 수명에 대하여 선동한 점을 제한 위의 사실을 자백, 사법 경찰의 동피고 신문조서 중 ‘대정 8년 4월 4일밤 이민 수명에 대해 선동한 사실의 자백 기재, 피고 원식의 당 공정에서 자백, 사법경찰관의 피고 형우 신문조서 중 자백기재, 입수된 태극기 2폭의 현존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창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도천면에서는 이석범의 뜻을 받은 그의 아들 이능렬이 도천면과 강현면을 맡아 활동했는데 이능렬과 손잡은 도천면 중도문리 김영경, 부월리 이종순, 대포리 박사집의 활약으로 천여명의 군중들이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몰려갔다.

이로 인해 이국범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원산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이국범에게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쌍천의숙 졸업생들이 양양 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것은 이석범 선생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설초 선생은 일경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26년 6월 순종 인산에 참례하고, 이듬해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주도한 민족협동전선운동인 신간회에 참여하여 1927년 11월 20일 조직된 신간회 양양지회 초대회장을 맡았다. 신간회 양양지회는 강원도 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미신타파, 조흔금지, 금연과 아편흡연 추방 등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생활생존권 수호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반일운동 확산에 노력했다. 이에 일제는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금지하는 적극적 방해책동을 하였다. 양양지역 신간회는 청년운동세력이 중심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양양농민조합이 활발히 움직였다. 이러한 신간회와 농민조합의 지역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설초 선생은 1932년 9월 1일 향년 74세로 작고하였으나, 설초 선생의 비문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기미 3월 1일 고종 국장에 참예하여 손병희 등의 창도한 독립만세운동을 보고 하양하여 이씨 전 궁내부 주사 연동 국범과 장자 능렬 재훈, 차자 동렬 재형, 족손 교완, 교정을 주동자로 하고 문생 김영경, 문명해, 장세환, 김두영, 최인식, 조영순, 김학구, 함홍기, 오세옥 등 50여인을 각 면 동원책임자로 하여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연 6일간 읍내 대포, 물치, 왕도, 기사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는 44독립운동을 영도하다가 왜경에게 함홍기 등 12의사를 잃고 연동 등 80여인과 함께 투옥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음으로서 양양인의 애국심과 항일의식이 더욱 고양되었으며 공이 외경감시망을 뚫고 1926년 6월 10일 순종국장에 참예하고 1927년에 이상재 등과 민족주의자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고 강원도지회장에 취임하였다가 1932년 임진 9월 1일 양양면 임천리 자택에서 향년 74세로 서거하니 11일 동지문생 수백인이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 명복과 조국광복을 기원하였다.

이와 같이 설초 이석범 선생은 양양지역 항일만세운동의 주도적 인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교육사업이다. 당시 개화파의 선구자인 남궁 억이 양양군수로 재직하던 1906년 현산학교를 세워 신문화운동 세력이 커지자, 1912년 유교계통의 쌍천의숙을 설립하였다. 이 쌍천의숙(일명 쌍천서숙, 쌍천학교)은 도문동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매곡 오윤환 선생이 학무정을 짓고 매곡서당을 운영하는 등 유학의 학풍이 뿌리를 내린 곳이다.¹⁰⁾

설초 선생 비문내용을 보면 “1908년 및 1912년에는 군수 남궁억 또는 도천면민과 더불어 양양현산학교와 도문쌍천학교를 설립하고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고 하였다. 쌍천의숙과 현산학교의 설립에 있어서 유학자인 이석범 선생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양양향교의 유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현산학교를 남궁 억 양양군수가 세움에 따라 이석범 공을 비롯한 유림의 역할론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1906년 한서(翰西)가 세운 현산학교 개교와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여 신학문의 가르침을 주도한 한서 선생의 활동을 소개한 바 있다.¹¹⁾ 이번에 설초 이석범 선생 자료발견과 함께 양양지역의 신구학문간의 구학문과 신학문, 보수와 혁신의 구도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유학자로서 설초 이석범 선생이 신흥사 복원 등에 기여하면서 유교와 지역불교의 연합을 통해서 신학문을 주창한 한서 남궁 억 선생과 상호경쟁적 보완관계를 설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신흥사 복원과 대포항 교역화장 등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 업적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다음은 유학자로서 문집발간에 참가하였는데 그의 장인 신범 선생의 봉서유고(蓬西遺稿) 편찬사업에 참여하였다.¹²⁾ 봉서(蓬西) 신범(辛汎)의 맏사위인 이석범 선생은 평창 유림의 거두인 신범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이 문집은 1903년 직계자손과 사위와 문생이 편찬한 목판 인쇄본으로 전 7권으로 천지인 3책으로 되어있다. 봉서 신범은 영월 신씨로서 봉평면 원길리에서 생활한 유학자로서 화서 이항노의 문하에서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고, 율곡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향리에 봉호재(蓬壺齋), 조사정(操思亭)과 같은 학재를 마련하고 말년까지 후생교화를 중시하였다.

〈봉서공행장(蓬書公行狀)〉에는 “규집과 익집 두 아들과 세 딸을 두었다. 큰 딸은 이석범(李錫範)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상준에게 시집갔고, 막내딸은 권태승에게 시집갔다. 손자들은 상묵이 있고 규집은 하묵 · 임묵 · 경묵을 낳았고, 익집은 외손으로 승학을 낳았고 사위 이석범은 원화(遠和)를 낳았고, 사위 상준은 영기, 영주를 낳았고 사위 권태승은 나를 낳았다. 때는 임인 여름 6월 상완 친족 후학 홍문관시독 성묵이 삼가짓다.”고 하였다.『봉서유고』에 보면 정곡(井谷)에 살던 딸집에 갔던 소회를 쓴 시가 있는데, 그의 인품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10) 현재 속초출신 유학자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 업적 발굴과 문집국역 사업, 선양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매곡 오윤환 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2003)을 작성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속초문화원에서는『국역 매곡일기』(2009),『학정건축일기 번역 및 학술연구』(2009),『학무정 시집번역 및 학술연구』(2011)를 추진하였다. 필자는『속초시 매곡 오윤환 선생 풍속경관시 분석』(강원민속학 20집, 2006)을 발표하였다.

11) 장정룡,『閭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양양문화』제21호, 양양문화원, 2010, 66~71쪽, 강원일보 2009년 8월 20일 “장정룡(양양군지 집필위원장)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신식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양양군민에 대한 격려가 담긴 ‘문현산학교 작증하양인사(閭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를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문현산학교작증하양인사’는 길이 120cm, 너비 15cm 크기의 고급한지에 먹으로 1,000자 내외의 국한문 훈용 해서체로 작성돼 있다. 문서는 1906년 8월17일 작성됐으며 ‘학교가 생긴 지 몇 달 되지 않아 강릉과 간성, 삼척 등 군에서 오는 학도가 끊이지 않으며 연조금이 3만여 량(당시 화폐로 3,000원)에 달한다. 향교에서 보내주는 벼가 매년 100석이고 의연금을 내는 자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시 양양군수로 재직하던 한서 남궁억 선생을 칭찬하고 ‘장하다, 양양이여! 나는 양양인사들을 경하고 격려하노라’는 글귀도 포함됐다. 현재 양양초교의 전신인 현산학교는 1906년 7월20일 개교했다. 당시 한학을 교육하던 유림들의 반대와 학교 건립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강릉·간성·삼척 등의 지역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와 음악·수학·역사·체조·일어 등을 가르쳤으며 같은 해 강릉에 개교한 초당 영어학교와 함께 신학문 및 독립운동의 산실이 됐다. 장정룡 교수는 “내용으로 보아 예조판서가 내린 글로 추측되며 현산학교의 구체적 설립비용 및 학생현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담고 있어 양양 지역교육의 역사적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강릉=원선영 기자)

12) 『國譜 蓬西遺稿』평창군, 2006

다. 봉서 신범의 맏사위였던 이석범 선생도 유학자로서 글씨를 잘 써서 홍성보부상감의비(洪城褓負商感義碑) 비문을 쓰기도 했다.¹³⁾

5. 맷음말

유학자의 길을 걸었던 설초 이석범 선생은 일찍이 유학의 진흥과 인재발굴을 위해서 도문동에 한학 중심의 쌍천의숙을 설립하여 유교전통을 계승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하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기미년에 거사했던 양양지역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한 유림의 대표적 인물로 추앙된다. 이러한 업적이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헌신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대포항을 수축하여 교역중심의 대표적 항만으로 만들어 오늘날과 같은 비약적 발전적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한다.

설초 선생이 일제강점기하에 도천면장 등의 벼슬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으나, 친일행적을 했던 인물들과 달리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향리로 돌아와 인재양성과 독립사상고취, 실질적 항일운동의 추진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제하의 관직제수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헌신적 항일독립운동의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동생 이국범과 이능렬이 독립유공자가 되었으나 설초 선생은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물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시대나 왕조, 국가의 변천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쳐 살았던 설초 선생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속초·양양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독립운동을 통해 후세들에게 남다른 국가관을 심어준 이 분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발견한 설초 이석범 선생과 동생 연동 이국범 선생의 친필 간찰을 대하면서 이를 계기로 설초 선생에 대한 정당한 업적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동해안시대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설악권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함께 미래발전적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인물의 업적을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일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설초 이석범 선생의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사료수집과 심층적 연구를 통해서 향토사 연구의 진전을 이루고, 지역인물 선양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13) 홍성 보부상감의비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에 있다. 1894년(고종31) 동학운동 당시 홍주성을 수호하고 신예원에 출격하였다가 전사한 김병돈(金秉敦)의 전공을 추모하기 위한 비석이다. 비석은 1894년 홍성 지역의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어 광천읍 광천리의 광천구장대에 건립하였으나 이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전체 높이는 208cm이고 비신의 높이 151cm, 폭 78cm, 두께 31cm의 크기로 비문은 이석범(李錫範)이 글씨를 썼다. 이 비문은 동학군 토벌을 주도했던 설초 선생의 행적을 보완해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기획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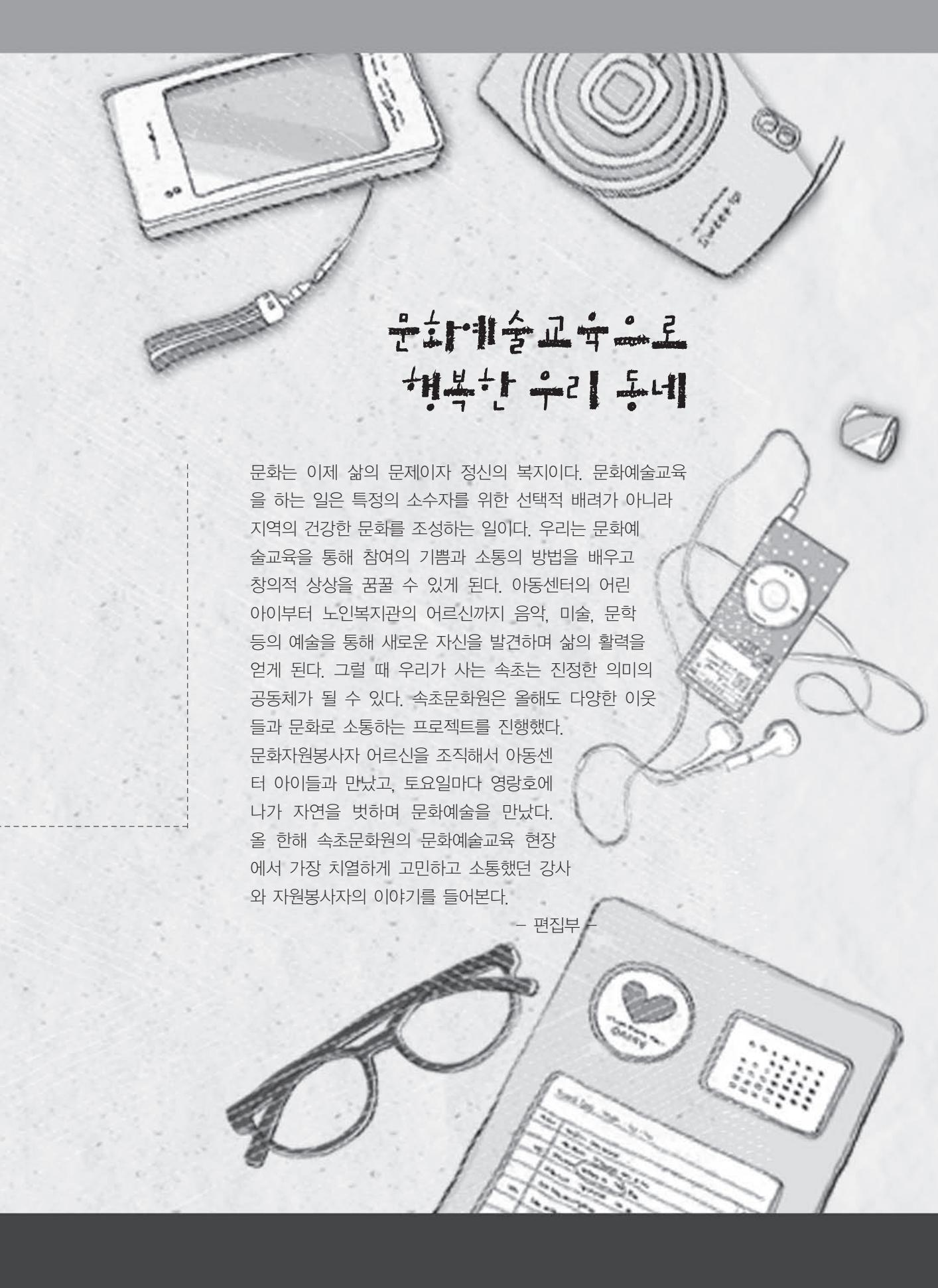
어르신문화학교

어린이방학프로그램

청소년방학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문화는 이제 삶의 문제이자 정신의 복지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일은 특정의 소수자를 위한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지역의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참여의 기쁨과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창의적 상상을 꿈꿀 수 있게 된다. 아동센터의 어린 아이부터 노인복지관의 어르신까지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삶의 활력을 얻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속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속초문화원은 올해도 다양한 이웃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화자원봉사자 어르신을 조직해서 아동센터 아이들과 만났고, 토요일마다 영랑호에 나가 자연을 벗하며 문화예술을 만났다. 올 한해 속초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했던 강사와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편집부 —

예술, 지역과 만나다

– 유정충 선장과 함께 했던 6개월의 기억

편집부

1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목표 아래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예술 현황, 인구학적 특성, 문화예술교육 수요 등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속초문화원은 2011년도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영웅이지만 이제는 잊혀져가는 인물인 ‘고 유정충선장’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난타’로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정충문화제를 만들기로 강사네트워크를 통해 협의하였고,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유정충 선장의 삶을 통해 희생





정신과 어민의 삶, 바다와 해양문화, 지역 어로문화 등을 배운 후 각각의 향유 기관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그림자극과 뮤지컬, 공공미술, 생태교육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유정충 선장 문화제’를 개최



하여 지역사회와 그 의미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속초 출신의 고 유정충 선장은 1990년 3월 1일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갑자기 밀어닥친 돌풍에 휘말려 배가 침몰할 위기를 당하자 선원 21명을 탈출시키고 홀로 배에 남아 ‘602 하나호 침몰 중’을 반복하다 어선과 함께 수장됐다. 고 유 선장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어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이듬해 1월 9일에는 고 유정충 하나호 선장 기념사업추진회가 추모 동상을 건립했다. 그러나 속초 시민 중 대다수가 유정충 선장의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유정충이라는 지역의 인물이 다시 부활하고, 그 이야기에 깃든 의미를 지역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미션이었다.

2

유정충문화제라는 기획 아래 세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동센터 인 행복한 홈스쿨에서는 어부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자극을 만들기로 했다. 그림자극은 스토리텔링과 미술, 연극을 배우며 자기 이해력과 창의적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 유정충 선장의 이야기로 노래 가사 바꾸기와 난타를 배웠던 위스타트는 P.I.E 교육과 공동체 미술, 유정충 문화제 초대장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지난 해 탈춤으로 전국대회 상을 수상했던 방과 후 아카데미는 올해 유정충 선장의 이야기를 극화한 뮤지컬을 만들기로 했다.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든 이 작품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 유정충 선장의 인간적 고뇌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같은 교육의 최종목표는 학생들이 직접 문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지역인물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 학습자와 만나고 그 결과물인 ‘유정충 문화제’를 지역과 공유한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리더가 되어 작지만 강한 ‘문화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또한, 향유기관의 네트워크와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의 보완이라는 의미도 가졌다. 운영이 어려운 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고, ‘지역인물’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술단체 및 시민예술가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올해는 속초문화원이 진행한 어르신문화학교의 수강생들이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과 함께 그림자극에 필요한 리딩연습을 진행했다. 세대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새로운 소통의 방식은 흥미로웠고 모두들 만족해했다.

강사들간의 네트워크도 공고히 했다. 매월 1회 강사자율연구모임을 가져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속초

문화원의 하반기 토요문화학교

수건돌리기게임으로 관심과 민첩한 행동을 기릅니다.

프로그램이 ‘영랑호

풀꽃학교’라는 이

름으로 탄생하

게 되었다.





3

그러나 모든 교육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사업의 시작이 8월로 늦춰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방과 후 아카데미의 뮤지컬 연습은 지지부진해졌고, 위스타트와 행복한 홈스쿨 학생들은 수업참여가 들쭉날쭉했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새로 선발된 학생들이 수업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힘들었다. 학년간의 차이도 심했고, 수동성도 더욱 문제가 되었다. 강사는 지쳐갔고, 몇 번이나 수업의 내용을 변경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위스타트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했던 벽화는 타일벽화로 변경되었고, 타일을 건물 외벽에 붙이려는 작업은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 때문에 끝내 붙이지 못했다. 그나마 위스타트측과 협의하여 내년에는 학생 참여에 의한 공공미술 워크숍을 하기로 약속한 점이 위안이었다.

그리고 유정충 문화제를 위한 기획워크숍이 개최되었다. 11월 개최된 유정충 문화제 기획워크숍은 이 사업에 참가한



학생과 강사들이 1박 2일동안 유정충문화제에 필요한 현수막과 초청장, 내용을 구성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참가한 학생들은 워크숍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 워크숍에서 만든 초청장과 현수막 시안은 유정충문화제의 배경막과 홍보 현수막으로 사용하였다.

유정충문화제 개막 당일.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은 오전 10시부터 두드림 소극장에서 와서 리허설을 했다. 끊임없는 연습의 반복. 아이들은 지치면서 긴장감이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여전히 자신없는 대사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동선. 우리 모두는 초조했지만 끝까지 해내리라는 믿음 같은 것을 공유하였다. 오후 1시. 약간의 난관이 있었다. 위스타트 학생들의 활동과 행복한 홈스쿨의 그림자극 상영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 한시간여를 골몰한 끝에 무대장치를 모두 설치했다.

오후 두시.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갖고 무





대에 섰다. 이제야 긴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소극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묘한 긴장감은 대단했다.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최소화된 공간은 대강당에서 공연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정총 문화제 시작 오분전. 120석의 좌석이 꽉 찼다. 어둠이 내리고 적막이 무대를 감싼다. 복도에서 입장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이제야 긴장이 느껴지는가보다.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서로에게 보낸다. 이윽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유정총문화제는 보는 사람보다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소극장이 주는 낯선 긴장감은 관객이 자신들을 지켜본다는 집중력을 일으켜주었다. 그 아이들이 다시 객석에서 관객의 입장이 될 때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수립단계부터 진행, 결과물 발표회까지 참여강사와 기관 실무자,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며 미션을 수행해 나갔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과 문화로 소통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문화도시 속초의 가능성 을 발견하였다.

어르신들의 재능 나눔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속초문화원 이정무
사업과장

속초문화원은 지역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문화감수성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어르신문화학교를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실시하였다. 2007~2008년은 극단 굴령쇠와 연극교실, 2009~2010년은 갯마당과 함께 가야금교실, 2011년은 속초시노인복지관과 사진반 교육을 하며 공연·전시 등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호평을 받았다.



공예반 짚공예작품 제작모습

올해 어르신문화학교는 기획 단계부터 '향유 어르신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고민하였고, 그 고민의 결과 '문화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기획하였다. 교육은 지역 설화를 동화구연방식으로 표현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설화구연반, 지게 등 전통생활 용품 제작 활동과 봉사활동 방법을 고민하는 공예반으로 구성하여 6월부터 어르신문화학교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기획하였다.

모집인원은 30명. 그러나 총68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었다. 지역 어르신들의 동화구연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아 처음 기획인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한 것이다. 인원이 많아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신청인원 그대로 6월 11일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설화구연반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박 해성, 김효린, 김명희 선생님이 총15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반에는 발성과 손유희 등의 표현연습을 중심으로, 후반에는 동화개작 및 발표, 문화자원봉사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공예반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속초여성행복센터와 도문동경로당에서 김효린, 김정민 선생님과 도문동 짚풀공예 어르신들을 강사로 총15회 교육을 하였다. 초반에는 공예품을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 후



양양초 학생대상 구연동화 문화자원봉사 중

짚풀과 나무 등 자연물을 활용한 옛 생활용품을 제작하였다.

그동안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10월부터 진행되었다. 기획단계에서는 교육종료 후 총5회 지역아동센터 학생대상 문화자원봉사를 염두 해 두고 있었으나, 지역의 요청과 문화원 교육프로그램과의 결합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시작은 설악문화제 공예체험부스 운영. 10월 6일~7일 이틀간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지역청소년 문화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호로롱, 호로롱 물새피리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어린이 250여명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처음에는 어떻게 체험부스를 진행 할지 두려움을 가졌던 어르신문화자원봉사자들은 부스에 넘쳐나는 체험객들을 상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활동하다보니, 어느새 공예체험 전문가가 되어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0월 11일 청대초등학교 책축제에서 위와 동일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두 번의 활동에 자신감을 얻은 어르신들은 점점 활동 범위를 넓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10월 23일~24일 행복한홈스쿨 아동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연극 발성 지

도 봉사, 10월 31일 다솜아동센터 동화구연과 공예품만들기, 12월 5일과 7일은 양양초등학교 · 조양초등학교 방과후 돌봄학생 대상 동화구연과 종이접기 등 다양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보며 '나눔의 가치는 경험하면 할수록 더 큰 만족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문화자원봉사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보강요청을 하여 12월까지 심화교육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풀목음문화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자원봉사 대상 학교 등을 찾아 말 그대로 '찾아가는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각각 세대에 맞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중 많은 어르신들의 꿈은 가정에서 안주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자존감을 표출할 수 있는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본 사업은 참여어르신들에게 작은 꿈을 성취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자평하며, 다양한 문화자원봉사 방법론과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설화구연반 손유희 소품만들기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어린이방학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강사
이희진

지역문화예술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문화예술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예술이다. 내가 나고 자란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만들어 가는 모든 것들을 지역문화예술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 속초문화원에서 '지역 문화, 예술을 알자'라는 가치 아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10차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문화예술의 바다로 풍덩~'



먼저 속초라는 지역에는 어떤 문화, 예술이 숨어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속초와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과 여러 유관기관에서 찾아 읽기 시작했다. 또 그것들이 검증이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문화원 사람들, 지역 강사들과 미팅을 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성란 선생님의 스토리텔링, 영북민속연구회 '갓마당'의 국악놀이, 오성숙 선생님의 클레이아트, 북아트 형태로 커리큘럼이 이루어졌다.

오성란 선생님과의 스토리텔링 첫 수업. 유인물을 이용, '속초'의 자연환경, 속초라는 이름의 유래와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지명의 유래를 알아 본 후 지도에서 위치를 찾고, 속초를 나타내는 것들, 마크, 캐릭터, 시화, 시목, 시조, 시가를 배운 뒤 시가를 불러 보는 시간을 가졌다.

속초의 전통무형문화를 배우는 시간에는 갓마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도문농요, 북청사자놀음을 동영상을 통해 보여 주시면서 진행을 하셨다. 또한 농악과 농요에 꼭 필요한 전통악기를 가지고 기본적인 장단 몇 가지를 배워서 시현 했고, 북청사자탈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짧은 극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스토리텔링

으로 이와 관련된 이론을 배운 후에 진행되었던 수업이라 아이들에게 더 깊이 있게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속초팔경은 하나하나 사진으로 보고,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보며 수업을 진행했다. 한 단락들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속초팔경과 속초의 심벌마크, 캐릭터를 그리고 소개하기, 빙고게임으로 속초를 탐험하기, 속초시지에 내 모습 소개하기, 개념카드로 속초문화 익히기 등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시간 또한 잊지 않고 가졌다.

이렇게 배운 것들은 오성란 선생님과 북아트를 만들고, 오성숙 선생님과 함께 클레이아트로 표현했다. 알록달록한 클레이를 조물조물 주물러, 촉구하는 해오미를 만들고, 촉구공을 만들었다. 청룡과 황룡을 만들고, 속초 팔경의 하나인 조도를 만들었다. 속초를 대표하는 음식인 냉면의 면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만드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마지막 수업은 속초의 유명한 인물 중 한 분인 유정충 선장님에 대한 노래패러디를 배워 불러 보고, 모둠별로 소개하고 싶은 속초의 꺼리를 정해 곡에 맞춰 개사를 한 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부모님들과 그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모둠별로 노래패러디 작품을 발표하고, 아이들 작품을 둘러보고, 출석상과 전 교육시간을 함께한 청소년문화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상을 박수 속에서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운 여름방학의 수업을 마무리 지었다.

김보성 선생님과 함께 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몇 구절이 생각이 난다.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예술은 가르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이다. 예술

은 어릴 때부터 접해줘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 이유다.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은 기능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심어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경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의 삶터를 가꾸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는지, 세상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심어 줬는지를 묻는다면 뭐라 답할 수 있을까?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은 더 멋진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역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들은 움직인다.

그동안 나는 진정한 속초사람이었을까?

자전
원봉
상사
회자

원래 봉사에 딱히 관심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귀찮은 일에 자진해서 나설만한 성격이 아니었지만 한 번 이 일에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나니 관점 자체가 바뀌어 버렸나 보다.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화원 사무실에 있던 안내서를 아예 가져와버렸다. 내용은 대충 속초 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았다. 다소 생소한 주제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 오전에 진행된다면 학업에 크게 방해가 되지도 않겠다는 생각에 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진행되는 수업을 보고 있으니 정말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다. 속초시화와 속초 시조는 알았지만 속초시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없었던 속초시 상징 캐릭터인 해오미와 심벌마크에 담긴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여태껏 무 신경하게 불러왔던 학사평이나 울산바위 등의 각각의 지명에도 의미와 설화가 숨어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속초시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선원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유정충 선장님의 삶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정도가 되고나니 그 동안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참 무심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 까도 생각해 봤는데 아마 나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도 아이들 옆에 앉아 수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잘 들어두었다가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난 후 그 자료들을 이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각자 재료와 정보를 가지고 노래 패러디하기, 북 아트, 클레이 아트, 속초신문 등을 만들었는데 가끔 장난도 치고 놀면서 각 조끼리 만드는 물건은 다양하면서도 조화롭게. 개인이 만드는 것은 각자의 생각과 개성이 드러나도록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다. 거의

같은 자료를 나눠줬는데도 다양한 작품이 나온 걸 보고 누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표현 방법도 다 달라진다는 걸 새삼 느꼈다.

작품을 둘러보면서 아이들이 각자 속초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고 감탄하기도 했다. 북청사자탈도 만들고 북청사자 놀음을 배워서 서로 다른 재미있는 연극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을 전시하고 발표하며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걸 했던가? 하고 생각했다. 배움과 놀이가 어우러진 활동을 하다 보니 길게만 느껴졌던 열흘도 금방 지나가 버렸다.

발표회시간에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나누어 주는데 그 자리에서 봉사 확인서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인서를 받으니 상당히 쑥스러웠다. 좀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들었다. 열흘간 했던 일을 되짚어 보니 정말 나에게도 유익한 점이 많았다.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이 가진 뜻도 알게 되었고 영금정의 슬픈 역사도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진짜 속초’에 한 발짝 다가 설 수 있었다. 이번에도 단순히 봉사자가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속초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도 진정으로 속초 시민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불을 지피려면 작은 불부터 지펴라

청소년방학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강사
김효린

먼저

지역에서 작은 예술가 캠프가 갖는 의미는 진행자나 아이들에게 기존과 다른 캠프로 인식되었으면 한다. 캠프 진행자는 아이들과 일상을 함께해오던 낯설지 않은 선생님들이었고, 캠프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모르는 얼굴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자연을 넘어, 지역을 넘어 소통하는 체험임이 작은 예술가 캠프의 1차 기획의도이자 추구하고자는 방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예술가 캠프는 자연을 만나고, 지역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장이 되었다. 그 안에서 몸짓은 또 다른 언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다름을 하나로 엮는 고리가 되었다.

작은 예술가 ‘도시스케치’ 캠프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 하였다. 익숙지 않은 낯선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어색함과 프로그램

에 대한 정확한 사례도 없었기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라는 의문이 손톱 밑의 가시처럼 움직임을 멈칫거리게 했다.

“작은 예술가 ‘도시스케치’ 캠프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도시의 모습들을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하나 된 분위기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각으로 개념을 그리고 있었다. 사실 사전에 진행 스태프(매개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파악과 인식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담보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매개자들의 사전 교육이 소홀히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이 아쉽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진행교사역할을 자처한 속초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 시킬 수 있었던 부분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여름 땅볕에 얼굴이 익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움직여 주었던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프로그램과 참여대상자들과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 그들이 문화매개자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상상만으로 흐뭇하다.

이상을 실현하는 경계점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자신의 저서 〈주측과 논박〉에서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구체적인 불행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가난을 없애기 위해 싸워라. 완전히 선한 요원한 이상사회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비록 당신이 매우 깊이 그 이상의 고무적인 전망에 심취했다 하더라도,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거나, 그 이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놀라운 세계에 대한 당신의 꿈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http://blog.daum.net/db009kr/13147408> 정리인용 라고 말 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물음이다. 변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확 바뀐 변화는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줄 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변화를 위해 이상을 꿈꾸고 실천에 옮겼던 이들은 칼 포퍼 주장을 만나는 순간 어리둥절해진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지? 한참 고민에 빠질 것이다.–사실 나도 그랬었다. 변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만 크게 보였었으니까–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진 관점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다행스럽게 가지고 있다. 꿈과 이상에 대해 경계점을

파악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면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변화이고 어떤 것이 꿈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칼 포퍼가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선과 추상적인 악'의 의미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 예술가 '도시스케치' 캠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정적 지시자에 의해 연기된 삶을 강요받는 아이들

속초는 관광도시임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속초에서 옷가게 학원을 차리면 망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만큼 부모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으로 나가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시에 의해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그게 뭐 잘못된 일이냐고 반문하겠지만 현장에서 만나의 아이들의 집단문화는 획일화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좀 더 다양하게 꿈틀거리는 문화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하면서도 에너지가 팔딱거리야 할 텐데 똑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똑 같은 공간에서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대상화되어 배타적 경쟁우위에 지식우위를 지시받고 있다. 아이들의 획일화 되어 가는 문화(생각)를 바꿀 필요를 느꼈다. 멀리가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색다른 기억을 만들 '꺼리'는 무엇이 있지? 고민에서 출발 한 것이 우리 지역의 거리를 관찰하고 느낌을 공유하는 '도시스케치' 프로그램이었다.

작은 예술가 '도시스케치' 캠프**작은 예술가, 도시에 서다**

2012. 07. 29 (일) 13:00 ~16:00

작은 예술가 친구들이 도시 속에서 현장 작업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그늘의 고마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자신과 연결된 삶의 조각들 찾아봅니다.

작은 예술가, 삶을 이야기하다.

2012. 07. 29 (일) 19:00 ~ 21:00

작은 예술가 친구들이 찾은 '도시의 삶'의 조각들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느낀 감정들과 현장을 연결하고 전시에 필요한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 안에서 평상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작은 예술가, 삶을 발견하다

2012. 07. 30 (월) 09:00 ~ 21:00

작은 예술가들은 자신이 선정한 도시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삶의 조각들을 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 둘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은 예술가, 삶을 공유하다.

2012. 07. 31 (화) 09:00~11:00

작은 예술가 친구들이 찾은 '도시의 삶' 들을 전시하는 작업을 합니다.
도시에서 내가 느낀 감정들을 타인과 공유 합니다.
그 과정은 예술적 자아를 향한 조용한 움직임이자 문화적 감성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큰 불을 지피려면 작은 불부터 지펴라.

다리가 되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스스로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내 등을 타고 어깨를 밟고
강을 건너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꿈속에서 나는 늘 서럽다
왜 스스로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만 건네주는 것일까
깨고 나면 나는 더 억울해 지지만

이윽고 꿈에서나마 선선히
다리가 되어주지 못한 일이 서글퍼진다

- 신경림 교수의 '다리' -

익숙한 습관이 지배하는 의식체계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움을 경계한다. 무의식 속에서 빠르게 손익계산을 하고 있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다보니 검증된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 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곤 한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떠오른다. 세상 밖을 구경했던 죄수가 다시 동굴로 돌아와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들에 대해 다른 죄수들에게 이야기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자고 하지만 동굴 안 죄수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 진다. 동굴 안 죄수들은 세상구경

을 하고 온 죄수를 화형시키고 나서야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흄의 경험론이 무참하게 사라지는 순간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리게 한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도시 스케치' 캠프는 어찌 보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문화원의 도전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에서 대상과 프로그램에 대한 폭을 확장 시키고 참가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아이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단지 2박3일이라는 색다른 캠프에 참석 한 것을 넘어 지금도 누군가하고 그 거리에서 지난여름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당초 의도처럼 아이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문화와 연결시키려는 큰 불이 피지는 못하였지만 문화원의 노력으로 작은 불은 지폈다고 본다.

그 작은 불을 지피기 위해
'꿈속에서 나는 늘 서럽다'



2012 ‘작은 예술가’에 대하여

청소년방학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강사
김명희

2012년 여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무척이나 더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며칠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조함과 살이 타 들어 갈 듯 한 햇빛은 연일 최고치 온도를 기록하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작은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도시를 넘나들며 더위와의 한판승부를 경험하였다. 즐거우면서도 힘겨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몇 해를 ‘작은 예술가’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많은 것들은 무어라 한마디로 표현 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때론 어렵고, 때론 이해가 되지 않으며, 때론 드넓은 바다위에 떠 있는 놀단배 신세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작은 예술가’는 진정 내게 무엇인지 끝도 없는 의문과 회의 속에 그 과정을 거치곤 한다. 그만큼 나에게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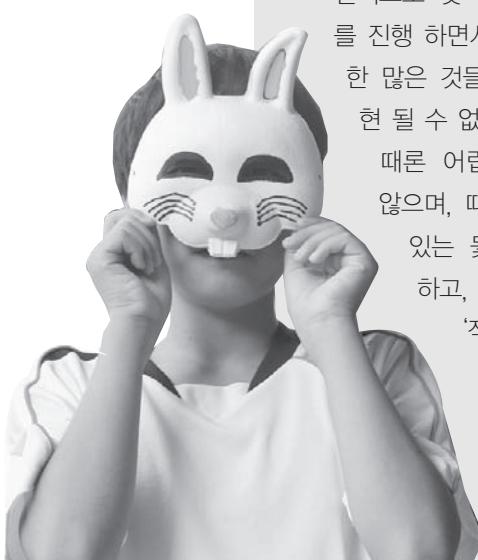
어 ‘작은 예술가’ 캠프는 특별하면서도 삶에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

몇 년 전 처음 만났던 ‘작은 예술가’들은 느낌부터 달랐다.

거친 듯 하면서 연약하고,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가진 반면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했던 대화에서는 입을 다문 채 마음의 벽을 쉽게 허물려 하지 않으면서도 소소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말 그대로 당차고 어디로 틀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었다.

이런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계한 계기가 지금의 지역 아동 센터가 생기던 바로 그 시점 정부의 예산과 관리 체계를 거부하며 지역에 뜻 있는 활동가들은 아이들만의 공간을 공부방으로 남기를 선언하며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 할 수 있는 진정한 인권운동으로서의 시작을 모색하였다. 전국 각지에 있던 작은 공부방들이 연합하여 공공 문화예술단체와 결합, 그들 스스로가 만드는 문화예술의 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특성, 그들만의 감성과 자유를 공유 할 수 있는 엄밀히 짜여진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의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 우리는 스스로가 진정한 예술가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위에서와 같이 ‘작은 예술가’들은 거칠고 상처 받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느낌을 나누기란 나 같은 문화 소



외자 에겐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다. 당시 초등3학년 이었던 우리 아이와는 본의 아닌 남남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우리 아이 역시 띠 내지 않고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 못하고 오로지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불러준 것에 고마울 따름이다. 혹여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작업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작은 예술가는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배려하고 관찰하며 폐교로, 엄청 큰 실외 수영장이 있는 성당으로, 우리나라 정 남쪽인 정남진의 어느 숲속 마을 까지 전국을 누비며 전국에 공부방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 하였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자연과 도시에서 '작은 예술가'들을 만났다.

예전에 비해 인원도 작고 진행해 주실 선생님들도 줄었지만 프로그램에 담으려는 메시지는 여전히 존재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주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예전에 그 예술가들이 아님이 분명하다. 물론 동일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많이 변하였다. 생각하는 방법도 익히 잘 알고 그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서툴지 않다. 거칠지도 않고 언변도 좋아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있어 느낌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은 서툴다.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님에도 목표가 없으면 동기 부여가 힘들고 댓가가 없으면 과정보다는 결론에 만족해하는 아이들의 정서.

과거를 들먹이고 추억을 회상하며 현재를 비

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우리의 아이들에 마음의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습관은 문화를 일컬기도 하거니와 그 습관은 오늘에서만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이들은 그 환경과 사회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예술가 스스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익히며 마지막 순간을 눈물로서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것은 감동이고 감성이며 진정한 나눔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음의 습관은 예전에서 지금으로 또다시 내일로 이어져야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탄생될 수 있으리라.

지금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예술가를 표현하려 했을까?

그들이 놓여 있는 환경과 사회적 역할을 나는 얼마나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였는가?

나는 캠프를 마친 지금 내 스스로에게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더위에 지쳐 편의점에 들러 슬러시를 마시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는 아이들, 단 3일 과자와 음료와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방식. 물론 과자를 가져온 아이들도 많았지만 말이다. 둑근 달이 떠 있고 옛 한옥집 앞마당에서 원피스와 만화 캐릭터 잠옷을 입고 새벽 까지 뛰어 노는 등의 아이들의 모습은 내게 있어 신선향과 괴리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였다. 모두가 더위와 싸우느라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작업이었다. 봉사활동을 한 플레이 리더 선생님들 역시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작은 예술가 캠프

자 박
원 수
봉 연
사 자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들과 인제 냇강 마을로 가서 2박3일 동안 자연 속에서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케치 캠프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이들에겐 스텝선생님으로 다가가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처음에 강당에서 만난 아이들은 다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같이 버스를 타고 산골 깊은 인제로 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첫날에 8명 아이들과 깃발도 만들고 모둠이름과 모둠구호를 만들면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같이 친해지는 과정에 혼자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어색해 하는 아이도 있어서 같이 활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을 다뤄보진 못한 나로선 처음에 아이들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아이들에게 미안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친해졌음 해서 비누방울도 같이 불고 아이들이 잡아온 개구리 보면서 겁먹긴 했지만 정말 자연

과 하나 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남자애들이 잡아온 개구리를 여자애들도 처음엔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신기한지 서로 만져보고 싶다고 같이 만져도 보고 개구리도 같이 잡는 모습이 자연속에 들어가는 아이들 모습이어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전 파충류도 곤충도 싫어해서 아이들이 개구리나 곤충을 잡아오면 처음엔 가까이 오지말라고 경계했는데 차츰 지나자 저도 개구리 한번 만져보고 싶어져서 아이들이랑 개구리 만지면서 친해졌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자연을 알려주고 자연과 하나되는 길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저 또한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과 하나되는 방법을 오히려 배워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특히 벌이 많았는데 한 여자아이가 벌에 쏘이는데도 울지도 않고 꾹 참는데 그 친구가 생태학교 다니는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태학교 2기 졸업생으로 초등학교에서 학생 인성교육을 배우는게 아니라 자연에서도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버금가지 않는 인성교육을 시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벌레들이 많아졌는데 아이들이랑 별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벌레들과 좀 다르게 생긴 벌레가 보여서 치우려고 했는데 푸름이란 아이가 반딧불이라고 치우지 말라고 하는데 책이랑 티비에서 보던 불 빛나는 반딧불이도 아닌데 실

제로 보니 신기한듯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알려주는데 도시 속에 자연과 동떨어져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곤충도 좋아하는 친구들이여서 웬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아이들에게 감동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여도 잘 안하고 혼자 놀던 친구들도 점점 마음을 열면서 제가 물건 옮기거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절 도와주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극 준비할 때도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던져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다른 팀보다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집중하고 서로 페이스를 맞춰주면서 연습하니 동극도 무리없이 잘된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아이들 앞에서 음정 박

자 다 틀리는 노래와 곰세마리 노래에 맞춰서 아무렇게 춘 막춤도 아이들이 웃어주니 창피하고 앞에 서기 난감했지만 아이들이 웃어주고 피곤해하던 모습보다 웃어주니 더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을 쌓고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외우고 같이 웃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평생 잊을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봉사시간을 받기위해 한 봉사보다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교감하고 저 또한 자연과 더불어 지는걸 느낄 수 있어서 제가 해왔던 봉사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캠페인이나 캠프보다 더 참여하길 잘했다는 뿌듯함도 더 느끼고 아이들과 정이 들어서 친구들 얼굴하나하나 오래 기억될것 같습니다.



자연스케치, 여름아이들

자신
원봉
소영
자

2012년 여름, 마흔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해 단번에

수긍하여 참여한 2박3일간의 보조교사였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되니 떨려서 어쩔 줄을 모르던 제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보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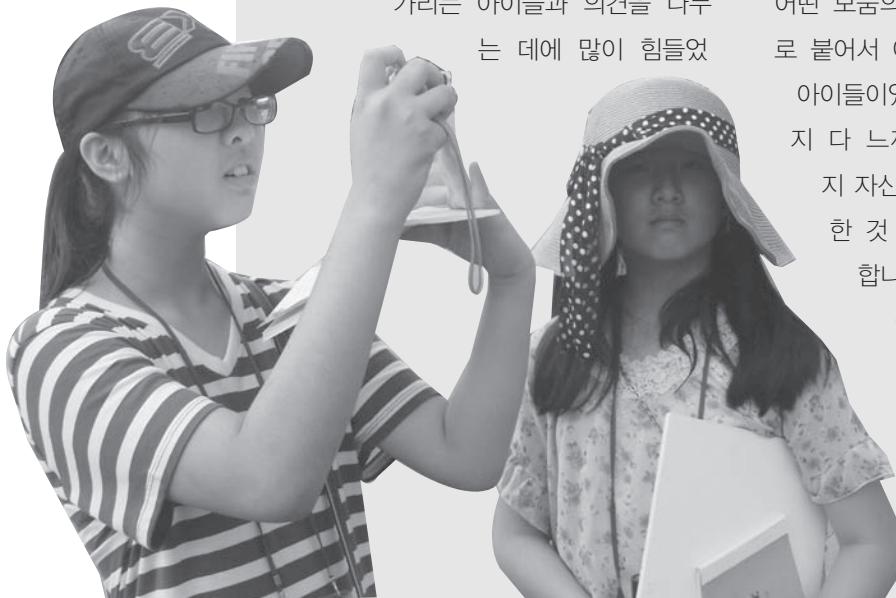
모두가 그렇듯 첫 만남은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해서 부끄러워하고 낯 가리는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는 데에 많이 힘들었

지만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호흡하니 훨씬 다가가기가 쉬워졌습니다.

학생인지라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기에는 아직은 이른 나이라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맑은 목소리로 매번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어찌나 자랑스러워지던지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활동에 대해 설명해줄 때 빤히 쳐다봐주던 열두개의 눈망울들이 기억에 특히 진하게 남습니다.

정말 특별했던 우리 5조 에어콘 모둠 아이들. 동하부터 제용이, 은범이, 세빈이, 선민이, 성우, 세홍이까지. 처음에는 낯도 많이 가렸고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활동의 끝에 가서는 다른 어떤 모둠의 아이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불어서 아무지게 활동을 끝내놓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든지 다 느끼셨겠지만 어떤 활동이든지 자신의 모둠 아이들이 가장 잘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듯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눈을 하나하나 마주쳐주면서 “얘들아 우리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했어”하고 칭찬



해주면 다들 기분좋아하는 표정을 얼굴 만면에 띠고서 “진짜 우리가 제일 잘했어요! 옆 모둠보다 우리 짓발이 더 예뻐요!”하고 맞장구쳐주며 좋아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나오는 선생님의 이미지처럼 한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아이들과 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래친구처럼 티격태격하면서 정이 든 아이들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짓궂은 장난을 곧잘 걸어오곤 했는데 그러면서도 선생님을 위해주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기도 해서 많이 흐뭇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바쁜 상황에 서서 불편한 자세로 글씨를 쓰고 있을 때는 “선생님 다리 아픈데 앉아서하세요~” 걱정하는 예쁜 말을 해주기도 하고 활동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자진으로 붓을 씻어와주기도 하고 유독 제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우는 같은 모둠 아이에게는 선생님 속 썩이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는 아이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만나기전에 한 걸음 앞서 겁부터 집어먹고 사람을 만나는 경향이 있는데 2박 3일간 그 많은 아이들은 정말 투명한 유리창처럼 사랑을 주는 만큼 따라주어 새로운 대인관계



의 시작을 앞두고 들었던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배운 선생님으로써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하는 입장인데 선생님인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합니다.

캠프 첫날에는 2박 3일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그 많은 활동들을 어느새 다 끝냈는지 마지막 날이 너무도 빨리 다가온

느낌 탓에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다시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뻤고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아이들 생각에 빠지다 보면 못해주었던 말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먹어도 받아놓은 주소가 없어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 느낀 점이 많은 만큼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도 앞으로 많이 남은 미래를 살아갈 때에 올 여름의 이 기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랑호 한 길에서 가을을 즐ぐ다

영랑호풀꽃학교
문화예술교육강사
이희진

작년, 아는 분의 권유로 지역문화를 고민하는 자리에 참석, 눈팅을 하면서 속초문화원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가 ‘문화’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고민하고 이해해 가던 내가 올해 스クリ너로, 보조교사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진행한 ‘영랑호풀꽃학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란 고민을 먼저 시작했다. 여름방학에 진행했던 ‘놀면서 배우는 속초문화’라는 프로그램에서 미흡했던 부분, 좋았던 부분을 상기하던 중 이번엔 영랑호라는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누군가 의견을 던졌고, ‘그럼 어떻게 즐길까?’라고 우린 다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영랑호를 걸어보자. 그냥 걷는 것보다는 영랑호 주변을 둘러보며 호수도 쳐다보고, 나무나 꽃도 쳐다보고, 만져도 보자. 영랑호 전체를 여러 번에 나누어 걸으면서 부분을 살펴보고, 부분들을 모아 전체 그림도 그려보자. 이렇게 대강을 스케치를 한 후 오성란 선생님과 자주 만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살펴보고 만져본 자연물을 그려 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글도 써 보는 것은 어떨까?” “때론 활동들을 담은 사진을 찍어 영랑호 풀꽃도감의 한 부분을 꾸며 보고, 자신이 그린 자연물을 퍼즐판으로 만들어 퍼즐 맞추기 게임도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시 백일장도 열고, 상품도 주는 거야. 처음에 만나면 서로 어색하겠지?” “게임을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떨까?” “음... 꼬인 손 풀기 게임이나 자연물의 이름을 가지고 애칭을 지어 부른다면 좀 더 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은 처음이었던 우리들은 자꾸 이론적으로 되어 가려는 생각들을 경계해가며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더 나아가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등을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만히 보기, 들여다보기, 자세히 보기, 만들어보기, 표현해보기, 완성해보기라는 작은 주제들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막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니 예상했던 인원들이 모이지 않았다. 이미 많은 곳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날, 눈이 초롱초롱한 친구들이 모였다. 그 중 세 명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같이했던 친구들이라 더 반가웠다. 문화원 마당을 나와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는 나무를 쳐다보며 ‘예쁘게 물들었네!’하고 감탄도 하고, 걸어가는 도중 만난 보라색 나팔꽃이 모두 몇 송이일까 내기도 했다. 누런 호박의 크기에 놀라기도 했고, 어디까지 걸어야 해요? 라는 투덜거림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간 곳은 영랑호 범바위 뒤쪽 한적한 곳이었다.

꼬인 손 풀기 게임을 하며 서로를 익히기 시작했다. 손을 마주 잡아 체온을 느끼고, 서로 다른 키와 팔 길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배려 또한 배울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늦가을 햇살에 익은 두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서로의 웃음에 가슴이 훈훈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에 드는 나뭇잎에 애칭을 적고, 그 애칭을 정하게 된 이유도 돌아가며 들었다. 자연을 하나를 정해 말은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도 했다. 참가한 친구들도 진행하는 선생님들

도 자연 속에서는 마냥 아이들처럼 웃느라 정신들이 없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 뒤 단풍이 한층 더 진해진 앞마당에서 또 만났다. 이번엔 고등학교 자원봉사자 두 명이 함께 했다. 오늘의 미션은 자세히 살펴보고, 만져보고, 그려보고, 사진 찍기였다. 맛난 음식을 먹으러 가는 통통한 송충이의 태를 감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쓰다듬어 보기도 했다. 보랏빛 쑥부쟁이를 무릎 구부려 만나보고, 노란 산국은 향을 맡아 보기도 했다. 안죽시비의 글도 읽어보고, 떨어진 빨간 나뭇잎을 닦아가는 거미의 자태에 감탄도 했다. 갈대와 억새를 비교해 보고, 솜처럼 폭신폭신한 이름 모를 꽃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3번의 외출에서 얻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퍼즐판을 만들었다. 솔방울이 몇 갈래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우연히 가지고 있던 색색의 매니큐어로 표시해 가며 자연에 담긴 비밀을 알아내기도 했다. 늦가을에 시작하는 바람에 처음 생각했던 대로 풀꽃도감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 느끼게 된

것들을 모아 북아트로 표현했다.



개인사진첩을 일일이 한 장 한 장 만들고 붙이고, 그 안을 꾸며 가면서, 지나가면 기억 속에 만 남아 있을 시간들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한번 느낌을 되살려 글로 표현했다. 완성된 북아트 사진첩과 퍼즐판, 자신들이 그 동안 썼던 글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 속에서 장현이는 “선생님 또 볼 수 있죠?” 라며 씩~ 웃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 아쉬움이 남는다. 중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어 명의 친구들과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움,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져 생각한 만큼 자연을 즐기지 못했다는 점. 그 중 가장 아쉬운 점은 맘껏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문화 대부분이 놀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호이징가가 말하는 놀이의 중요한 특징-자

유스러운 것, 실제의 삶을 벗어나서 아주 자유스러운 일시적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장소와 지속성에 의해 일상적인 삶과는 구분된다는 것- 중 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충족한 듯해 나름 뿌듯한 감도 없진 않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씩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넉넉한 자연을 닮아가는 친구들의 모습들은 “특수상황 속에서 함께 있다는 감정,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공유한다는 감정은 개인의 놀이가 계속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그 마력을 간직하고 있다.”(『호모 루덴스』)는 J. 호이징아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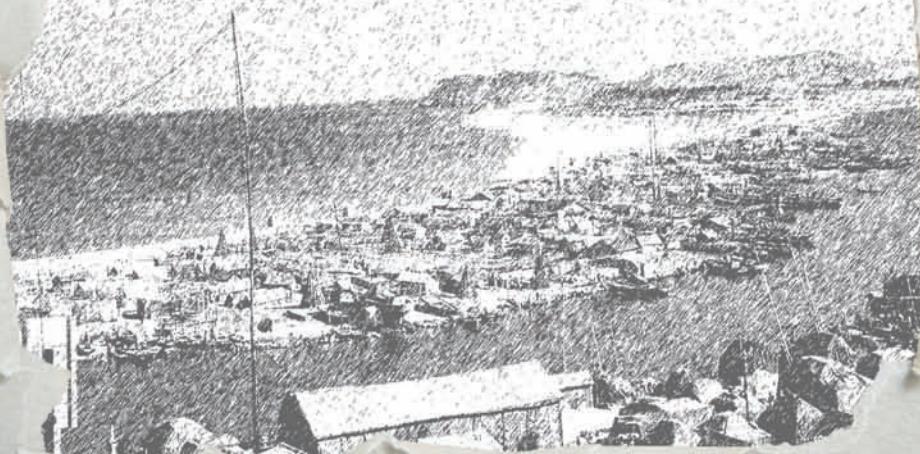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려 보며 애칭을 가만히 불러본다. 개미, 장미, 산국, 소나무, 흰구름, 흥시, 넝쿨손, 나팔꽃, 잠자리 등등.



우리지역 옛이야기_[중앙시장](#)

사진으로 바라 본
중앙시장 옛이야기

이수영
설악신문
프리랜서
기자



속초관광수산시장 사람들

닭전골목

순대국골목

포목점

건어물골목

“어시장이 그 한복판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극장 을 비롯해 간장공장이나 방앗간 따위가 그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엔 문구점이나 잡화 가게 따위가 늘어서 있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순대국집도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 저쪽 귀퉁이 한 골목엔 떡 장사 아주머니들도 나와 있었다. 어린 시절엔 그 떡 골목을, 청년시절엔 그 순대국 골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얼마나 고통 스러워했던가.(중략)

닭장 안에서 아무 닭이고 한 마리 꺼내 즉석에서 잡아 주던 닭집들, 그 소란을 뚫고 지나면 느닷없이 고요한 별천지가 펼쳐지니 그곳이 바로 포목점 골목. 찬바람 부는 날이면 더욱, 포목점 난로 앞에 앉은 여주인이 고高地 보인다. 만화방은 또 어떠했는가. 그때 그곳에서 동전 몇 푼주고 보던 TV판투증계보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해낼 수 없다.”

(설악신문 678호 ‘극작가 최재도의 설악의 삶과 문학, 그 속으로’ 중에서)

전부터 있어 내려옴을 뜻하는 재래(在來)는 지금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이미 기존의 푸근함, 정겨움, 구수한 입담과 걸쭉한 수작 등 사람냄새를 대신해 젊은 상인들의 컴퓨터 마케팅이 이미 점령했다. 상인들간 연대보다 경쟁이 우선하는 것 같다.

■■■ 닭전골목 사람들

요즘 속초관광수산시장의 대세는 닭 강정이다. 그 옛날 중앙시장의 실개천을 따라 형성된 닭전골목의 역사만도 벌써 60년에 가깝다. 닭전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 '속초 닭 강정'이다. 지난 53년 논과 웅덩이를 메워 형성된 이곳 시장에서 처음 닭집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개업 60년째란다. 임선중(74세로 작고), 송명례(83) 부부가 1남6녀를 공부시킨 가업이었다. 송명례님은 대포초등학교 19회 졸업생으로 원산여고로 유학한 인텔리였다. 동해북부선 열차를 타고 원산을 오간 몇 되지 않은 신여성이었지만 닭집의 안주인 운명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이편한 아파트 자리에 양계장과 도계장을 만들어 공동으로 원자재를 공급한 시절이 좋았어. 모두들 친형제처럼 지낼 만큼 우의가 깊었으니까. 그땐 생닭의 털을 뽑아 팔았지. 그 후 닭튀김(후라이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닭 강정 메뉴가 개발된 것은 아마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야.”

송명례님의 증언이다. 몸이 불편해 4년 전부터 넷째딸인 임진화씨(48)가 대를 이어 '속초 닭 강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9년 개업한 '삼화 닭 강정'이 있다. 박봉갑 할머니(86)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1남3녀를 오롯이 키워낸 닭집이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 지난 99년부터 장녀인 이동네 토박이 윤명숙씨(57)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고 3대인 손자가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북청 닭 강정’은 북청사자놀음의 사자 뒤채였던 오동술옹(작고)이 고향 북청을 그리워하며 부인 장재삼님(80)과 7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 73년부터 이곳에서 시작한 닭집이다. 고 오동술옹은 기 예능보유자인 사자 앞채 김수석옹(작고)과 함께 북청사자놀음의 핵심멤버였다고 한다. 고 오동술옹은 1·4후퇴 때 고향 북청을 떠나 피란길에 육군에 자원입대한 후 김포비행장 경비대대에서 상사로 제대하고 속초에 정착, 시장 부근에서 콩나물공장을 하다 실패한 뒤 73년에 생닭집을 시작했다고 1남6녀의 아들 조광수씨(52·속고26회·속초고등학교 연구부장)가 증언한다.

“제가 속초고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새벽마다 모래기(장사동), 청대리 등지에 있는 양계장에서 닭을 가져와 영업 준비를 한 뒤 등교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죠.”

57년생 닭띠인 큰누나가 가업을 물려받아 튀김닭(통닭)을 했고 그 후 변질을 막기 위해 튀김닭에 물엿 등을 첨가해 판매하다 각종 양념을 첨가해 만든 닭강정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동생이 닭과 관련한 유통전문업체인 ‘총각네’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현대홈쇼핑과 계약을 맺어 닭강정을 시판할 예정이라고 조광수씨가 귀띔했다. 닭전골목에서 벗어나 속초농협 중앙지점 옆에 위치한 ‘총주닭집’도 올해 36년 됐다고 한다. 서동찬(77), 이정자(71) 부부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1세대 닭집인 셈이다. 남편 고향인 충주에서 속초로 오게 된 사연도 기구하지만 그 어려웠던 70년대 속초에 정착하려고 고생한 이야기를 이정자님이 스스로 없이 풀어놓는다.

“아저씨가 그 당시 쌍다리 제방 쌓기 등 중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저도 어린 아이를 들쳐 입고 시장에서 닦치는 대로 장사를 했지요. 우연한 기회로 속초농협에서 소, 닭, 돼지를 키우는 작목반에 아저씨가 들어가

일을 하게 됐는데 꼬박꼬박 월급이라는 게 나오니 정말 좋습디다. 당시 속초농협 부장으로 있던 최창영씨가 작목반을 없애야 한다며 닭털 뽑는 기계 등을 애아범에게 혈값에 넘겨주는 인연으로 닭전골목에서 자리를 잡았지. 그 당시엔 생닭을 판매할 때라 닭털을 손으로 뽑아 기계 덕을 많이 봤지. 추석 등 대목에는 지금의 만석처럼 대박이 났지. 나무로 만든 돈통에다 쌀자루 3개에 가득한 돈을 세려고 어린 자식들도 총동원돼 꼬박 3일이 지나도 다 세지 못할 정도였으니깐. 최창영의원이 우리의 은인이여.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 후라이드 치킨 시절엔 다른 집들도 고정 거래처가 많았지만 우린 HID, 한화콘도, 연호콘도, 설악동 여관 등지에서 주문을 많이 했지. 이젠 다 옛날이야기지. 콘도들은 서울 유통업체에서 물건 받고 대형마트 생기면서 군부대 고정거래처도 끊기고 설악동이 침체되니까 수학여행단 수요도 급감했어.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건 그 시절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형제처럼 지낸 일이야. 닭강정이 지금처럼 계속 번성하려면 정보도 나누고 우리 1세대들처럼 우의를 가져야 해. 대박은 한때의 운이라고 생각해.”

이 부부는 1남2녀를 반듯하게 키웠으니 가업을 물려줄 생각은 없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고 정리할 예정이란다.

“시장 풍경은 아련한 추억의 창고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래서 재래시장을 생활 속 타임머신이라고 했다.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재래시장이 떠나버린 자리는 필경 첨단과 디지털과 SNS가 채우겠지만, 우린 지독한 상실감에 시달릴 거다. 가까운 혈육을 먼 곳으로 보냈을 때처럼. 잊고 나서야 소중함을 절절히 느끼기보다는 지금 뭔가 행동하는 게 낫다. 그 첫걸음을 생활 속 실천으로, ‘마트 대신 시장가기’로 하면 어떨까.”



■■■ 순대국 골목 1세대들

가마솥 밖으로 철철 끓어오르는 뽀얀 순대국 한 그릇. 가벼운 주머니로도 입이 즐거운 행복한 삶의 공간. 그 옛날 젊가락 두드리던 방석집 노래자락에 취해 비틀거리던 우리네 아버지들이 해장하는 마지막 쉼터. 하루해를 정직한 노동으로 넘겼을 이웃에게서 물어나오던 그 향취들. 순대국은 이런 정신적 추억뿐 아니라 우리네 회귀본능이 아닐까.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있는 순대골목이 바로 그런 곳이다. 원래 중앙시장의 순대국 골목은 지금 중앙통로에서 전을 붙여 파는 가게 부근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부일집’과 인근에 ‘중앙 순대국집’이 위치했고 ‘부일집’ 맞은편에 ‘유일집’이 자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88년 중앙시장이 새로 건립되면서 ‘중앙 순대국집’은 지금의 순대국 골목으로 옮겼고 ‘부일집’은 지금의 닭전골목에 자리했다. 칼국수로 유명한 ‘도문집’도 당시 이 부근에 위치했다고. ‘장터 순대국집’의 원조인 ‘제일 순대국집’도 이 근처에서 영업을 하다 88년 이후 지금 골목으로 이전해왔다고 한다. ‘동해순대국집’은 88년 이전인 지난 83년부터 이미 지금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속초 순대국의 역사는 ‘중앙 순대국집’에서 출발한다. 올해로 40여년째란다. 역사의 산 증인은 김판연 할머니(82)다.

“남편(최학삼, 작고)이 강릉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천중학교로 발령이 나 핫김에 교직을 그만두고 꽁치장사를 하다 졸지에 망했어요. 장사경험도 없이 덤벼든 게 회근이었죠. 그런데 중 속초에서 여인숙을 하던 남편의 사촌누나가 여인숙 영업이 잘된다고 소개해 지난 63년 속초로 이주하게 됐죠. 당시 이기섭 박사가 하던 의원 근처에 있던 ‘경남여인숙’을 인수해 영업을 하면서 냉면집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영업이 잘되지 않아 망했죠. 낙담을 하던 차에 식육점을 하는 아저씨가 주인이 도망간 순대국집이 중앙시장에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 그 당시 150만원에 여인숙을 팔고 ‘중앙 순대국집’이란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새벽 4시~5시쯤 식당 문을 열었고 당시 종업원 월급이 8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올려줘 주위 식당으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단다. ‘장터 순대국집’ 할머니가 이 집에서 3년 동안 주방생활을 한 후 독립해서 ‘제일 순대국집’을 차리는 등 순대국집 1세대들도 인정하는 원조 중의 원조집이다. 어머니의 대를 이어 3남의 막내인 최철린씨(51·속초고 27회) 부부가 이 골목에서 벌써 21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 교동 먹거리촌에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한 ‘중앙 순대국집’ 분점을 내 직영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부산 해운대에서 살다 경남 의령군으로 시집갔다가 나이 34세에 온 ‘장터 순대국집’ 1세대 황성연 할머니(74)의 고생담도 만만치 않다. 정착초기 고성 하일라비치 농장에서 일하다 공설운동장 부근 과수원에서 돼지도 키우며 4년을 생활하다가 돼지파동이 나는 바람에 졸지에 망하고 중앙시장 안에 있던 ‘중앙 순대국집’ 주방에서 3년 동안 일하다 독립해 당시 상가 내에 있던 ‘도문집’ 근처에서 ‘제일 순대국집’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 때가 벌써 30여년 전이라고. 순대국 한 그릇에 1200원 하던 때란다. 그 후 지금의 순대국 골목으로 옮겨 ‘제일 순대국집’을 운영하다 집주인에게 밀려 인근 기름집을 인수해 ‘속초 순대국’이란 간판으로 영업을 이어갔다고. 3남3녀 중 장남이 서울에서 내려와 거진에서 5년 동안 순대국집을 하다 현재 ‘88순대국집’ 건물을 새로 지어 15년째 운영

하고 있단다. 주공2차에서 슈퍼를 하던 막내딸이 장터를 10년째 운영하는 등 2세들이 어머니의 가업을 이어받고 있다. ‘동해순대국집’은 원래 지금의 ‘평양순대국집’ 자리에서 지난 83년부터 출발했다. 지금의 자리로 옮긴지 벌써 10년째고 김수경(70), 박길녀(63) 부부가 순대국집을 운영한지 올해로 29년 째라고. 김수경씨는 양양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살았고 박길녀씨는 12살 때 고향 경북 영덕에서 속초로 이주해 줄곧 생활해왔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한때 속초 교동에서 17년 동안 구멍가게를 운영하다 망한 후 순대국집으로 눈길을 돌린 경우였다. 이전 ‘동해순대국집’ 아들 김태영씨(44·설악고 16회)가 부모에 이어 2대째 영업을 하고 있다. 사촌형이 부산점을 운영하고 있고 외삼촌(박현수·속초고25회)이 속초세무서 인근에 교동점을 하고 있다고.

“순대국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가족단위로 식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내부의 퀘적한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저희는 10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하는 편인데 지난 7월 내부를 새로 단장해 개업30주년 기념행사를 앞당겨 했죠.”

김태영씨의 전언이다. 예전엔 순대국의 제철이 가을과 겨울이었는데 요즘은 크게 바뀌어 7~8월 여름이 최대 성수기라고 한다. 여름매출이 다른 계절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순대국 골목에 비가림(캐노피) 시설이 돼있지 않는 이유를 묻자, 김씨는 “연탄화덕 때문에 녹이 쉽게 슬고 가스도 제때 빠지지 않는 우려 때문이다. 한 달 기준으로 연탄 연료비는 15만원에 비해 가스연료비는 10배인 200만원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경제적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 또 건물 주들의 자부담도 한 원인”이라며 “캐노피 시설예산 대신 주차장에서 순대국 골목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아바이 순대타운’이란 홍보용 전통 지주를 세웠다”고 귀띔. 이전 순대국 골목이 추억을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실내가 쾌적하지 않으면 순대국의 역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시대인가 보다. 순대국집 2세들의 자구노력이 눈물겹게 보이면서도 너무나도 가상하다.

■■■ 유서깊은 포목점, 금은방들

제일포목점 장칠석 할머니(77)가 말한다.

“유신포목, 중앙포목, 명신포목, 오달포목, 우리포목, 제일포목, 함흥포목, 황실주단, 덕신포목 등 상가 중심에 나란히 마주보고 영업하던 10여개 포목점들이 이젠 옛 영화를 뒤로 하고 대부분 없어지고 5개 포목점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포목점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품목변경도 어려운 나이고 후계자도 없으니 3년 후엔 지난날의 명성과 애환만 고스란히 남기고 정리해야겠지요.”

금신당 박명수 대표(61)도 거둔다.

“7~80년대만 해도 포목점과 금은방이 서로 연계해 예단과 예물을 소개해 준 호시절이 있었죠. 특히나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이 사는 우리 지역엔 현금보다 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예전부터 두드러져 호황을 이뤘지만 최근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본소설 ‘히다리 포목점’에 나오는 재봉틀과 관련한 표현은 이렇다. 발판 달린 재봉틀 하나 마루에 놓여 있다. 이른 햇살이 창 넓은 동쪽 집 마루 깊숙이 내려앉는다. 햇발 곧게 받은 재봉틀의 돌림바퀴가 투명하게 빛난다. 몸체를 받치는 테이블 위에는 자투리 꽂무늬 천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다. 순서에 맞게 더듬더듬 실을 펜 엄마는 돌림바퀴를 돌리는 것과 동시에 장방형의 폐달을 밟는다. 앞뒤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발판 위의 엄마 발. 그 옛날

어두운 재래시장을 환하게 밝혀준 게 화사한 한복골목이었다.

포목점 주인은 항상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풍토가 다른 집안끼리 대사를 이어주던 어머니들의 사랑방이었다. 예단이란 본래 신부가 시댁에 드리는 비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비단이 무척 귀했던 시절, 신부가 시집가는 집안에 비단을 선물함으로써 예와 정성을 표현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비단을 보내면 신부



가 직접 시부모의 옷을 곱게 바느질해 돌려보내고, 신랑 집에서는 수공비를 신부에게 보냈다고 한다. 올해로 40년째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일포목점 장칠석 할머니(77)는 경북 울진에서 2남4녀의 맏이로 태어나 양양으로 시집왔다. 지금 시누이 남편이 울진경찰서에 근무할 때 시누이가 중매를 섰다고. 서울 현병대에 근무하다 제대한 남편이 직업을 잡지 못해 결혼초기 아이를 들쳐 업고 당시 요정에 있던 기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떼 온 옷을 파는 보따리장수 생활을 10년 한 후 모은 돈으로 지금의 포목점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시장 내 포목점이 번성할 땐 결혼시즌에 이불뿐 아니라 한복도 식구대로 맞추곤 했다고. 꽤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이불마저 포목점에서 구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한복을 입는 일도 많이 줄었고 대부분 단골손님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단골손님들은 3대째 같은 집에 찾아온다고 자랑이다. 포목점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장할머니는 말한다.

“수산물이 나지 않고 대학생들이 주는 등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니까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살기 좋은 곳이란 명성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 해요. 젊은이들이 속초를 떠나니 타지에서 결혼을 하는 게 당연지사. 요즘 젊은이들이 예단과 예물을 거주지에서 하는 경향이 짙으니까 지역의 점포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애성을 갖고 이만큼 버텨왔는데 며느리들도 대를 잇지 않겠다고 해 나이도 들고 이쯤에서 자기 대에 접을 생각이라고 한다. 슬하에 아들 둘을 뒀는데 큰아들(김기호·55·속초고23회)은 서울에서 삼성화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작은 아들(김기병·51·속초고27회)은 영랑동새마을금고 2층에서 배트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22년째 포목점 골목을 지키고 있는 덕신포목점 황매자씨(58)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여성회장을 맡고 있다. 재봉 일을 하다 옛 명신포목자리였던 이곳에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포목점은 단골고객이 따로 있다고 한다. 밤집과 달라 주요 내수고객은 가족장사라고 한다. 고성, 인제,

원통, 심지어 양양의 경우 하조대에서도 우리 시장을 찾는다고 귀띔한다. 포목점이 사양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혼수철엔 하루 최고 800만원까지도 매상을 올리니 비관적이진 않다고. 지난 97년 IMF 이후 중앙시장이 죽기 시작해 대형마트들이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살아나 보람을 느낀다는 황씨는 정작 자기 일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옛 모습으로 돌리는 것만이 복원은 아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간직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전통시장의 근본이라면 자신도 조심스레 한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고 한다. 한복은 고정고객이 많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며느리가 며느리를 얻을 때 다시 찾아온다. 지인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아직은 계획단계라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곤란하지만 불거리 제공차원에서 포목점 골목 정중앙에 왕과 왕비의상을 재단해 만들어 걸어놓고 관광객 체험거리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을 만들어 볼 생각이란다. 매일 이불과 다른 물건들을 안팎으로 내놓고 들이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포목점 주인들의 부지런함이 부활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물은 서로가 하나됨을 연약하는 증표로써 신랑 신부가 교환하는 결혼반지나 시계 등이 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어귀에 위치한 귀금속 전문점 문천당(방서호·57·속초중 21회)은 올해로 개업 60주년인 유서 깊은 곳이다. 방대표의 부친인 고 방태형 장로는 함경남도 문천군 출신으로 1951년 속초에 정착해 그 당시 영랑시장에서 시계 수리공으로 일했다. 지난 52년 ‘문천당’ 이란 상호로 시내 중심지에 정식 가게를 내 지난 88년 돌아가시기까지 27년간 생업에 몸담아 왔다. 방대표는 그 후부터 지금껏 부친의 가업을 잊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방대표는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살아야 한다.’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속초시에 애향장학금 5천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속초에서 전통을 잇는 또 하나의 귀금속 전문점인 금신쥬얼리(박명수·61·속초고 17회)도 올해 개업 62주년이다.



지난 50년 5월18일 지금의 국민은행 속초점 자리에서 부친인 고 박상선옹이 개업한 이후 전쟁 때를 빼곤 줄곧 영업을 해온 토박이라고 한다. 박대표가 지난 71년에 가업을 이어받아 지난 73년 지금의 자리에서 43년째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지난 70~80년대에는 포목점과 금은방들이 서로 고객을 소개해 주곤 했다고 한다. 예물과 예단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란다. 특히 명태바리 갔다 온 후 회계를 본 뒤 어부들이 즉석에서 금반지를 쳐서 끼곤 했는

데 그 시절이 호황이었다고 추억한다. 우리 지역은 유독 청호동 실향민을 포함해 전쟁을 몸소 겪은 분들이 많아 현금보다는 금 소유를 선호해 순금에 대한 수요가 대단했다고. 인제 용대리와 원통에서도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요즘 금시세가 1돈쭝(3.75g)에 27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약6배 정도 뛰어 소비자들이 돌반지 구매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추세라고 한다. 예물도 실속형으로 하고 부모가 소지하고 있던 금을 재가공해 사용하는 집들도 있다고 한다.

■■■ 건어물 골목의 영육

속초관광수산시장 초입에서 설악슈퍼 뒤로 이어진 건어물 골목은 옛 영화를 잊은 듯 이젠 대부분의 점포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고 금천상회, 경상도상회, 영하상회 3개 건어물 상회만 명맥을 잇고 있다. 대형 주차장 맞은편, 시장 1층 통로, 중앙가로, 지하1층 등 건어물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딱히 건어물골목이라고 특징지을 수도 없게 됐지만 그래도 지난 50년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속초의 명물, 건어물의 역사를 한번쯤 되짚어볼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에 나오는 사진들 중 유독 오징어 건조사진과 건오징어 집하장면이 많다. 그만큼 60~70년대 당시엔 속초가 전국에서 유명한 건어물 생산지요, 집산지였다. 당시 수협공판장에서 입찰이 끝난 건오징어는 리어카 상인들에 의해 중앙시장 건어물 골목으로 이동했고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 재래시장 큰손들이 건어물상점 주인들과 가격홍정을 하는 도매기능도 했다고 한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상점마다 가게 앞에 마대종이를 깔고 다리를 위로 건오징어를 세워놓았다. 건어물상회 천정에 건어물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모습, 가을 단풍철엔 속초건어물을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던 바로 그 골목이었다. 속초오징어가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당시 국내 최대 오징어건조지였던 청호동 사람들 때문이었지 싶다. 실향민들의 건조 손맛이 남달라 지금도 건조장의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91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0년대부터 대도시 상인들의 위탁을 받아 장사 하던 곳은 흥성상회(양성식), 경상도상회(신종호), 금강상회, 황신상회 등이었다고 한다. 삼우상회(양원식), 백림상회(최진남) 등 많은 건어물상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의 상회들이 생겼다. 속초사람들만이 안다는 배오징어는 잡은 즉시 배 위에서 말린 것이고 앞바다오징어는 밤에 잡은 것을 아침까지 항구로 수송해 말린 것이다. 빙(氷)장치 오징어는 얼음을 쳐서 보관했다가 말린 것을 말하며 급랭 오징어는 얼려서 보관했다가 말린 것이다.

경상도 상회는 지난 65년부터 지금까지 2대에 걸쳐 47년째 건어물골목을 지키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어물 점포다. 작고한 아버지(신종호)로부터 지난 86년 가업을 이어받아 올해로 26년째 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출씨(60). 원래 상호는 관동상회였는데 오래전에 경상도 상회로 바꾼 이유는 고향이 부산이었기 때문이라고. 2남4녀의 둘째인 그는 다섯째인 남동생(신영수·속초고25회)과 막내인 여동생만 속초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70~80년 대만 해도 건어물골목이 관광객들로 북적여 호황을 누렸지만 이젠 대부분이 떠나고 다른 업종들이 점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골목의 명성은 이제 옛이야기”라며 “아마 시장 부근을 포함해서 건어물가게

들이 100여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많이 오는데 점포들이 많이 늘어 장사는 오히려 예전만 못해요. 그래도 전국 시장에 납품을 하는 등 오랜 거래처들과 아직도 도매기능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말하는 신영출씨는 요즘은 오징어건조기법이 발달해 날씨가 좋지 않을 땐 기계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물량 공급엔 차질이 없다고 한다. 영하상회는 지난 65년부터 작고한 부친(심홍수)이 운영해오다 지난 85년부터 2남3녀의 셋째인 심영호씨(55·속초고23회)가 물려받아 28년째 가업을 이끌고 있다.

“부친이 강원도 통천출신으로 한국전쟁 통에 피난 내려와 속초에 정착,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다 연로 하셔서 어린 제게 물려주시는 바람에 고등학교 졸



업하고 군 제대 후 속초에 주저앉아 지금껏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심영호씨는

“제형(심영성·속초고20회)이 고려대 행정학과를 수석 합격했다는 플래카드가 당시 곳곳에 나붙자 제가 오히려 교사들로부터 친동생이란 이유로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형편상 형은 사립대학교에 진학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양대 법대를 4년 전액 특전 장학생으로 입학한 16명 중의 한명이 됐지요. 사법고시 공부를 했지만 형만이 유일하게 합격하지 못하고 일반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다 얼마 전 퇴직했어요.”

라고 귀띔한다. 심씨는 20대 후반 3억대의 사기를 당해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사람과의 신망을 잃지 않기 위해 도망보다 당당히 정면 돌파를 했다고. 청호동 건조장에서 받는 물건값은 벌어서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결국 10년 고박 부채를 갚는데 힘을 쓴았다고. 그는 중앙새마을금고 부이사장 4년에 감사를 10여년 역임했고 현재 속초담배판매인조합 조합장이라고 한다. 지난 75년부터 중앙가로에 자리 잡고 있는 38년 명성의 명신상회(현재 동해안젓갈)는 지난 92년 5월부터 4남 중 둘째인 백영철 이사장(중앙새마을금고)이 부친(백기현·93)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건어물상회 1세대인 백기현옹은 황해도 장연군 후남면 곡정리에서 태어나 15세까지 서당을 다니다 16세에 사립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학업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17세부터 벽성군 가좌면 취아리에서 살다가 지난 50년 12월 26일 31세에 피란 나와 1·4후퇴를 인천에서 맞았다고 한다. 인천 부둣가에서 기름통을 나르다가 충남 장항에 정착, 장사를 하다 부도를 내고 청산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았지만 마음속엔 빚을 안고 지난 62년 속초에 왔다고. 당시 서울에서 장사를 하던 고향친구가 양말을 외상으로 사줘 속초에서 3년 정도 행상을 하다 이마저도 실패하고 중앙새마을금고 근처에서 고추 장사를 약 9년 정도 하다 중앙가로로 와 건어물상회인 지금의 명신상회를 지난 75년부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백기현옹은 중앙새마을금고 회원번호가 66번일 정도로 초창기 마을금고 멤버다. 이사를 23년 동안 역임하기도 했다고. 지난 74년 자본금 2만7천원으로 시작한 중앙새마을금고는 초대 이사장인 최찬집(당시 동해고무)과 이상호 상무(초대 명예이사장) 등이 무임금으로 지금의 회원 2만명에 자본금 1200억원의 중앙새마을금고를 키운 밑돌을 놓은 것이라고 한다. 조만희, 김연진도 금고발전을 위해 고생했다고. 속초관광수산시장의 부침(浮沈)은 상인의 역사이고 중앙새마을금고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백기현옹은 강조했다.

당시 중앙가로에도 건어물상회가 20~30개 있었는데 지금은 1/10만 남았고 건어물상도 이북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백기현옹은 “속초항에서 만선돼 돌아오는 배의 위풍당당한 자태를 가슴 설레며 봤던 그 옛날을 잊지 못한다. 만선은 배에 더 이상 고기를 실을 데가 없어서 돌아오는 것이다.”고 말한 지난 91년 인터뷰기사가 지금 재현되길 바라는 듯하다.

2012 속초문화예술 해적이

January

1 월

■ 김귀선, 김일태 자랑스런 연극인상 수상

201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연극인의 밤 및 대한민국 연극대상' 시상식에서 김귀선 (사)한국연극협회 강원지회장과 김일태 속초지회 이사가 한국연극협회의 2011년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을 받았다. 속초 출신 이슬비씨(극단 굴렁쇠)는 '대한민국 연극대상 여자신인상'을 수상했다.

■ 속초예술11호 발간

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가 '속초예술' 1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속초예술'에는 박목월 시 연구 '목월 시와 향기'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 비교(권정남)를 비롯해 예술논단 '이성선의 시 작품에 나타난 거문고 사상' (임수철), 국악논단 '상여소리를 통해 본 전통적 사회의 저승관 연구' (김청익) 등이 실렸다.

■ 박명자 시인 조연현문학상 수상

2011년 12월 28일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글문인협회가 주최한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7대 문학상 시상식에서 속초문화원의 창립 회원인 박명자 시인이 제30회 조연현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지난해 폐낸 그의 12번째 시집 《떠도는 나무》.

'2012 속초문화예술 해적이'는 설악신문의 문화면을 요약하여 지난 1년간 속초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속초문화원 365'와 함께 지역문화예술계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악문화제 도 지역축제 '우수' 선정

강원도가 올해부터 경쟁력 있는 축제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속초 설악문화제가 도 지역축제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 속초시립박물관 '설날 민속체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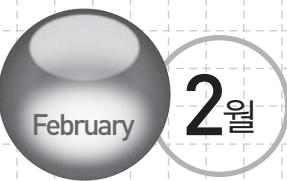
속초시립박물관이 민족 명절 설을 맞아 '설날 민속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1월 23일(설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과 실학민문화촌에서 열리는 설날 민속체험 행사는 한 해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조리 달기'를 비롯해 '복청사자탈 만들기 체험', '가족과 함께 연 만들기', '제기 만들고 차기', '야광귀 쫓기', '지게체험', '민속놀이' (윷놀이 · 널뛰기)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진행된다.

■ 두근두근 문화마루서 보낸 2년

속초문화원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성과자료집 '두근두근 문화마루에서 보낸 2년'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세부 교육프로그램 안내, 연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개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이에 따른 해결과제, 사업 참가자들의 소감, 향후 전망 등도 함께 수록됐다.

■ 대포초교 겨울방학 국악캠프 '얼쑤'

대포초등학교(교장 민병호)가 겨울방학을 맞아 속초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 꽃 씨앗학교 겨울방학 국악 캠프'를 열었다. 1월 9~13일까지 대포초교에서 진행된 국악캠프에는 대포초교 재학생과 졸업생, 속초지역 초등 학생 등 80명이 참여해 국악관현악 연습과 합주 및 타악 퍼포먼스 등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2시에는 작은 발표회도 열었다.



■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자료 모아요”

속초시립박물관이 내년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속초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별전시회 ‘속초시정의 가까운 옛날’을 열 계획인 가운데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자료의 수집에 들어간다.

■ 문화원 ‘속초문화재 산책’ 발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가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 〈속초 문화재 산책〉을 발간했다. 〈속초 문화재 산책〉에는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신흥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을 비롯해 신흥사 금고·등종·안양암 아미타회상도·명부전(이상 도유형문화재)·칠성도(도문화재자료) 등 6점의 신규 지정 문화재 등 총 20 점의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다.

■ ‘속초문화’ 27호 발간

속초문화원이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지역 문화를 점검하는 〈속초문화〉 27호를 발간했다. 이번 〈속초문화〉에는 속초문화원의 1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속초문화 365’를 비롯해 ‘2011장통사진공모전’ 전 수상작 및 설명, 어르신문화학교와 향토사대중화사업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문화원 포커스’, 속초지역에서 36년 동안 장학 사업을 이어 온 박무웅 회장의 돌감자 장학회를 지면을 통해 만나보는 ‘증업, 속초문화’ 등이 실렸다.

■ 갯마당 미국을 가다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 두 달 째 미국에서 우리 문화를 신명나게 전하고 있다. 갯마당의 상식 박치영씨는 “미국 위스콘신주 나일스빌(Neillsville)에 머물며 김소희·전형준·최혜윤·단원과 함께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인근 미네소타주와 시카고 등의 초중고교와 지역회관에서 우리의 음악을 알리고 있다”고 전해 왔다.

■ 교동 아파트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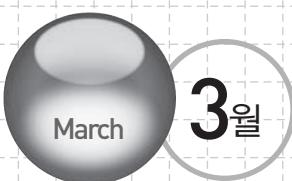
속초시 교동 아파트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월 22일 (사)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은 2012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속초시를 선정, 도서관 건립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7월 착공에 들어가 10월경 완공한다는 밀그림을 짜고 있다.

■ 서울 골목길 정겨운 풍경 감상하세요

서울 골목길의 정겨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골목길 사진작가’ 고 김기찬(1938~2005)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강원사진문화원은 2월 22일 갤러리 카페 아르떼&수(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인근)에서 김기찬 작가의 ‘골목 안 풍경 30년’에 수록된 작품 중 47점을 주려 액자에 담은 ‘명작 감상’을 열었다. 감상은 4월 24일 까지 두 달여 간 이어진다.

■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도 보물

설악산 신흥사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49호로 지정됐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속초문화원과 갯마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가 3월 17일부터 청호·청봉·속초·온정·설악초교 등 지역 내 5개 초등학교에서 열린다. 학교별로 열리는 심화학습은 속초도문농우(설악초교), 북청사자놀음(청호초교), 창극(청봉초교), 취타대(속초초교), 속초도리원농악(온정초교)이다. 또한 초등학생 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을 위한 청소년풀물동아리도 운영된다.

■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업무협약 체결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호남)이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속초문화원, 속초시립박물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무산아동지역센터 등 속초양양지역 4개 기관 및 아동센터들과 3월 6일 교육장설에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토요 어린이 아뜰리에 참가자 모집

속초시립박물관이 3월 24일부터 2012년 상반기 토요 어린이 아뜰리에를 운영하는 가운데 2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24일 1회 차 ‘우리 동네 축제 속으로’를 시작으로, ‘내가 바로 북청사자’(만들기·놀아보기 각 1회), ‘학교생활 프로젝트’, ‘다문화꾸러미와 떠나는 세계여행’(필리핀·베트남 각 1회), ‘탑과 꽃살문 속으로 떠나요’(사전·체험학습 각 1회) 등 총 8회가 진행되었다.

■ 속초 축제 발전방안 모색 포럼 개최

(사)설악문화축제위원회(위원장 윤의구)는 3월 30일 오후 2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속초시 축제 진단 및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언석 기획위원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김천서 경동대 교수의 '속초시 축제 진단 및 속초축제 비교연구', 이선철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국내·외 우수축제 사례연구' 등 3개 주제별 발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속초문화원 20기 향토문화학교 입교식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입교식이 3월 14일 오전 11시 문화사랑방에서 노광복 문화원장, 강사,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일본 극단 신주쿠양산박 '우다가와 신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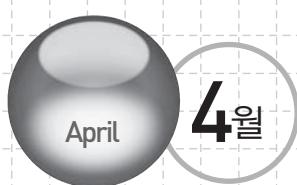
독특한 연극 한편이 속초를 찾았다. 재일교포 연출가 김수진이 이끄는 신주쿠 양산박의 <우다가와 신쥬>가 3월 15일~16일 저녁 속초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다.

■ '사회로의 발걸음, 학교' 특별전

속초시립박물관이 '사회로의 발걸음, 학교'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3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 소장의 교육관련 자료와 전직 교사 장상기씨의 학교 사진이 함께 전시되었다.

■ 성악가 신형섭씨 두 번째 독창회

속초 출신 성악가 테너 신형섭씨(사진)가 생애 두 번째 독창회를 3월 30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속초지역 극단 새 대표체제로

극단 청봉 최은희씨(49)가 새로운 청봉 대표로 활동한다. 극단 굴렁쇠도 앞서 올해 1월 1일자로 김귀선 대표에 이어 황현중(41)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 지역 청소년들 두 번째 '유정총 문화제'

지역의 의인, 고 유정총 선장의 일대기를 다룬 '유정총 문화제'가 올해도 지역 청소년들의 손으로 꾸며진다. 지

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일환으로 속초문화원이 주최하는 올해 '유정총 문화제'에는 웨스타트 속초미술운영센터와 하나로아동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시설 이용 학생들이 참여한다.

■ 카페 '다랑' 두 번째 작은음악회

카페 '다랑'이 4월 6일(금) 오후 7시 '소통과 치유 두 번째 작은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가야금과 클래식기타 연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실버문화관광해설사 17일부터 배치

속초문화원이 4월 17일부터 5개 주요관광지에 실버문화관광해설사들을 투입한다. 올해 실버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8명이 활동하게 되며 오는 16일까지 11회에 걸쳐 양성교육을 받고,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속초관광수산시장, 석봉도자기미술관, 영금정 정자, 영랑호 등 5곳에 배치돼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된다.

■ 김남근 교수 문집 발간

지난 2월 29일 정년퇴임한 김남근 전 동우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40년의 교직생활을 되돌아보는 문집 <행복을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양서원, 373p)을 냈고, 4월 14일 정오 더클래스300호텔 스카이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풀목음문화나눔 봉사단 출발

속초문화원이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지역 어르신 자원봉사조직인 '풀목음문화나눔봉사단'을 꾸릴 계획이다. 지역 어르신 60여명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 in 설악산', '설악시낭송회 풀니움', '속초시립박물관' 등에서 설학·생태·전통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10~11월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속초문화를 알리는 문화체험 봉사활동(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시행했다.

■ '한화예술더하기' 사업 선정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새솔지역아동센터(센터장 정미현)가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의회가 후원하는 '한화예술더하기' 대상기관에 선정돼, 3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

■ 주부·청소년 '도리원농악' 구하기

속초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인 '도리원농악' 전승사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속초문화원은 지난해부터 문화원 주부 사물놀이파와 중학생 풍물동아리(뉘누리) 등으로 '속초도리원농악대 지킴이'를 구성, 도리원농악의 체계적인 전승에 나섰다.

■ 속초시립박물관, 제3전시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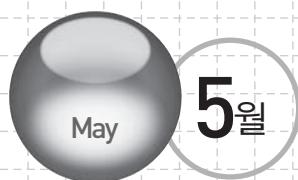
속초시립박물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및 체험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제3전시실을 설치한다.

■ 극단 굴령쇠 강원연극제 금상 “아쉽다”

속초 극단 굴령쇠가 4월 21일 막을 내린 제29회 강원연극제에서 ‘불속에서 숨 쉬는 자 하나도 없다’(박근형 작, 김귀선 연출)로 금상을 수상했다. 함께 출전한 극단 청봉의 ‘환상무대-DMZ’(이반 작, 남호섭 연출)는 장려상을 그쳤다.

■ 속초경실련 시민문화모임

시민대상의 자발적 문화모임이 속초경실련 주최로 생겨났다. ‘좋은 책 읽기’와 ‘좋은 영화 보기’ 모임으로 각각 ‘독서’와 ‘영화’를 함께 소비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4월 첫 모임을 가진 ‘좋은 책 읽기’ 모임은 매월 1회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을 갖는다. 영화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된다. 회원이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추천한 후 DVD로 감상한다.



■ 소외된 이웃 찾아 우리가락 봉사

보리수국악예술단(단장 이희선, 이하 보리수)은 지난 2007년부터 고성 까리따스마태오 요양원과 속초 천사재 가복지센터 등 지역 요양시설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들려주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위문공연’에 나서다 지난해부터는 주 1회 이상 공연을 다니고 있다.

■ 이상국 시인, 정지용문학상 수상

속초에서 활동 중인 이상국(66, 사진) 시인이 제24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지용문학상 시상식은 5월 12일 제25회 지원제가 열리는 충북 옥천예술회관에서 열린다.

■ ‘만화보다 재미있는 그림읽기’ 수업

속초문화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요문화학교 ‘만화보다 재미있는 그림읽기’

수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초등 4~6학년으로, 5월 11일까지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업은 미술에 관한 다양한 인문교양을 배우고 유명 미술작품의 감상 능력을 배양해 ‘문화감수성’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 신흥사소년소녀합창단 2년 연속 대상

신흥사소년소녀합창단이 제24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신흥사소년소녀합창단 이시은 어린이는 ‘색종이마을’로 독창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박채원 어린이는 기쁨상을 받았다.

■ 제23회 속초종합예술제 ‘세상 속으로…’

제23회 속초종합예술제가 5월 17일 개막한다. (사)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 산하 8개 협회(문인·미술·연극·설악연예예술·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의 주관으로 6월 11일까지 펼쳐지는 속초종합예술제는 ‘예술, 세상 속으로…’(통섭과 화합)를 주제로 문화회관과 청초호 유원지, 생활체육관 등지에서 전시와 공연, 경연 등 17개의 풍성한 행사들로 꾸며진다.

■ 남호섭씨 ‘소울연기아카데미’ 오픈

배우 및 연출가로 활동 중인 연극인 남호섭씨(28)가 연기 전문학원 ‘소울연기아카데미’를 오픈했다. ‘소울연기아카데미’는 연극, 뮤지컬, 댄스, 마임 등을 수준별 개인 및 단체 레슨을 하며, 남씨와 극단 소울시어터의 배우 등이 강사로 활동한다.

■ 속초미협 제37회 회원 전시회

속초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지부장 박동국)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37회 회원 전시회를 연다.

■ 속초 김경희씨 수필 부문 장려상

제21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가 5월 11일 강릉 실내체육관과 오죽헌 율곡 평생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속초에서도 수필 3명, 한문서예 1명이 출전해 김경희씨(속초도서관 문예창작교실)가 수필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 각종 지역 노래경연대회 휩쓴 김현미씨

속초예총 설악연예예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현미씨(42, 사진)가 첫 앨범을 냈다. 김씨는 지난달 ‘간다간다’, ‘못 잡아도 고’ 등 트로트 2곡이 담긴 미니 앨범을 내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첫 앨범에는 MR곡까지 4곡이 담겼다.

■ 속초 출신 시인 고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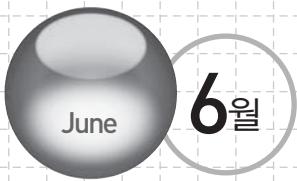
속초 출신 고형렬 시인이 지난달 자신의 아홉 번째 시집 <유리체를 통과하다>를 폐냈다.

■ 속초JC 찾아가는 음악회

속초청년회의소(회장 김명길)는 5월 26일 속초시근로자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아우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200여명을 초청,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속초JC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새 이사장에 백영철씨 선임

(사)설악문화축제위원회는 5월 31일 오후 11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로 단독 주대된 백영철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 국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속초예총의 제23회 종합예술제가 한창인 가운데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가 6월 2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아홉 번째 정기연주회 '춤, 소리로의 초대'를 연다.

■ “우리 가족이 빛어내는 클래식기타 화음 들어보실래요?”

클래식기타의 매력에 흠뻑 빠진 가족이 들려주는 기분 좋은 연주회가 열린다. 속초시 교동에 사는 민복기(42, 파스칼수학원), 이남승(41) 부부와 아들 민세현(교동초 6년), 민승현(교동초 3년)이 6월 10일 오후 5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꿈이 있는 가족 연주회’를 연다. 이 날 모두 클래식기타를 들고 무대에 오른다.

■ 국립극단 ‘소년이 그랬다’ 초청공연

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와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지부장 신오일)는 6월 11일 오후 4시와 7시 속초시생활체육관에서 국립극단 ‘소년이 그랬다’ 초청공연으로 제 23회 종합예술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 민예총, 마을 엽서로 만나는 속초의 기억

속초시민들이 속초의 이야기가 담긴 엽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민예총 속초지부는 6월 4일 문화체육관광

부의 2012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단체로 선정돼, 이달 30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마을 엽서로 만나는 속초의 기억’을 연다. 앞서 18일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과 사진동호인 등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가곡의 밤

프랑스 가곡의 명장 클로드 드뷔시(1862~1918)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가곡의 밤이 속초에서 열린다. 서울 예술가곡연구회(회장 강은규)는 6월 15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해설이 있는 드뷔시 가곡의 밤’을 열어 드뷔시의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준다.

■ ‘풀니음’ 열 번째 정기 시낭송회

16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설악시낭송회 ‘풀니음’(회장 박혜성)이 6월 16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 번째 정기 시낭송회를 갖는다. 풀니음의 공연은 일반적인 시낭송회와 달리 퍼포먼스가 더해져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퍼포먼스에는 극단 소울시티터와 풀니음 회원들이 참여한다.

■ 장규호, 김귀선씨 영예

속초지역 연극인 장규호 전 속초예총 회장과 김귀선 강원도연극협회장이 6월 5일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연극제 개막식에서 ‘전국연극제를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공무원 미술동호회 상록회 초대전

속초시 도문동 ‘마촌미술관’(관장 이설윤)은 6월 23일까지 전·현직 공무원 미술동호회 상록회(회장 문창진) 초대전을 연다.

■ ‘홍의연 도예교실’ 문하생 다섯 번째 전시회

‘그릇전’

‘홍의연 도예교실’(Terra Space) 문하생들의 다섯 번째 생활도자기 전시회 ‘그릇전’이 6월 14~17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도예가 홍의연씨의 문하생 12명이 출품하는 이번 도자전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향이 묻어나는 찻그릇을 비롯해 사발, 주전자, 접시, 화분, 꽃병, 찻그릇세트 등 360여 점이 전시된다.

■ 다문화가정 고민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 속초 공연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고민을 풀어낸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가 6월 28일 오후 3시 30분과 7시 30분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된다.

7 월

■ 50~80년대 접경지 주민들 삶 사진전

속초시립박물관이 접경지역(인제) 주민들의 삶과 문화,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6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인제산촌 민속박물관 협조로 6월 12일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 사진전에는 1950~1980년대 인제지역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사진 40여점이 전시됐다.

■ 속초여고 도청소년연극제 대상

속초여고 연극동아리 누에고치는 6월 13~16일 동해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청소년연극제'에서 미당극 '맹진사댁 경사'를 공연, 대상을 차지했다. '맹진사' 역을 연한 김자연(3년)이 최우수연기상을, 고유정(1년) 등 6명이 우수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서은진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받았다.

■ 속초시립박물관 피난민 체험행사

속초시립박물관은 매년 6·25 전쟁을 맞아해 피난민 체험행사를 열고 있다. 피난민 복장 체험, 피난행렬 체험, 피난민 음식 체험하기 등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실향민문화콘텐츠인 북청사자놀음 공연을 진행하였다.

■ 제3회 장롱사진공모전

속초문화원(원장 노광복)은 6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3회 장롱사진 공모전을 열어 인물사진(가족·이웃)을 비롯해 집안 행사사진(돌·환갑·생일잔치 등), 기념사진 등 생활부문과 문화유적, 골목길, 건조물 등 차연경관부문 등 속초시의 변천 및 발전상을 살필 수 있는 사진을 찾는다.

■ 실버예술단 연극부원 모집

속초시노인복지관이 실버예술단 연극부원을 모집한다. 실버예술단 연극부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노인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연습을 하며,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돌감자장학회' 응원 미술전시회

돌감자장학회(회장 박무웅)를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속초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황재(미술평론가), 김반하(설치미술가), 김용모(인사동아트페어 이사장), 최노옥(용인대 교수), 박미경(서양화가), 김경미(서양화가) 등 작가 12명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돌감자 전시회'를 개최한다.

■ 설악문화재단 "악기 배우려 오세요"

설악문화재단(이사장 한태준)이 7월 14일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악기 무료 강습 수강 신청을 접수받는다. 모집분야는 기타, 드럼, 하모니카(크로메틱) 등 3개 분야며, 각 분야별로 10~15명을 모집한다.

■ '마츠미술관' 강원구상작가회원전

속초시 도문동 '마츠미술관'(관장 이설윤)이 6월 20일까지 강원구상작가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국립발레단이 속초와 고성을 찾는다. (재)국립발레단은 7월 17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백조의 호수' 갈라 쇼를 연다. '찾아가는 발레이야기'는 대한민족 공사와 국립발레단이 지난해 4월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됐다.

■ 도청소년연극제 대상작 양코르공연

속초여자고등학교 연극부 '누에고치'가 올해 강원도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 '맹진사댁 경사'를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인다. '누에고치'는 7월 18일 오후 3시와 5시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맹진사댁 경사 양코르 공연을 갖는다.

■ 극단 청봉 '흰상무대-DMZ' 러시아 공연

극단 청봉(대표 최은희)이 러시아 공연을 위해 7월 22일 출국한다. 강원도연극협회에 따르면 극단 청봉은 지난해 도연극협회의 우수극단 해외초청 공연 지원 사업 단체로 선정돼,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후 7시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구 레닌극장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흰상무대-DMZ'(이반 작, 남호섭 연출)을 공연한다.

■ "폐품으로 미술작품 만들어요"

속초민예총이 7월 21~22일 엑스포주제관 세미나실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정크아트 프로그램 '열린 미술교실-아빠는 상상디자이너'의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상상 스탠드 만들기, 상상 시계 만들기 등이 21일과 22일 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하루 20가족이 참가할 수 있다.

■ 여름방학 어린이문화학교 참가자 모집

속초시립박물관이 여름방학 기간에 어린이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립박물관 어린이문화학교는 속초지역 3~6학년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실향민문화촌 등지에서 진행된다.

■ 속초시평생교육대학 수강생 모집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평생교육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8월 27일 개강해 12월 14일까지 16주(4개월)간 운영되는 하반기에는 취미교양, 외국어, 자격증 대비, 창업·기술, 정보화, 야간교육 등 6개 부문 55개 강좌가 마련된다.

■ “시원한 문화공연으로 무더위 날려요”

속초문화원(원장 노광복)은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를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맞이공원과 설악파크호텔 등지에서 개최한다. 속초예총(회장 이반)은 장사항 맨손오징어잡기 축제가 열리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장사항 특설무대에서 ‘2012 해변 웰빙 콘서트’를 연다.

■ 속초시립박물관 ‘북한예술작품’ 특별전

속초시립박물관이 ‘북한예술작품’ 특별전을 열고 있다. 7월 17일부터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 북한예술작품 특별전에는 손기웅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소장이 수집한 서화류 36점과 도자기 5점이 전시됐다.

■ 속초시립박물관 금·토 야간 개장

속초시립박물관이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야간에도 문을 열고, ‘고향의 밤 콘서트’와 ‘고향의 밤 생활민속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야간 개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며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23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금요일에도 야간 개장한다. 발해역사관 전시실도 함께 개방된다.

■ 대포초교서 ‘사랑·희망·나눔 콘서트’

(사)빛소리오페라단의 신나는 예술 여행 ‘사랑·희망·나눔 콘서트’가 7월 20일 오후 2시 대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2012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를 부재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빛소리오페라단은 ‘우리들은 미남이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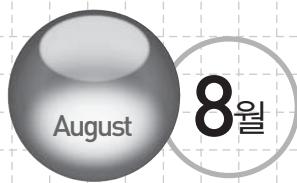
■ 속초관광사진공모전

제13회 속초관광사진공모전 작품 접수가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속초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상, 레저·스포츠·축제 등 4개 부문으로, 1인 최대 6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 설악산 등산로 시로 물들이다

속초문인협회와 설악문우회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설악산을 찾은 탐방객들을 위해 시화전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두 단체는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설악산 소공원 일대(비룡폭포 방향)에서 ‘설악, 詩에 물들다’를 주제로 시화전을 마련,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 대관령국제음악제 저명연주가 속초 공연

대관령국제음악제(예술감독 정명화·정경화) 저명연주가 시리즈가 8월 1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 ‘파홀로 양상블’ 콘서트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 8월 3일 오후 7시 속초시근로자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파홀로 양상블의 꿈·희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12년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 신나는 예술여행’ 일환으로 열리며, 클래식 곡을 비롯해 영화 OST, 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 2012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8월 10일 개막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인 ‘2012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8월 10일~13일까지 4일간 청초호유원지를 뜨겁게 달군다. ‘호수, 태양, 산, 바다’를 테마로 국내 최정성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속초를 한여름밤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 제2회 여미 창작 애니페스티벌 25일 개최

‘인디애니유랑단 2012와 함께하는 제2회 여미 창작 애니페스티벌’이 8월 25일 오후 3~5시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 속초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속초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9월

대상으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8월 6~10일 '도서관에서 만난 음악이야기'를 주제로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법과 자료검색 방법 등을 배우고, 스토리가 있는 음악 이야기, 클래식 감상, 악기연주, 오르골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시립박물관 체험학습실 개방

속초시립박물관이 지난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향민문화촌 내 체험학습실을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리본 만들기, 비누 만들기, 도자기 핸드 페인팅, 쿠킹 클래스, 초크 아트, 냅킨 아트 등이 진행되며, 재료비(3천원~5천 원)만 부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학교도서관서 첫 '학교도서캠프'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진행

여름방학 기간에 올해 처음으로 몇몇 학교도서관에서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캠프'를 열었다. 방학과 함께 시작한 조양초등학교(교장 최홍영)는 7월 25~26일 이틀간 3학년~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책을 통한 나와 친구 이해하기'란 제목으로 독서캠프를 진행했다. 8월 1~3일 속초여자중학교(교장 소명식) 도서관에선 1~3학년 15명의 학생들이 '호호하하' 거리며 샌드위치랑 카나페를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 읽은 책을 가지고 수다도 떨고 독서퀴즈도 풀어보며 재미있는 도서관 찾기를 했다. 8월 6~8일 소야초등학교(교장 이상집) 도서관에서 독서캠프를 마친 23명의 학생들은 다음날인 9일 〈키자니아〉를 방문해 캠프동안 배운 다양한 직업과 자신의 꿈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속초여고, 전국청소년연극제 최우수상

속초여자고등학교 연극부 누에고치가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상(2위)을 수상했다. 속초여고는 8월 7~17일 서울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도대표로 참가, 조선시대 결혼제도의 모습과 인습을 풍자한 장막극 '맹진사댁 경사' (오영진 작, 서은진 지도교사)를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고, 이쁜이 역을 맡은 이예소(2년)양은 최우수연기상(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상), 삼돌 역의 고정윤(2년)양은 우수연기상(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 전태극씨 통일 주제 사진전 '경계시대'

전태극 전 속초민예총 회장이 통일을 주제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촬영해 온 사진을 공개한다. 민예총 통일문화제 기획 행사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문화회관 2전시실에서 열렸다.

■ 최명길 시인 시집 '하늘불탱' 펴내

최명길(73, 사진) 시인이 도서출판 서청시학의 시인선 69 번째 시집 〈하늘 불탱〉을 펴냈다. 시집에는 '천불동 겨울 물소리', '신선봉 고드름 상고대', '참으로 그런 짐', '임사귀가 데려온 고요', '마라도 절벽에 사는 손바닥 선인장' 등 78편과 산문 '헛 날갯짓'이 함께 실렸다.

■ 속초민예총 제15회 통일문화제 개최

속초민예총(회장 장경석)이 제15회 통일문화제를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화회관 2층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올해 통일문화제는 속초지역 주민들의 삶을 토영하는 '이상국 시인의 문학콘서트'를 비롯해 인문학작가로 활동 중인 최동훈 회원이 '이상국 시인과 그의 시 세계'와 '통일문학' 등을 주제로 '통일문학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극단 소울시티터의 '통일 퍼포먼스', 갯배뮤직 캠프의 '통일노래 공연', 설악시낭송회 '통일 시 낭송', 전태극 전 회장의 사진전 '경계시대', '역대 통일문화제 자료전' 등도 함께 펼쳐진다.

■ '재담소리-개 넋두리' 공연

속초민예총 국악협회(회장 김부영)가 9월 8일 오후 2시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 개그 뮤지컬 '재담소리-개 넋두리'를 공연한다. '재주 섞인 말'을 뜻하는 재담소리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익살과 해학으로 풀어가며 소리와 연기로 관중과 호흡하는 민속극으로, '만담'과는 달리 예술성이 인정되는 서울·경기지역 대표적인 연희예술이다.

■ 가을 길목에 독서의 달 행사 '풍성'

속초평생교육정보관은 독서의 달이 시작되는 9월 1일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에서 '책 속의 한 줄을 찾아라' 응모(~14일)를 비롯해 '동화 원화 전시' (4~16일), '간행물 무료 배부' (2011년 간행물 1인 5권, 6~7일), '벼룩시장' (8일), '가로세로 독서퍼즐' (8일), '나만의 책 만들기' (8일), '어린이 백일장' (12일), '가족과 함께 산책로 동화읽기' (12~30일)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속초도서관은 독서의 계절을 맞아 1층 자료실에서 서평 및 서지 제공, 도서전시 등의 '지금은 인문학을 읽을 때' (1~30일)를 비롯해 세계 손도장 놀이 '도서관만의 문화

'체험' (15일), '책, 함께 읽자, 낭독회' (19일), '모범 이용자 시상' (21일), '독서 빙고게임' (22일) 등을 갖는다.

■ 국립오페라단 21일 속초 공연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립오페라단이 속초를 찾는다. 국립오페라단은 9월 21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오페라 리골레토 갈라 콘서트를 연다.

■ 사진작가 고 최구현씨 작품관 마련

사진작가 고 최구현씨의 작품관(기칭)이 속초시립박물관에 설치된다. 시립박물관은 9월 4일 고 최구현씨의 카메라와 촬영 기자재, 속초와 설악산의 모습이 담긴 필름 등 자료 735점에 대한 감정을 마치고 전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 '4인 4색의 시각'으로 담은 사진전

4명의 사진동호인들이 각기 다른 주제로 촬영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봉사진동우회 양양수·박동수·윤영미·장창근 회원은 9월 15~19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기획전시회 '4인 4색의 시각'을 연다. 4명의 회원들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하나의 주제를 1년 이상 촬영한 사진들을 내놓는다. 개인당 15점씩 60점이 전시된다.

■ 교사와 학생이 함께 꾸미는 연극무대

속초·고성·양양지역 초등교사 교육연극연구회 '연극으로 어울리는 사람들'(회장 원영근, 이하 연어)이 9월 10일과 11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여섯 번째 정기 공연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인권연극제'를 연다. 올해는 교사들의 '흔들리는 꽃'(도종환 시, 원영근 연출, 연어 공동각색)과 학생들의 작품 '선녀와 나무꾼'이 함께 선보인다.

■ 속초 도심에 소극장 '두드림' 오픈

속초 설악로데오거리 도심 한 가운데에 소극장이 들어선다. 속초 출신 연극인 김강석(32, 사진)씨는 9월 29일 고 오롱스포츠 건물 7층에 소극장 '두드림'을 오픈, 첫 작품으로 연극 '양덕원이야기'(민복기 작, 장태준 연출)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10월 14일까지 주말(오후 7시), 휴일(오후 3시, 6시), 목·금요일(오후 7시30분)에 18회 마련된다.

■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속초시립박물관이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하반기 수업을 9월부터 진행한다.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은 학생들에게 박물관 관람과 민속 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교과 현장 수업이다.

■ 속초시립박물관 추석날 '한가위 체험행사'

속초시립박물관은 추석인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 일대에서 다양한 세시풍속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한가위 체험행사'를 연다. 한가위 체험행사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색 솔잎 송편 빙기, 추석 차례 상 차리기, 솟대 만들기 체험유료), 속초북청사자 저금통 만들기(유료), 제기 만들고 차기 대회, 가족 투호대회, 상모 판굿 공연, 민속놀이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진다.

■ 속초시노인복지관 댄스스포츠 '은상'

속초시노인복지관 댄스스포츠 팀이 제5회 토토시니어 페스티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노인복지관 실버예술단 댄스스포츠 팀은 9월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토토시니어 페스티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 '룸바~파소도 블레~자이브'로 이어지는 댄스스포츠를 공연, 도내에서 처음으로 은성을 차지했다.



■ '내가 찍은 설악문화제' 사진 응모하세요

(사)설악문화축제위원회와 (사)속초민예총은 10월 5~14일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제47회 설악문화제를 찾은 내방객을 대상으로 '디카-콘테스트, 내가 찍은 설악문화제'를 개최한다. 작품은 설악문화제 현장 및 이미지를 잘 나타낸 1600×1200픽셀(스마트폰 가능) 이상 규격이며 응모할 수 있다. 1인 5장까지 출품할 수 있다.

■ 속초중앙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

속초중앙교회(담임목사 강석훈)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음악회를 연다. 속초중앙교회창립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동일 장로)는 10월 11일 오후 7시 30분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 모테트 협창단 초청 '가곡의 밤'을 개최한다.

■ '영랑호 풀꽃 학교' 운영

속초문화원이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토요문화학교 '영랑호 풀꽃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3~6학년으로, 정원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한다.

■ 설악바다 일요화가회 정기회원전

속초도서관에서 활동 중인 유화 동호회 설악바다 일요화 가회(회장 황경희)가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연다. 설악바다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2012년 정기 회원 작품전을 열어, 회원들의 작품을 점정(2호 사이즈) 5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 설악산 소공원서 산사음악회

춘천불교방송(사장 법검 우송스님)이 10월 13일 개국 10주년 및 속초중계소 개국 기념 산사음악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7시 설악산 소공원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는 정태준, 박은옥, 한서경, 전원석, 마로니에, 박정수, 이명우, 퓨전음악그룹 연리지 등이 출연한다.

■ 속초시립풍물단·속초북청사자놀음 정선아리랑제 초청 공연

속초시립풍물단과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10월 1~4일 정선군에서 개최되는 '2012 정선아리랑제'에 초청돼 공연을 갖는다. (사)설악문화축제위원회와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는 올해 전통문화공연을 교류하기로 약속, 2일 오후 3시30분 정선아리랑제 특설무대에서 시립풍물단의 '판굿'과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의 '속초북청사자놀음'이 90분 동안 공연된다.

■ 제47회 설악문화제 5일 개막

속초의 기을을 축제의 물결로 채색할 제47회 설악문화제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주말과 휴일에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며 호응을 얻은 거리페레이드의 규모를 확대, 불거리가 풍성한 공간·거리축제로 치러진다.

■ 신현대 씨 초청 산노래 콘서트

10월 13일 오후 8시, 공룡능선 하늘길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아영하는 청초호유원지 특설무대에서 '난 바람 넌 눈물'의 가수 신현대 씨 초청 '산노래 콘서트'가 열린다.

■ "2012 강원연극축전에 초대합니다"

강원도연극협회(회장 김귀선)가 10월 26~28일 속초에서 2012 강원연극축전을 개최한다. 연극축전은 도예총의 강원종합예술제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연극협회에 소속된 3개 극단이 최근 문을 연 소극장 두드림(코오롱스포츠 7층)에서 1일 1회(오후 7시)씩 공연을 갖는다.

■ 섬유공예가 고주리 설악문화센터 초대전

섬유공예가 고주리(속초여중 미술교사) 작가가 10월 28

일까지 설악문화센터 초대전을 갖는다. 설악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서 지난 6일 개막된 이번 초대전에는 고 작가의 섬유공예 작품 43점이 전시됐다.

■ 산호유치원, 전국119동요대회 금상

속초 산호유치원이 10월 12일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119동요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 금상을 수상했다. 초등부에서는 신칠원조교가 은상을 수상했다.

■ 벽화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어요

속초시 수복탑~동명동주민센터 도로변에 설치된 두 곳의 철판 가림막이 한 폭의 동양화 벽화로 새단장을 했다. 이 벽화는 젊은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인 '속초홀릭' 회원들과 자녀들이 도시미관을 위해 10월 19~21일 3일간 그려 완성했다. 속초홀릭은 2012년 도시미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재능기부와 협력업체의 후원으로 벽화를 제작했다. 길이 24m×높이 4m와 길이 12m×높이 4m 크기의 벽화는 동양화가 한석봉씨의 작품 '조용한 아침바다'로, 3일간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그렸다.

■ 국내 최초 국립산악박물관 '첫삽'

국내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이 10월 25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 한지혜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장 취임

향토가수로 활동 중인 한지혜(53, 사진)씨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장에 취임했다.

■ 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 26일 개최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가 10월 26일 오후 1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문화원 연합회 강원도지회와 속초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논문 발표회는 도내 11개 문화원이 참여했다.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정상철씨는 속초 '속초리성지(東草里城址)에 대한 소고(小考)'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 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속초민예총 '예술축전' 먹거리단지서 개최

속초민예총 2012 예술축전 '놀이마당'이 10월 28일 교동 먹거리단지 놀이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문을 연 예술축전에서 미술협회의 '악기(귀로, 대나무피리, 마라카스) 만들기 체험'(100명), 사진협회 '무료 초상사진 촬영'(액자 제공, 50명), 문학협회의 '거리 시화전'과 '시낭송대회', 국악협회의 '재담소리 공연'과 '태백 아리 레이 공연', 갯배뮤직캠프의 '초청 공연' 등이 펼쳐졌다.



■ 설악기타사랑 정기연주회 '2012 가을콘서트'

'설악기타사랑'(단장 원영백)이 11월 3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정기연주회 '2012 가을콘서트'를 개최한다. '설악기타사랑'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원영백 단장에게 기타를 배운 수강생들의 기타 모임으로, 2007년 4월 창단, 올해 다섯 번째 연주회를 갖게 됐다.

■ 설악수채화 다섯 번째 정기 작품전

속초·고성·양양지역 그림 동호회 설악수채화(회장 김영덕)가 11월 1일~5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다섯 번째 정기 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영덕 회장의 '집으로'를 비롯해 김병택 지도강사의 '청대산 가는 길', 강인순 회원의 '그곳에 가면', 최종봉 회원의 '도원리의 거울', 이계순 회원의 '비상' 등 14명의 회원이 1년 동안 제작한 작품 40여 점이 내걸린다.

■ 속초·서울·청주 연극인들 한 무대에

속초와 서울, 청주 지역 연극인들이 합동으로 만들어내는 무대가 마련된다. 대한민국연극네트워크사업단은 11월 9~11일 3일간 속초 소극장 두드림에서 창작극 '명주를 부탁해'(임정혁 작·연출)를 공연한다.

■ 속초시립합창단 열일곱 번째 정기연주회

속초시립합창단이 11월 10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일곱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시립합창단은 이날 4장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오늘', '청산에 살리라', '밀양아리랑'의 한국합창곡으로 막이 올라, 'Liber tango' 등의 외국곡, 대중가요인 '왜 불러', 영화 OST 'I will follow you' (시스터 액트) 등도 부른다.

■ 신흥사 한마음합창단 두번째 정기연주회

신흥사 한마음합창단이 11월 11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두번째 정기연주회 '해(海) 바다를 품은 속초'를 연다. 이번 공연에서 한마음합창단은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들려주며, 영화배우 겸 국악인으로 활동 중인 오정해 씨와 신흥사 소년소녀합창단, 가페라 가수 조정호 씨와 아카펠라 그룹 리얼리티의 특별 공연 등도 마련된다.

■ 설악산시민대학총동문회

'제2회 설악 예술 전시회'

설악산시민대학총동문회(회장 최진수)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설악산립공원팀방안내소에서 '제2회 설악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동문들의 재능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예술 전시회는 7·8·9·10기 연합 '핸드 벨 연주'를 비롯해 홍철(7기) 동문의 '색소폰 연주', 윙여분(5기) 동문의 '시낭송', 신태진(9기) 동문의 '사진촬영기법 배워보기', 이정식(3기) 동문의 '리코더·오페라나 공연', 이옥선(4기) 동문의 '기타 연주', 정서연(7기) 동문의 '서양화 작품 이해하기' 등으로 꾸며진다.

■ "갓마당 창단 20돌 주민과 함께 해요"

기념 정기연주회 마련

속초지역 대표 풍물패 '갓마당'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20주년 기념 공연은 객석을 찾아 주 관객들의 액을 물어주는 의미의 '비나리' (복·공연)로 막이 오른 후, '설장구놀이'와 '사물놀이', '상모 판굿'이 펼쳐진다. 이어 장고와 노래로만 구성된 장구 양상을 '바람의 숲'을 선보인 뒤,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청봉사진회, 스몰아홉 번 째 사진전

청봉사진회가 스몰아홉 번 째 사진전을 마련했다. 청봉사진회는 11월 9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1차 전시회를 개막, 13일까지 열고, 이어 16~30일까지 노학동 설악문화센터에서 2차 전시회를 갖는다.

■ 유정충문화제 기획 워크숍 개최

속초지역 어린이들이 오는 12월 고 유정충 하나호 선장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는 문화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11월 10~11일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유정충문화제 기획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위스타트 속초마을운영센터, 행복한홈스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지역아동센터 3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다.

■ '빛으로 그린 설악' 두 번째 사진전

속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동호회 '빛으로 그린 설악'(이하 빛설악)이 두 번째 작품 전시회를 연다. 11월 16~18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유희자 회장을 비롯해 김태성, 윤송현, 김영삼, 이양수, 조혜진, 김남두, 김범석 등 8명의 회원이 2년 간 촬영한 작품을 선보인다.

■ 민예총 한해 정리 2012 속초민족예술제

속초민예총(회장 장경석)이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는

'2012 속초민족예술제'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속초문화회관과 늘푸른요양원에서 펼쳐진다. 국악·문학·미술·사진 등 4개 협회가 참여하는 올해 민족예술제는 전시와 공연으로 꾸며진다. 문학협회의 '연모의 시화전', 미술협회 '일상의 발견전', 사진협회 '속초, 그리고 사진 이야기전'이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함께 진행된다. 국악협회는 24일 오후 2시 늘푸른요양원과, 오후 5시 제1전시실에서 재담소리 공연을 잇달아 연다.

■ 설악윈드오케스트라 두 번째 정기연주회

설악윈드오케스트라(악장 함상균)가 11월 24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 예총 '2012년 송년예술제' 12월 1일 개막

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의 '2012년 송년예술제'가 12월 1일 개막, 30일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올해 송년예술제는 1일 문학협회 '갈뫼 42집 발간 문학 축제'로 막이 올라, 15~30일 미술협회의 '사람 나눔 자연미술전', 20일 음악협회 '음악과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 등으로 진행된다.

■ 극단 소울시어터 두 번째 정기공연

속초지역에서 활동 중인 20대 젊은 극단 소울시어터(대표 남호섭)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두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작지만 큰 연극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공연은 '재재기', '어른 면허', '사이에서'로 이어지는 세 편의 단막연극이 차례로 선보인다.

■ 수채화 동호회 '물향기 일요화가회' 첫 작품전

속초양양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수채화 동호회 '물향기 일요화가회'가 12월 4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첫 번째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11월 30일 개막한 전시회에는 심정희 회장의 '가을 내 안의 하늘처럼, 내 안의 그리움처럼'을 비롯해 안복삼 회원의 '온 세상을 채우는 너', 안혜옥 회원의 '저물어 가는 기억', 나현순 회원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정양실 회원의 '5월의 아침' 등 회원 5명의 작품이 20여점이 전시된다.

■ 설악문화우회 동인지 '갈뫼' 42호 발간

설악문화우회의 동인지 '갈뫼' 제42호가 발간됐다. 갈뫼 제42호는 박명자 회원의 '8월의 e-book', 채재순 회원의 '가랑잎 지다', 권정남 회원의 '바다 위에 누운 부처', 김종현 회원의 '수탉이 있는 풍경' 등 27명의 시 250여 편이 수록됐다. 또 서미숙 회원의 '그리움으로 벗어 던지고'와 노금희 회원의 '아름다운 밤상' 등 수필 5점, 강호삼 회원의 소설 '빙하기의 도시', 이희갑 회원의 동화 '청대산의 소나무'도 수록됐다.

■ 김광희 혜풍서법연구소장 문하생들 첫 전시회

김광희 혜풍서법연구소장의 문하생들이 첫 연합 전시회를 갖는다. 혜풍묵연초대작가회(회장 최홍영)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혜풍묵연 우리 글씨 전'을 개최한다.

■ 어린이들이 꾸미는 '유정충 문화제'

속초의 의인 고 유정충 하나로 선장의 일대기를 다룬 '유정충 문화제'가 12월 15일 오후 3시 소극장 '두드림'에서 개최된다. 속초문화원(원장 노광복)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위스타트 속초마을 운영센터', '행복한 홈스쿨', '방과 후 아카데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정충 선장'의 이야기를 문화예술교육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이 결과물을 발표회 자리에서 선보인다.

■ 속초YMCA여성합창단 열한 번째 공연

속초YMCA여성합창단이 12월 11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한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7시 열리는 공연은 속초YMCA여성합창단과 천진중앙교회 사온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다양한 오페라, 가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제15회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제

1318세대와 함께 하는 제15회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제가 12월 16일 오후 1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속초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예심(11월 18일)을 통과한 속초·고성·양양 지역 중·고생 20개 팀이 참가한다.

속초문화의 힘!

문화예술부문 / 고주리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 황수복

체육부문 / 진장수

문화예술부문



고주리 | 속초여자중학교 교사

문화·예술분야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여 속초 시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꿈과 안목을 향상시킨 공이 지대하며, 교육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이고 각종 예술협회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황수복 | 금호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1973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노인회, 불우이웃, 재해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어업보호기관위문 및 장학사업 등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며 다양한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이 큼

체육부문



진장수 | 속초시복싱연맹 전무이사

20여년동안 속초복싱의 열악한 환경과 시설속에 비인기종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활성화 되도록 TV와 언론 등에 출연하여 속초의 이미지를 관광속초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로 거듭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거두었고,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한순철 선수뿐아니라 수많은 선수를 양성하는 등 체육분야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큼

2012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직위	성명	주 소	비 고
원장	노광복	중앙동 468-142	
부원장	최현식	조양동 코아루APT 102동 606호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이사	고재양	교동 780-60 15/3-	전) 교사
이사	곽철신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영북지구 총청향우회 대표
이사	구영모	대포동 934-5 대포농공단지내 파이프랜드	(주)파이프랜드 대표
이사	권영석	조양동 대광로제비양아파트 101-201	순오텐트 대표
이사	김개남	금호동 이편한아파트 104-604	아시아항공여행사 대표
이사	김계양	대포동 470-3	속초대포하우스 대표
이사	김상복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속초연탄은행 대표
이사	김순옥	장사동 577-38 남북횟집	남북횟집 대표
이사	문광철	조양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속초시초등학교 총동창회연합회장
이사	박명기	금호동 600-7 영랑호리조트 관리사무소	영랑호리조트 본부장
이사	박무웅	도문동 200	돌감자 장학회장
이사	박상열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2010호-	풍원기업(주) 대표
이사	박정기	조양동 230 연회동	설청로타리클럽 대표
이사	박정은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동제약국
이사	양재호	교동 627-32	전)교육행정공무원
이사	윤광훈	교동 1021-4 디자인미디어	이정종합광고 대표
이사	윤숙자	교동 627-42 설악유치원	전) 설악유지원 원장
이사	윤장원	교동 794-2(미시령로 3275)	장원주유소 대표
이사	이영순	금호동 이편한세상 107-1504	나이키 속초점 대표
이사	이준실	노학동 설악럭기1차APT 2-606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이사	임동환	대포동932-8 대포농공단지내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대표
이사	장 옥	교동 삼환아파트 101-301	속초시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이사	장용근	대포동 947-14	금강기획에이피주 대표이사
이사	조동대	조양동 1034-49 청초프라자 117호 설악산단풍빵	설악산단풍빵 대표
이사	주영래	장사동 600번지 12/4	속초시재향군인회 회장
이사	최용석	조양동 성호아파트 202-105	보배이에스씨 대표이사
이사	탁동식	교동 하우스토리 104-801	고성고등학교 교감
이사	한남호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이사	함봉식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주)세림 대표
감사	어재석	중앙동 468-67	전) 속초시의회 과장
감사	허우린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속초간호학원 원장
사무국	김인섭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사무국장
사무국	이정무	교동 동부아파트 102-401	사업과장
사무국	김은중	동명동 44번지 2/2	사무주임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New Have 카드로 새로움에 물들다!



• New Have 카드 : 새로운(New) 출발과 함께 농협 고객이라면 꼭 가지고(Have) 있어야 하는 포인트 특화카드입니다.



신용 기본 0.7% 채움 포인트 적립

• 하나로 고객 등급별 / 전월 이용금액별 0.1~0.3% 추가 적립



추가 0.3~5.0% 적립

• 해외 이용시 0.5% 추가 적립

• 농협판매장 이용시 해당 매출액 0.3% 추가 적립

• 농협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해당 매출액 0.5% 추가 적립

• 농협한심인을 이용시 해당 매출액 5.0% 추가 적립



전국 모든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공

※ 2~3개월 일부 이용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체크 기본 0.3% 채움 포인트 적립

• 하나로 고객 등급별 / 전월 이용금액별 0.1~0.2% 추가 적립

• 해외 이용시 해당 매출액 0.2% 추가 적립

• 농협판매장 이용시 해당 매출액 0.1% 추가 적립

• 농협인터넷쇼핑몰, 농협한심인을 포함



NH우수고객 우대서비스 (하나로고객 제공)

Joy & Health 제휴서비스

banking.nonghyup.com

우대서비스 > fuN&hope라이프

Joy&Health 제휴할인

우수고객 할인율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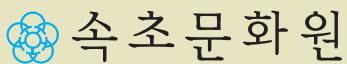
banking.nonghyup.com

우대서비스 > fuN&hope라이프

우수고객 할인율



※ 카드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출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카드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시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사신, 전자우편(=mail)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되어 드립니다.
※ 다만 카드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류업체의 일정식인 세류조건 반경·도산, 천자자판, 금융증권의 급번,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他の 미여 충분하는 사유에 따른 정기피해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하고 불가능할 경우 사후 고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및 기관별 영업장에 문의해보거나 NH농협카드 홈페이지 card.nonghyup.com을 참조하세요. ※ 해당 서비스 내용은 2012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Tel. 033) 632-1231, 639-2439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